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510-01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사진집

漢山

그리고

濟州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사진집

漢山

그리고

濟州

※ '漢山'은 부종휴 선생의 호이며, '한라산'과 '큰 산'을 의미한다.

차례

발간사	05
일러두기	06
1장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부종휴는 누구인가	11
부종휴와 한라산	20
부종휴와 꼬마탐험대	24
부종휴와 식물	32
2장 한라산과 오름	
한라산	45
한라산 탐방로	56
한라산 횡단도로	84
오름	98
3장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화산지질로 본 일출봉과 섭지코지	127
성산일출봉	130
섭지	151
4장 생활민속·경관	
마을	175
초가집	198
어로	216
상량식	232
시장	244
1970년대	250
모래해변	258
별도봉	264
산방산	276
제주시	286
서귀포	320
5장 식물	
식물	359

발간사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중휴 선생님의 사진집을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을 시작으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까지 유네스코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으며, 세계인의 보물섬으로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해 낸 선구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중휴 선생님은 제주의 근·현대를 대표하는 과학자로 한라산의 식물뿐만 아니라 용암동굴, 고고학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제주의 소중한 자원을 발굴하는데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부중휴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선생님께서 평생 동안 남긴 사진과 슬라이드 필름을 수집하여 440여점이 담긴 사진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부중휴 선생님이 남긴 사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번 사진집은 학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제주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해 내는데 평생을 헌신하신 부중휴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번 사진집 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유족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 **나 용 해**

일러두기

본 사진집 편찬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이 생전에 남긴 사진자료를 발굴, 편찬하는 작업을 통해 선생의 업적을 조명하고 선양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종휴 선생이 생전 활동기간에 남긴 필름 및 사진자료는 2500여장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동안 유실된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집 편찬은 유족이 필름과 인화된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협조받아 이뤄졌다. 전체 2500여장의 필름과 사진 가운데 1차로 700여장을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440여장을 사진집에 수록했다. 부종휴 선생이 남긴 사진자료는 대부분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시기에 걸쳐 촬영한 것들로 흑백사진 위주이며, 컬러사진도 들어있다.

사진은 한라산과 오름 등 산악관련 뿐만 아니라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의 원풍경, 도내 곳곳의 다양한 경관과 생활민속, 어로·해양 관련, 제주시·서귀포시 경관과 변천사 등을 엿볼 수 있다. 지금은 잊혀져가는 1960년대, 70년대 한라산과 제주 경관, 풍속 및 원풍경을 잘 보여주는 사진들로 자료적 가치가 크다. 한라산을 비롯 제주의 산악문화와 생활민속상, 경관의 변천 등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사진은 대부분 필름과 슬라이드 필름 형태로 남아있었다. 사진집 편찬을 위해서는 필름과 슬라이드로 남아있는 사진들을 파악하는 일이 1차 과제였다. 먼저 필름과 슬라이드 자료를 일일이 스캔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선행한 뒤 이를 전체 제분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이어 주제별로 분류하고, 사진 상태와 중복 여부, 사진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700여점을 선별하여 묶어내고, 다시 재분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440여점이 사진집에 실렸다.

목차는 전체 5장으로 구성했다. 1장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는 부종휴 선생의 생애와 업적 등을 다루고, 관련 활동사진을 수록했다. 2장 ‘한라산과 오름’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한라산 원경 사진을 비롯 1100도로 등 횡단도로 개설과 탐방로 주변 풍경, 오름 등을 담았다. 3장 ‘성산 일출봉과 섭지코지’는 관광지로 본격 개발되기 전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의 원풍경을 느낄 수 있다. 4장 ‘생활민속·경관’은 부종휴 선생이 제주도 곳곳을 누비며 촬영한 사진들이 수록됐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량식 장면이나, 집줄놓기 풍경, 마을과 해안가의 어로 관련 장면 등을 볼 수 있다. 제주시가지의 변천상과 별도봉, 사라봉의 원풍경, 서귀포 해안 경승지 사진 등을 앵글에 담았다. 5장 ‘식물’은 부종휴 선생의 식물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사진자료들이다.

부종휴 선생은 다양한 피사체를 남겼다. 하지만 촬영시기와 장소 등 사진 관련 기록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부종휴 선생이 활동 기록과 유족의 설명 및 당시 시대상 등을 반영해 사진 해제와 원고를 작성했다. 사진 해제와 원고 작성은 주제별·장소별로 해서 사진을 수록하고, 표제어에 대한 원고 작성을 통해 사진 촬영 당시의 사회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사진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 설명을 달아 사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사진집 발간은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협업 및 유족 측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사진 분류 작업에는 김찬수 책임연구원을 비롯 강순석·강시영·강경민·고정균·오문필·이윤형 연구원 및 김상철·고광민 자문위원, 유족인 부명제·이현숙씨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원고 작성은 1장은 김찬수·고정균·강시영 연구원이 맡았으며, 2장은 이윤형 연구원이 담당했다. 3장은 고광민 자문위원과 고승욱(민연구소 소장)이 사진 분류와 원고 대부분을 집필한 가운데 화산지질분야는 강순석 연구원이 작성했다. 4장 또한 사진 분류와 원고 대부분을 고광민·고승욱이 맡았고, 일부를 이윤형 연구원이 담당했다. 5장은 고정균 연구원이 작성했다. 필름과 슬라이드, 사진 스캔 등은 오승목(다큐제주)이 맡았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으로는 진소정·김보연이 참여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훤 사진집

漢山

그리고

濟州

제 1 장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한산 부종휴

부종휴는 누구인가

부종휴 선생(1926. 6~1980. 11)은 구좌읍 세화리 출신으로 식물학자, 동굴학자, 산악인, 자연보호운동가였으며, 이에 비해 널리 알려지진 않았으나 사진가로서도 제주지역에 공헌한 바가 지대했다.

1945년 3월 김녕리 사굴(김녕굴)과 궤내기굴 탐사를 시작으로 1946년 4월 12일 만장굴의 존재를 확인하고 같은 달 21일 최초로 탐사했다. 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동굴을 발견하고 탐사하여 제주도 지질자원 선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1966년 중앙일보, 경북산악회, 일본 지하수학회 공동 만장굴 학술조사, 1967년 한국동굴협회 주관의 2차 만장굴 학술조사에 참여했다. 특히 1968년 3차 만장굴 학술조사는 동굴협회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제주지역 용암동굴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로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용암동굴임을 발표하게 되었다. 빌레못동굴에 대한 탐사(1970년 3월)는 9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 1973년 7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영남대학교 인류문화학과와 공동 탐사를 통해 황곰뻐를 비롯한 각종 동물의 뼈를 발견한 것은 당시 고고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산으로서의 한라산의 가치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깨달아 1963년 「한라산과 등산안내 -등산코스 개척을 중심으로-」를 제주도지 제12호에 발표했다. 이 글은 한라산의 지리, 지형, 경관 및 보유 식물자원의 가치를 밝힌 등산 관련 최초의 종합안내서라 할 수 있다. 1964년 제주산악회 부회장을 거쳐 1968년 한라산우회 회장에 취임하는 등 산악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한라산 등산로 표시판 설치(1968. 10. 15 제주신문), 한라산 등반에 새로운 코스 개척(1969. 8. 29 제주신문) 등을 주도한 사실들은 그 면면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단편들이다.

선생은 특히 식물학 관련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1964년 「제주도산 자생식물목록 제1보(The list of Flora in Queapart)」를 대한약사회 학회지 제5권 2호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당시까지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제주도 식물목록에 추가해야할 333종을 밝힌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사실은 당시 언론들이 ‘333종의 뉴페이스, 한라산 새 식물 발견’(1964. 1. 24 경향신문) 등의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다.

1973년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 -특수자연자원편(特殊自然資源篇)-』, 1974년 『한라산천연보호지구 자원조사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 보고서들은 당시까지의 학술연구 성과를 총 정리한 종합보고서의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종휴 선생의 연구 성과물은 논문 14편, 논문 1편, 보고서 1편, 저서 1편, 칼럼 7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식기록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24차의 동굴탐사를 했다. 이 숫자는 사실 부종휴 선생이 쓴 논문 「아름다운 경관·식물의 보고寶庫 / 한라산 등산 365회」에 나타난 등산기록 365회에 견주어 보면 동굴탐사도 훨씬 많았을 것이다.

이처럼 부종휴 선생은 식물학자, 동굴학자, 산악인, 자연보호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왔고, 이 방면의 연구 성과들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자료들을 찾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자연과 민속 등에 관한 수많은 사진을 남겼음을 알게 되었다. 사진 관련 활동 중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서는 최초로 사진전을 개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진작가로서도 활동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이 내용은 ‘제주도 최초의 사진전’이라는 내용으로 제민일보(2010. 12. 21일자)가 보도한 바 있다. 1955년 부종휴, 고영일 2인 공동 사진전을 칠성로 남궁다방에서 개최했다는 것이다.

1973년, 교육 제주 24호에 발표한 「한국신·구석기시대의 혈거유적에 대하여 / 제주도 빌레못굴·한들굴」이란 글에 나오는 일화다. ‘황곰의 두개골頭蓋骨을 굴 외에 가지고 나와서 촬영을 하여 고생물학전공(古生物學專攻)에 의뢰를 하려고해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필자는 그때 큰 실수를 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 실은 전기한 두개골頭蓋骨을 굴 밖에 갖고 나오려면 그 전에 약품처리를 하여야 뼈가 굳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햇빛아래서 사진을 찍고 옮기려는 순간 뼈가 부스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부종휴 1970년대

한라산 조사 도중 암벽에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부중휴 선생은 관찰이나 탐사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또는 경관이나 민속들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 한 것으로 보인다. 장남 부명제씨는 ‘아버님은 각종 카메라를 한꺼번에 7~8개씩 가지고 다니셨다. 이것은 지금처럼 다양한 성능이 하나의 몸체에 다 들어 있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골라 쓰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선생이 사진 촬영에 몰두한 것은 사진이 갖는 기록성을 일찍이 간파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산(漢山) 부중휴

- 1926년 6월 23일 구좌읍 세화리 출생
- 1945년 3월 진주사범학교 졸업, 김녕국민학교 부임
- 1947년 8월 제주초등교원양성소 졸업
- 1949년 9월 제주농업학교 교사
- 1951년 5월 신성여고 교사
- 1953년 4월 제주사범학교 교사 부임, 그해 10월 부산대 약학대학 조교 부임
- 1960년 4월 서울대 생약연구소 연구원 부임
- 1966년 서울대 약학대학 약용식물학교실 연구원 부임
- 1967년 10월 서울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연구원 부임
- 1973년 11월 제주도문화상 수상
- 1976년 9월 제주대 식물학과 강사 부임
- 1980년 11월 21일 별세



부중휴 선생 묘비

제주시 구좌읍 비치미오름 기슭에 있는 부중휴 선생 묘비. 묘비 뒷면에는 ‘산과 植物, Coffee와 Pipe, Brahms와 Camera, 그리고 漢孛山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적혀 있다.



제주도문화상 기념식장에서의 부종휴 1973년 11월

부종휴 선생은 1973년 11월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했다. 도문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부종휴 선생이 단상 앞에서 있는 모습이다.



한라산 조난자 수색 ① 1961년

1961년 발생한 서울대생 한라산 조난 사고 당시 수색에 나선 이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오른쪽 무전기를 들고 있는 이가 부종휴 선생이다.



한라산 조난자 수색 ② 1961년

1961년 한라산에서 서울대생 조난 당시 수색에 나선 장면이다. 맨 앞쪽이 부종휴 선생이다. 폭설이 내린 가운데 수색에 나선 이들이 눈밭을 헤치며 걷고 있다.



한라산 조사 ① 1970년대

한라산 조사 도중 정상부 남벽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부종휴 선생이다.



한라산 조사 ② 1970년대

한라산 조사 도중 잠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 카메라를 맨 이가 부종휴 선생이다. 부종휴 선생은 조사를 다닐 때면 늘 카메라를 메고 사진으로 기록하곤 했다.

부종휴와 한라산

부종휴 선생은 ‘내가 맨 처음으로 한라산을 갔던 것은 13세 때 누님을 따라 성널폭포에 물 맞으러 갔던 때인데 여름철이 되면 피서객들이 성널폭포에 물 맞으러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때는 구좌읍 세화리에 거주 하던 때라 걸어서 세화리~송당~교래리를 거쳐 성널폭포에 갔던 것이다.’(제주도지, 1979)라고 한라산과 첫 만남을 소회하였다. 이는 1938년부터 한라산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식물을 연구하다보니 과거에는 산에 살다시피 했고, 한라산 정상까지만 364회의 등산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한라산이 편리한 교통과 정비된 등산로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접근하기 쉬운 곳이지만 부종휴 선생이 한라산을 찾을 당시는 접근이 쉬운 공간은 아니었다. 한라산 정상을 가기위해서는 며칠을 산과 같이 해야하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가능한 상황이었다. 1963년 남긴 글에서 ‘한라산을 100회나 넘게 다닌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놈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짓이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놀랄 것이다.’라는 표현은 당시 한라산을 등산하고 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누구도 감히 이를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다.



한라산 조사 ③ 1970년대

한라산 백록담 조사 나선 이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 맨 왼쪽이 부종휴 선생이다. 백록담 분화구에 상당량의 물이 고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종휴 선생은 한라산의 구석구석을 탐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63년 제주도지에 남긴 「한라산과 등산안내-등산코스 개척을 중심으로-」란 글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부종휴 선생은 한라산의 매력과 함께 계절적 특성을 소개하면서 개척 대상인 대략 10개의 등산코스를 직접 그린 지도와 함께 제시하고 각 코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들 등산코스 중에는 당일 등산,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1주일이나 10일, 15일, 장기간 잡을 수 있는 코스까지 현장조사와 체험을 통해 소개하였다. 이처럼 한라산 정상을 찾았던 다양한 등산로로 직접 탐사하고 기록한 것은 얼마나 그가 한라산의 구석구석을 탐사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지금 한라산에는 천연보호구역이 설정되었는데, 천연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사전 조사는 1961년부터 1964년까지에 수차례 걸쳐 고 박만규 박사와 필자에 의해서 실시되었고, 1964년에 동·식물, 지질의 종합학술조사를 마친 다음 1967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라산은 부종휴 선생에게 연구의 대상이기도 했다.

한편, 부종휴 선생에게 한라산은 ‘온 세계가 진분홍 일색이며, 길가다 그대로 쓰러져버려도 진 달래 꽃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며, 앞에 가는 사람도 머리밖에 안 보이는 쿠션 좋은 눈향나무에 들어 누워서 남쪽의 바다를, 섬을 조망하는 때의 느낌이란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먹지 않고서도 살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라도 들어 눕고 있고픈 생각뿐이다.’라고 하면서 ‘자연의 품속에 언제나 안길 수 있고,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고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듯 안식처이며 행복이기도 했다.

어린나이에 시작된 부종휴 선생의 한라산과 함께 한 생활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여년의 평생을 같이 한 것이다.

한산漢山 부종휴. 이처럼 부종휴 선생의 삶은 그 자체가 한라산이었던 것이다.



한라산 조사 ④ 1970년대 후반

1970년대 후반 제자들과 함께 한라산 현장 답사에 나선 부종휴 선생(사진 맨 오른쪽) 일행이 잠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종휴 선생 옆은 부인 이정희씨.

부종휴와 꼬마탐험대

제주 만장굴의 실체는 현지에서는 ‘만쟁이거덜’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져오는 등 까마득한 옛날부터 전해져 왔으나 암흑속 미지의 공간인 동굴의 침입은 두려움과 기괴의 대상이었다.

만장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4월 부활절 날이었다. 지하에 감춰져 있던 세계 최장(당시만 해도 그랬다) 만장굴의 실체가 부활절 날에 되살아났다. 당시 북제주군 김녕초등학교 교사 부종휴와 그의 제자들로 짜여진 ‘꼬마탐험대’ 30여명은 그로부터 다음해까지 1년간 5차례 걸친 답사와 측량을 통해 굴의 전모를 밝혀낸다.

부종휴와 꼬마탐험대의 이야기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제주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인 만장굴을 세상에 알린 최초의 역사다. 이들의 동굴 탐험은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쾌거였다.

부종휴는 그가 인솔한 제자들을 가리켜 ‘꼬마탐험대’라고 불렀다. 당시만 해도 제 연령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시대·경제적 상황이어서 나이로는 10대 중반의 늦깎이 학생들도 있었지만 ‘꼬마탐험대’는 그저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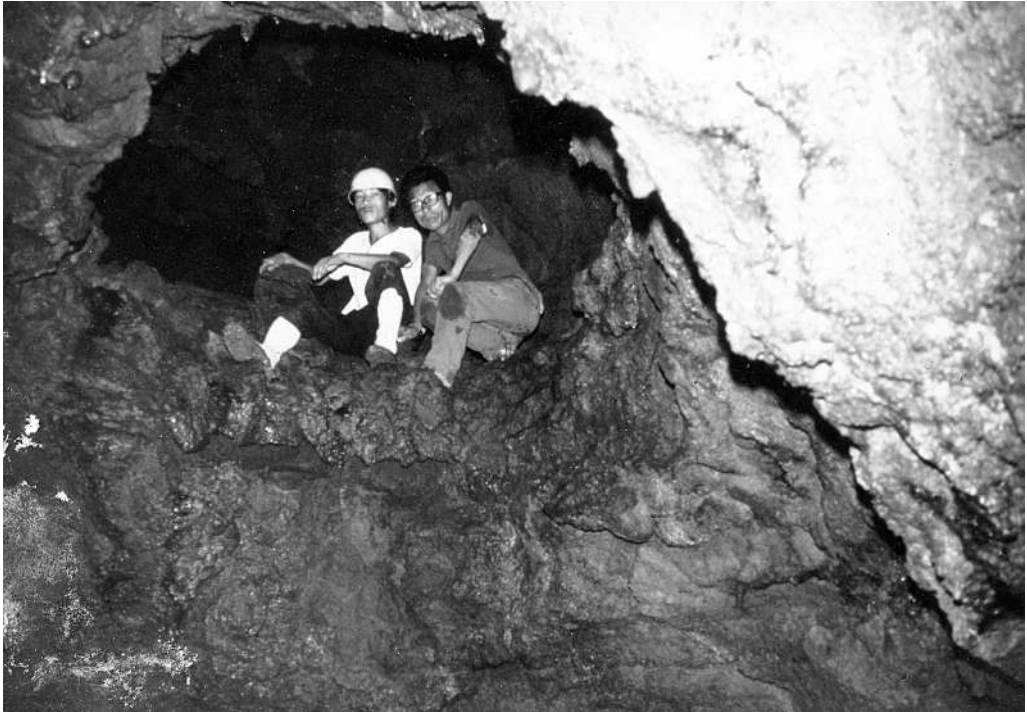
만장굴에서의 부종휴 1979년

부종휴 선생(사진 오른쪽 세 번째)이 일본에서 온 지인들에게 만장굴 내부를 설명하고 있다.

부종휴와 ‘꼬마탐험대’의 만장굴 탐사는 무모하리만치 대단한 도전정신이 아니고서는 결행할 수 없는 모험이었으며 만장굴의 살아있는 역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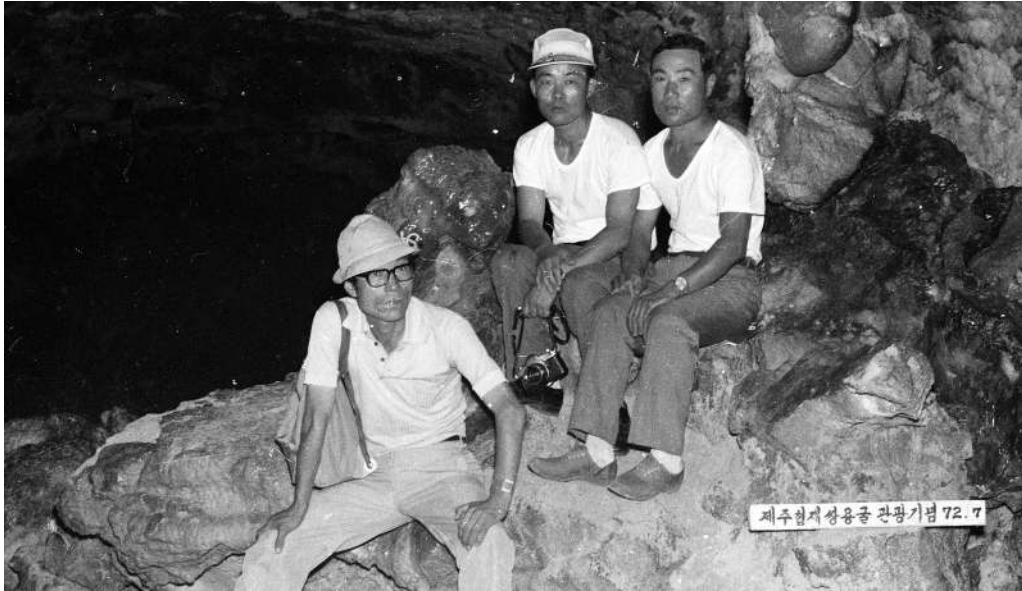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동굴에 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958년 경북 울진 성류굴이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부종휴와 꼬마탐험대의 모험은 실로 대단한 ‘사건’이었다. 만장굴은 발견 후 오랜 시일 동안 일반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1961년에 이르러 중앙 일간지에 만장굴이 대서특필되면서 갑자기 일반의 관심거리로 떠올라 이듬해인 1962년에 김녕사굴과 더불어 천연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그후 만장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1966년 착수되고 뒤이어 같은해 4월에는 중앙일보와 경북산악회, 일본지하수연구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일합동으로 실시됐다. 1967년과 1968년에는 한국동굴협회에 의해 조사가 계속됨으로써 세계적인 용암동굴로 속속 알려지게 되었다. 만장굴 학술조사는 그후로도 계속됐다. 그때마다 부종휴는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빌레못동굴에서의 부종휴와 장남 명제씨 1970년대 초반

1970년대 초반 빌레못동굴 조사에 나선 부종휴 선생과 장남 명제(사진 왼쪽)씨가 동굴 안에서 잠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협재 쌍용굴에서의 부종휴 1972년 7월

부종휴 선생(사진 왼쪽)이 쌍용굴 내부에 앉아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하단에 '제주협재쌍용굴 관광기념 72. 7'라는 글씨가 뚜렷하다.

만장굴에 대한 대규모 학술조사는 1977년부터 부종휴의 사후(1980년)인 1982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실시됐다. 조사는 한·일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조사단 규모가 무려 300여 명에 이르는 대탐사였다. 이후 화산동굴학회에 의한 만장굴 조사가 줄을 이었다.

동굴에 대한 부종휴의 열정은 가히 초인적이었다. 1946년 만장굴의 발견은 서막에 불과했다. 1970년 성산을 수산굴, 이듬해 서귀포 미악*岳 동쪽 수직굴 답사가 이어졌다. 수직굴은 이때만 해도 제주에서는 처음 발견된 용암굴이었다. 당시 부종휴는 한라산우회를 오래도록 이끌고 있었는데 동굴답사가 한라산우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됐다.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면 그 소식이 부종휴와 한라산우회로 전달됐고 목숨을 담보한 동굴답사가 계속됐다.



동굴 암벽 조사 1970년대

줄사다리에 매달려 어느 동굴 암벽을 내려가는 모습이 아찔하다. 당시 동굴 탐사 과정이 험난했음을 느낄 수 있다.



빌레못동굴 조사 나선 한라산우회 1972년

1972년 빌레못동굴 5차 측량 답사에 나선 한라산우회 회원들이 동굴 입구 주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 쪽이 서재철 사진작가, 네 번째 안경 쓴 이가 부종휴 선생, 여섯 번째가 장남 명제씨. 명제씨는 “당시 일본에서 동굴 조사차 온 다무라 박사가 벗어주고 간 파카를 입고 등산모를 썼다.”고 술회했다.

1971년 3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옛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에서 길이 11.7 km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장의 굴 ‘빌레못굴’이 부종휴와 한라산우회에 의해 전격 발표된 것이다. 2년 뒤인 1973년에는 부종휴와 제주대 박행신 교수 등에 의해 동굴 내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과 동물뼈 화석이 발견돼 중앙 문화재위원들에 의한 긴급 발굴조사가 시행됐다. 이어 1975년 영남대 정영화 교수 등에 의해 구석기시대 유적 및 유물에 관해 종합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빌레못굴은 1984년 천연기념물 제342호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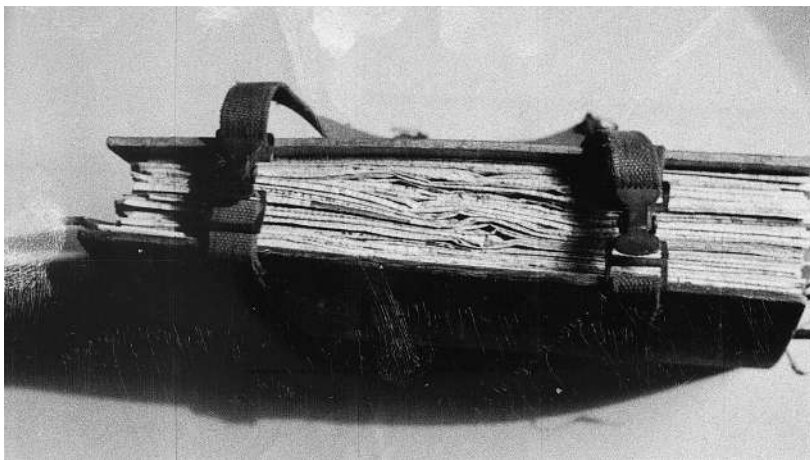
동굴 탐사 1972년

어느 동굴 탐사 도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 두 번째가 부종휴 선생, 세 번째가 장남 명제씨, 네 번째가 부인 이정희씨다.

부종휴와 식물

1979년 8월. 부종휴 선생이 생전에 공식적으로 남긴 마지막 글이라고 생각되는 「나의 산행, 아름다운 경관·식물의 보고 -한라산 등산 365회(제주도지, 제75회)」에서 한라산의 산행을 언급하면서 '산을 다니면서 식물을 채집하면서 새로운 미기록 식물 4백여 종을 추가, 한라산 식물이 종수가 1천8백여 종에 이르게 된 것은 나의 큰 자랑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는 이미 1964년 약학회지에 「제주도산 자생식물 목록(제1집)」을 통해 제주 미기록이 상당부분 포함된 3백33종을 발표했다.

부종휴 선생은 제주도지(제12호, 1963년)에서 '한라산은 그 식물의 수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느 산보다도 가장 많은 1천8백에 가까운 난, 온, 한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 1973년)에서도 '제주도의 식물종수는 대략 1천8백여 종으로 우리나라 식물의 반수는 제주지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야책(식물표본 채집도구)

당시 야외 식물조사를 위해 사용했던 채집도구이다.

부종휴 선생은 1962년 4월 한라산에서 왕벚나무 자생지를 발견했다. 당시 국립과학원장 박만규 박사가 제주도 식물조사단 단장으로 제주에 왔다. 조사단 규모가 무려 56명에 달했다. 문화재보존위원회 제3분과위원장이던 박만규 박사가 단장을 맡고 한라산을 손금보듯 돌아다녔던 부종휴 선생이 식물조사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 이때 왕벚나무 자생지가 수악水岳 서남쪽에서 발견됐다. 제주시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도 잇따라 확인됐다. 20세기초부터 일본과 한국식물학계에 이어져 온 왕벚나무의 원산지 논란에 쐐기를 박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곳은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부종휴는 이후에도 한라산 곳곳에서 왕벚나무 자생지를 잇따라 확인했다. 이외에도 한림읍 월령리 선인장 자생지 등 제주 식물들이 부종휴 선생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구상나무 군락지에서의 부종휴 1970년대 초

부종휴 선생(왼쪽 두 번째)이 구상나무 군락지에서 일행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부인 이정희씨다. 사진 하단부는 금방망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부종휴 선생의 식물에 대한 연구는 한라산에 분포하는 식물종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한라산이란 정말 매력적인 산이다. 가도 가도 싫증을 느끼지 않은 산이 한라산이다. 이 산에서만 느끼는 묘미, 스릴, 아름다움 그리고 풍부한 식물자원과 관광자원은 딴 어느 산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듯이 식물자원의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1962년 제주도지에 발표한 「본도 약초자원 개발의 현재와 장래의 문제」란 글에서 제주도에 분포하는 약용식물은 400여 종이 알려져 있으나 현재 채취하여 약재로 활용하는 것은 50여 종이며, 도 내에서 재배되는 약재는 10여 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이에 대한 해결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안에서 정상까지의 식물을 쳐다보면 일본 구주로부터 만주 우수리지방의 식물을 대략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식물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식물의 수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느 산보다도 가장 많은 식물이 난대, 온대, 한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 할 만하다.’라고 언급하면서 한라산 식물의 분포 특성과 가치를 논하기도 하였다.



한라산 식물 조사 1970년대

부종휴 선생(사진 왼쪽)과 박만규 박사(가운데)가 식물 조사 도중 어느 능선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부종휴 선생을 가장 적절하게 대변하는 것은 식물학자다. 한라산을 수백회나 오르내렸던 그는 수많은 미기록 식물과 자생지를 찾아냈다. 한라산에 분포하는 식물이 미발표 종을 포함해 1천8백여 종에 이른다는 보고는 부종휴 선생을 통해 제기되었고, 최근까지도 거의 정설이 되다시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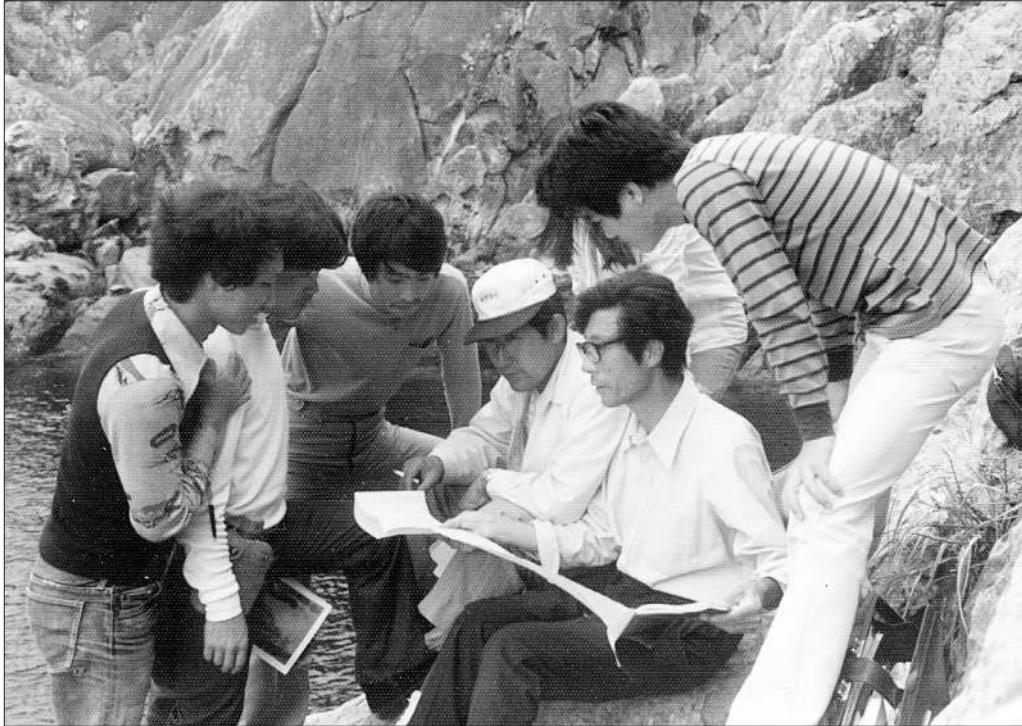
더불어, ‘지질, 곤충, 기상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 들어갔다 하면 그 산의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미련을 남긴 채 돌아오게 하는 산도 바로 이 산이기도 하다.’라고 하듯이 한라산에 대한 다양한 연구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에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들이기도 하다.



야외 식물조사 나선 제주대 식물학과 학생들 1978년

1978년 야외 식물조사에 나선 제주대 식물학과 2학년(77학번) 학생들이 한라산 어승생악 정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부종휴 선생은 1976년 9월 제주대 식물학과 강사로 부임했다. 식물조사 나선 학생들은 부종휴 선생의 제자들이다. 오른쪽 네 번째는 제주대 식물학과 김문홍 교수.



야외 답사 나선 부종휴 1970년대

부종휴 선생(사진 오른쪽 두 번째)이 제자들에게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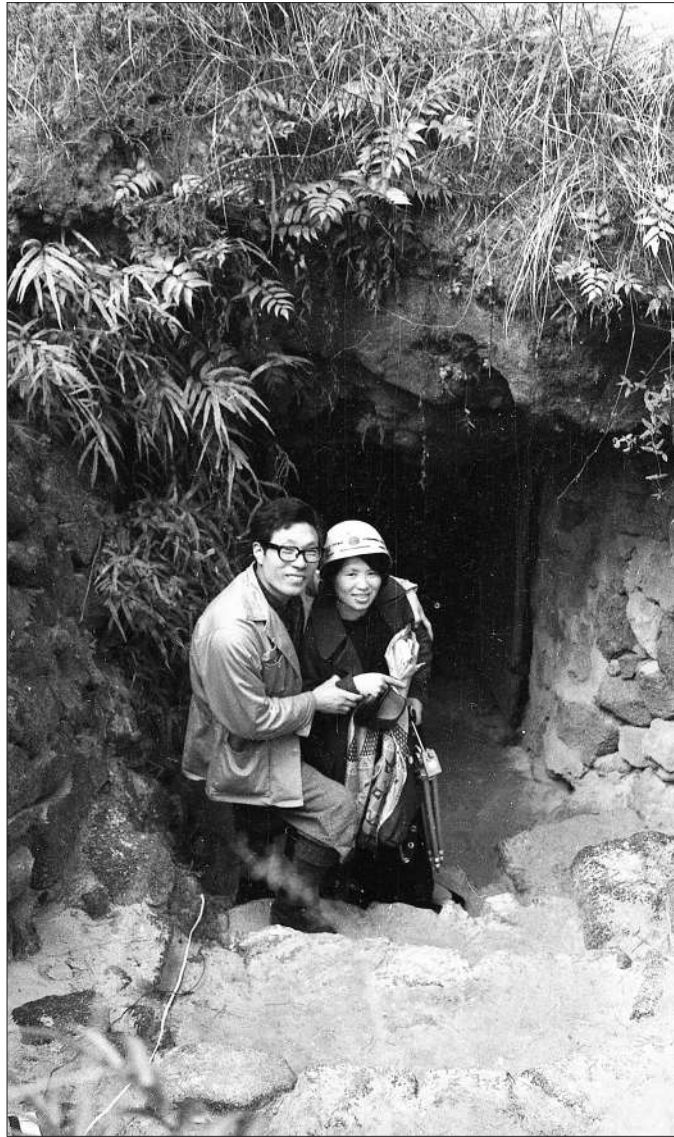
철쭉제에서의 기념 촬영 1960년대 후반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안에서 철쭉아가씨(사진 오른쪽 네 번째)와 함께 한 장면이다. 맨 오른쪽이 부종휴 선생이다. 철쭉제는 1967년 처음 시작돼 2회 때인 1968년 5월 26일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서 개최됐다. 이후 참가자가 많아지면서 안전문제와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돼 1977년 11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백록담에서 철쭉제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후 철쭉제는 왕관능, 선작지왓, 어리목 등지로 개최 장소가 바뀌게 된다.



답사 나선 부종휴 선생 1970년대

부종휴 선생(사진 가운데)이 지인들과 함께 만장굴 답사 도중 야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 여성이 들고 있는 사진에서 만장굴 용암종유석이 뚜렷하다.



쌍용굴·협재굴 입구 발견 후 1972년

1972년 한림 쌍용굴과 협재굴의 바닷가쪽 입구 발견 후 부종휴 선생이 부인 이정희씨와 밝게 웃고 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훤 사진집

漢山

그리고

濟州

제 2 장

한라산과 오름

한라산

화산섬 제주도는 한라산漢拏山으로 상징된다. 제주섬 중앙에 우뚝 솟은 해발 1950m의 한라산은 제주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을 떼어놓고 제주도를 상상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한라산이 곧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한라산 자락에서 제주인들은 삶을 일구며 독특한 역사문화와 민속생활을 이어왔다.

한라산은 금강산·지리산과 함께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자 민족의 영산이다. ‘한라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할까. 조선시대인 1397년(태조 6) 권근이 지은 ‘어제시御製詩’에 그 이름이 보인다. 권근은 ‘탐라耽羅’라는 시제를 내걸고 지은 시에서 ‘푸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산이, 만경창과 아득한 속에 멀리 있네(중략)’라고 읊고 있다. 하지만 ‘한라’라는 표현은 이보다 앞서 나타난다. 고려 충렬왕 무렵 제주에 머물며 산방굴사를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혜일 스님은 그가 수도생활을 했던 광령계곡에 위치한 ‘서천암’을 노래한 시에서 ‘한라의 높이는 몇 길이던가, 정상의 웅덩이는 신비로운 못’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라산’ ‘한라’라는 표현은 고려말부터 사용되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라산의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편찬) 기록에는 한라산의 특징에 따른 명칭이 여럿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한라산은 고을의 남쪽 20리에 있는 진산이다. ‘한라’라고 말하는 것은 운한雲漢(은하수)을 끌어당길 만하기 때문이다. 혹은 두무악頭無岳이라 하니 봉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요, 혹은 원산圓山이라고 하니 높고 둥글하기 때문이다.

즉 한라산은 제주도의 진산巔山이자, 은하수를 끌어당길 만큼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한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두무악’ ‘원산’이란 명칭은 화산분출로 형성된 한라산 순상화산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름이다. 한라산은 방패형 화산(shield volcano)이다. 백록담의 움푹 파인 모습이 가마솥 같아서 부악釜岳,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瀛洲山이라고도 했다.

한라산 정상의 이름도 등장한다. 숙종 28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한라장축漢拏壯屬」에는 백록담과 함께 혈망봉穴望峰이라 표기돼 있다. 산정화구인 백록담 분화구는 깊이 108m, 둘레 1720m, 면적은 21만㎡에 이른다. 백록담 북쪽 능선에서는 한라산신제가 봉행됐다. 한라산 높이는 1901년 독일인 지그프리드 겐테 박사에 의해 한라산 등정시 최초로 1950m로 측정됐다.

한라산은 제주 신화와 전설의 본향이다. 한라산에서 태어나 한라산에서 사냥하며 살아가는 영웅신 하로산또(한라산신),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하얀사슴 전설, 설문대할망이 빠져 죽었다는 산정호수 물장울 전설, 한라산 호국신인 광양당신과 관련된 전설 등이 술하게 전해진다. 예술가들은 한라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한라산은 예나 지금이나 문학, 그림을 비롯한 창작의 원천이 된다.

그렇지만 제주 사람들의 고향인 한라산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다. 제주4·3 사건 당시 1948년 10월 17일 제주도경비사령부에 의해 한라산 금족령이 내려진다. 당시 제주도경비사령부는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의 무리로 인정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중산간 마을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렸다.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해제돼 다시 개방될 때까지 한라산은 도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됐다.



한라산 ① 1970년대

한라산 관음사 왕벚나무 자생지 일대에서 바라본 한라산 모습이다. 겨울 햇빛은 나무들 뒤로 정상부에 눈이 쌓인 한라산이 보인다.

한라산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한라산에는 19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과 4000여 종의 동물이 분포한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요인과 해발 고도에 따른 영향으로 온대부터 한대 기후대까지의 식생이 수직분포를 보이고, 희귀식물이 자란다. 한라산 자생 식물들은 대부분 부종휴 선생에 의해 식물 종수 등이 밝혀졌다. 한라산에 분포하는 식물종이 1800여 종에 이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가 부종휴 선생일 정도로 불모지였던 제주 식물연구의 초창기부터 식물상 연구에 끼친 업적은 지대하다.



한라산 ②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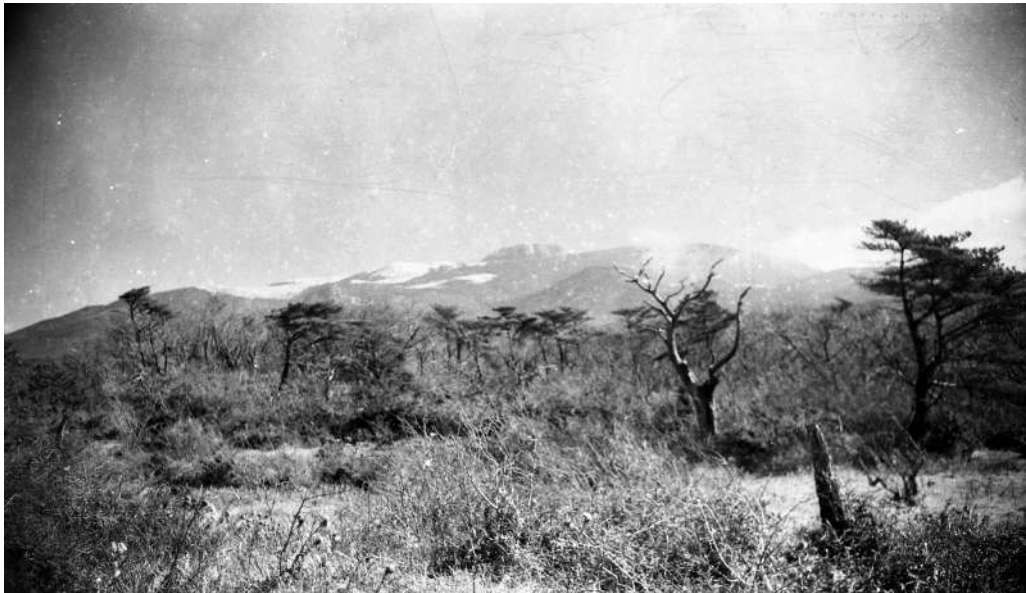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방면에서 바라본 한라산이다.

한라산은 1966년 10월 12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 182호)으로 지정된데 이어 1970년 3월 24일엔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가운데 일곱 번째로 지정됐다. 2020년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이 된다. 2002년 12월 16일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2007년엔 마침내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른다. 그해 7월 2일 제주도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이라는 타이틀로 유네스코에 의해 국내 첫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자연유산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164.40km²)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22.36km²), 성산일출봉 응회환(1.68km²) 3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제주도 화산지형의 빼어난 자연경관, 지질학적 중요성, 독특하고 풍부한 생태계가 세계인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한라산은 오늘날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자원이자 생태계의 보고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라산 ③ 1970년대

서귀포시 하원목장 일대에서 바라본 한라산 모습이다. 정상부 왼쪽 부드러운 능선이 이어진 바로 아래 살짝 솟은 오름이 볼레오름이다. 볼레오름(佛來山·표고 1374.2m)은 서귀포시 하원동에 소재하고 있다. 영실휴게소 서북쪽에 있는 오름으로 남사면 중턱에 고찰인 존자암지가 있다.



한라산 ④ 1970년대
남쪽에서 바라본 한라산.



한라산 ㉔ 1970년대
시오름에서 바라본 한라산.



한라산 ㉔ 1970년대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휴게소 동쪽 5·16도로변에 위치한 물오름에서 바라본 한라산 모습이다. 사진 오른쪽으로 보이는 오름은 성판악이다.



한라산 ㉞ 1970년대

한라산 북쪽 사면 산천단 방향에서 바라본 개미등 정상부와 한라산 모습이다. 당시 이 일대는 목장지대로 너른 개활지였다.

한라산 탐방로

한라산 등반기록은 언제부터 나타날까. 최초의 한라산 산행기라고 할 수 있는 문헌은 16세기 임제林梯(1549-1587)의 『남명소승南冥小乘』이다. 물론 일부 문헌에는 이에 앞서 한라산 등반 기록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올랐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남명소승』은 시기와 등정 코스 등이 비교적 자세히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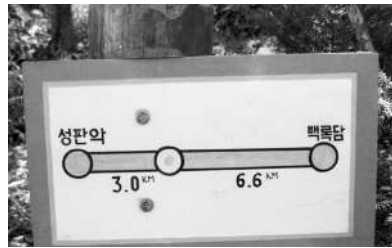
임제는 제주목사였던 부친 임진林晉을 찾아왔다가 1578년 음력 2월 중순 제주목을 출발하여 한라산 산행에 나선다. 임제는 도근천(무수천) 상류를 거쳐 영실 존자암에 며칠 머물렀다 백록담에 올랐다. 그가 등정한 코스는 영실 입구에서 남쪽 능선을 따라 선작지왓을 거쳐 정상에 이르는 코스다. 하산할 때는 두타사로 내렸다고 한다. 이후 존자암 코스는 1601년 김상헌 어사가, 1609년엔 김치 판관이, 1680년에 이증 어사가 이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현재의 방선문 동쪽에 위치한 죽성마을에서 백록담 북벽을 통해 정상에 이르는 코스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이는 현재의 관음사 코스와 비슷하다.

부종휴 선생이 맨 처음 한라산을 갔던 때는 13세 때다. 누님을 따라 성널폭포에 가기 위해 구좌읍 세화리를 출발하여 송당~교래리를 거쳐 성널폭포에 갔다. 부종휴는 1964년 『한라산과 등산안내 -등산코스 개척을 중심으로-』를 제주도지 제12호에 발표하는 등 등반로 개척 등에 관심이 컸다.



한라산 탐방로 안내도 ① 1970년대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코스 안내도다. 갈림길에서 구 등산로 방향은 방선문으로 향하는 길을 표시했다.



한라산 탐방로 안내도 ② 1970년대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코스 안내도다. 성판악에서 중간 지점 속밭까지가 3km, 백록담 정상부까지는 6.6km를 나타냈다.



한라산 탐방로 안내도 ③ 1970년대

한라산 천왕사 입구 근처에 세워져 있던 코스 안내도다.



한라산 탐방로 안내도 ④ 1970년대

한라산 탐방로 안내도 ③ 부분을 확대했다.

현재 한라산 탐방로는 6개 코스가 개설돼 있다. 어리목 코스와 영실 코스, 성판악 코스, 관음사 코스, 돈내코 코스, 어승생악 자연학습 탐방로를 포함 총 길이는 42.2km에 이른다. 한라산 정상 등정이 가능한 성판악 코스가 등반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어리목 코스와 영실 코스로도 탐방객들이 자주 이용한다.

어리목 코스는 어리목에서 서북벽 정상까지 6km, 영실은 남벽 정상까지 이르는 거리가 6.5km 코스다. 성판악 코스는 정상부 동능까지 9.6km, 관음사 코스는 정상부 동능까지 8.7km이고, 돈내코 코스가 10.1km로 가장 길다. 돈내코 코스는 15년간의 자연 휴식년제를 끝내고 2009년 12월 4일부터 일반인들에게 재개방됐다. 서귀포시 돈내코에서 평귀 대피소~남벽 분기점에 이르고, 이곳에서 윗세오름 대피소까지 연결된다. 어승생악 자연학습 탐방로는 어리목 광장에서 어승생 정상까지 1.3km 이어지는 코스다.

한라산 탐방로 가운데 정상까지 탐방이 가능한 코스는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 2곳이다. 2003년부터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로만 백록담 등반을 개방하고 있다.

1986년 5월에는 남벽 탐방로가 개설된다. 탐방객이 몰리면서 어리목과 영실 코스의 윗세오름에서 서북벽을 거쳐 정상에 이르는 구간을 폐쇄하고 대신 남벽 탐방로를 새로이 개설한 것이다. 한라산 남벽 탐방로는 백록담 바로 밑 해발 1600m 남벽 분기점에서 동릉 정상까지 이어지는 800m 구간이다. 이후 탐방객이 늘면서 8년 만에 일부가 붕괴되는 일이 발생하자 1994년 6월 이후 25년째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한라산 탐방로 ① 1970년대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 해발 1300m 고지를 나타낸 표지석이다. 주변은 신갈나무 숲을 이루고 있고 구상나무가 자라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정상 탐방로 다변화로 탐방객 분산 등을 위해 백록담 남북 탐방로 재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낙석 우려에다 산악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유보된 상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20년부터 한라산 전 탐방로에 대한 사전예약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한라산 탐방객은 1974년 2만3466명에서 1981년 10만6350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어 1994년 50만 명(50만1240명)을 넘어선 뒤 2010년에는 114만1632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2015년에는 125만573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0년부터 2017년(100만1437명)년까지 8년 연속 100만 명 선을 유지하다 2018년에 89만1817명으로 주춤했다. 지난해 코스별 탐방객 수는 어리목 23만6480명, 영실 25만6627명, 성관악 31만8310명, 관음사 7만5207명, 돈내코 5193명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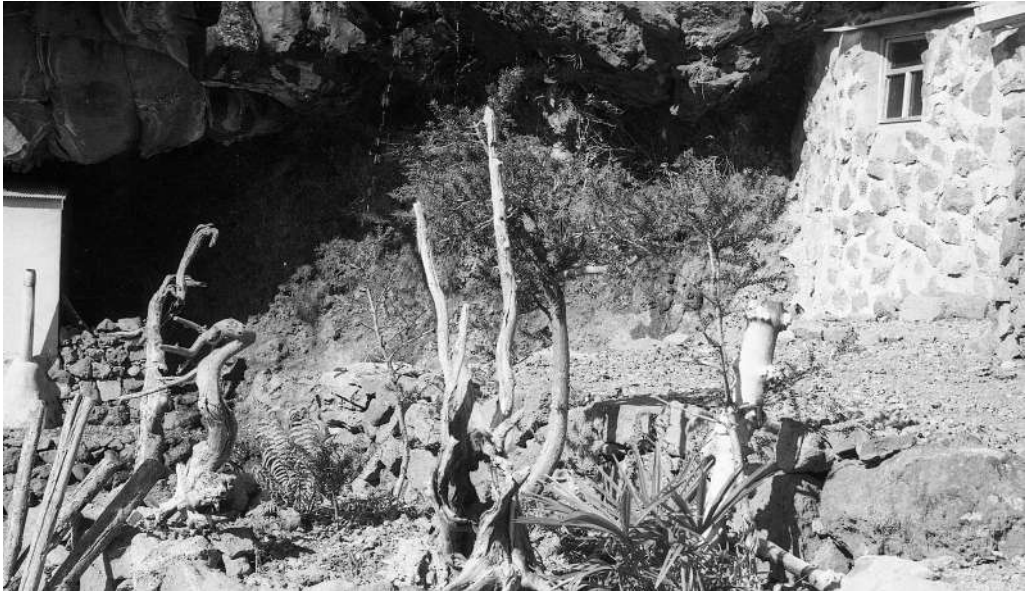
한라산 탐방로 ② 1970년대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의 옛 모습이다. 돌계단으로 조성해 놓았다.



한라산 탐방로 ㉓ 1970년대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의 옛 모습이다. 만세동산 일대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 대피소 ① 1970년대

한라산 돈내코 탐방로 평지계 대피소 모습이다. 돈내코 탐방로는 1973년 5월 서귀포 산악회에 의해 처음 조성되기 시작했다.



한라산 대피소 ② 1970년대

사진 오른쪽으로 한라산 성판악 코스에 있는 진달래밭 대피소 모습이 보인다. 이 사진은 한라산 동능 방향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 대피소 ③ 1970년대

고사한 구상나무 뒤로 한라산 성판악 코스 진달래밭 대피소 모습이 보인다. 이 사진은 진달래밭 대피소를 남쪽 방향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 설치 논쟁

한라산은 지난 40여 년 간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탐방로를 통해 힘들게 산을 오르는 대신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탐방객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자는 그럴듯한 논리가 있었다.

그래서 한때 한라산 백록담에 호텔을 짓고, 사라오름에는 부대건물과 휴게소 등을, 오백나한에는 유기장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백록담 등 명소에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구상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67년이다. 당시 제주도는 문교부에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문교부는 같은 해 4월 21일자로 불가 통보를 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을 원지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에도 케이블카 설치 시도는 계속하여 이어졌다. 1968년 7월에는 제주도가 민간자본을 유치 케이블카 시설 구상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업체에서는 성판악을 기점으로 사라악~왕관릉~백록담~오백나한에 이르는 10.6km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에선 같은 해 성판악을 기점으로 사라악~왕관릉~백록담~오백나한에 이르는 9.02 km에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교통부에 제출하여 조건부 허가를 받기도 했다. 1973년엔 청와대 관광개발단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연구 용역을 통해 영실에서 시작되는 총 연장 1.8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제시하기도 했다.(『제주70년 발전실록』)

이어 1975년과 1977년, 1982년, 1987년, 1989년, 1994년, 1997년, 1998년, 2000년 등 주기적으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제기됐다.

케이블카 설치 시도가 계속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12월 한라산케이블카설치 반대 제주도민 연대를 결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결국 제주도는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 TF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 6월 14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촉발된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영실 1970년대

한라산 영실 탐방로에서 볼 수 있는 영실계곡이다. 영실계곡의 깎아지른 절벽과 기이한 암석들이 절경을 자랑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하단부에는 몇 그루의 말라 죽은 구상나무가 서있다.

어리목 탐방로

어리목은 어승생오름 남쪽에 위치한 길목으로 한라산 탐방시 어리목 코스의 길목이다. 어리목 광장에서 출발하여 어리목 계곡을 건너 사제비동산을 거쳐 윗세오름까지가 4.7km이고, 서북벽 정상까지 총 6km에 이르는 코스다. 지금은 어리목 코스로 백록담 정상 탐방을 금지하고 있다. 어리목광장에서 어승생악 탐방이 가능하다.

어리목은 ‘어리+목’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리’는 18세기 중반의 『증보탐라지』의 ‘빙담氷潭’(어름소)의 표기를 고려할 때 ‘어름’의 변음으로 보인다. ‘목’은 ‘통로 가운데 다른 곳으로 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뜻하는 고유어이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어리목 코스는 1973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1100도로가 개통되자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영실 코스와 함께 최고의 코스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탐방객이 몰리면서 혼잡이 심해지고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1986년에 윗세오름에서 서북벽 정상에 이르는 코스는 폐쇄된다.

정상에 이르는 서북벽 코스는 당시 한라산을 자주 다녔던 산악인들에 의해 개척됐다고 전해진다. 이 과정에 부종휴·김종철 등이 징과 망치를 이용하여 서북벽 조면암 바위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흙을 파서 계단을 만들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한다.



어리목 ① 1970년대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 입구인 어리목 광장에 있었다. 제주경찰서 어리목산악초소 간판 글씨가 뚜렷하다. 현재는 이곳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들어섰다.



어리목 ㉔ 1970년대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 일대 도수로 공사 장면이다. 1100도로 포장공사가 1969년 시작 1973년 12월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사진은 1970년대 초반 무렵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리목 ③ 1970년대

한라산 어리목 진입도로 공사 장면이다. 1100도로 포장공사가 1969년 시작 1973년 12월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사진은 1970년대 초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1100도로 개설로 어리목 코스를 이용한 탐방객이 늘어나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어리목 코스 탐방객은 1974년 9577명에서 1978년에는 5만3119명(전체 8만5325명)으로, 1983년에는 12만6939명(전체 17만7470명)으로 급증했다. 2015년에는 40만9712명으로 최대치를 보였다. 사람들이 어리목과 영실 코스로 몰려들면서 한때 휴일에는 서북벽 코스를 이용할 경우 시차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어리목 ④ 1970년대

제주경찰서 어리목산악초소 전경이다. 뒤에 보이는 오름은 어승생악이다.



어리목 ㉔ 1970년대

어리목 광장에 관광전세버스 여러 대가 줄 서 있다. 1970년대 어리목 탐방로는 한라산 탐방코스 가운데 가장 많은 동반객이 몰렸다.



어리목 ㉔ 1970년대

어리목 광장이 너른 개활지처럼 펼쳐져 있다. 탐방객들이 모여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어리목광장에서는 산악행사를 비롯한 많은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눈꽃축제 장소로도 이용됐다.



어리목 ㉞ 1970년대

어리목 광장에서 한라산 등정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의 사람들은 어리목 탐방로 도수로를 따라 걸음을 옮기고 있다. 일부는 고등학생인 듯 교련복에 배낭을 메고 등반에 나선 모습도 보인다.



어리목 ㉔ 1970년대

어리목 광장에 있었던 제주경찰서 어리목산악초소의 수도가 풍경이다. 탐방객들이 모여앉아 그릇을 씻는 등 취사 준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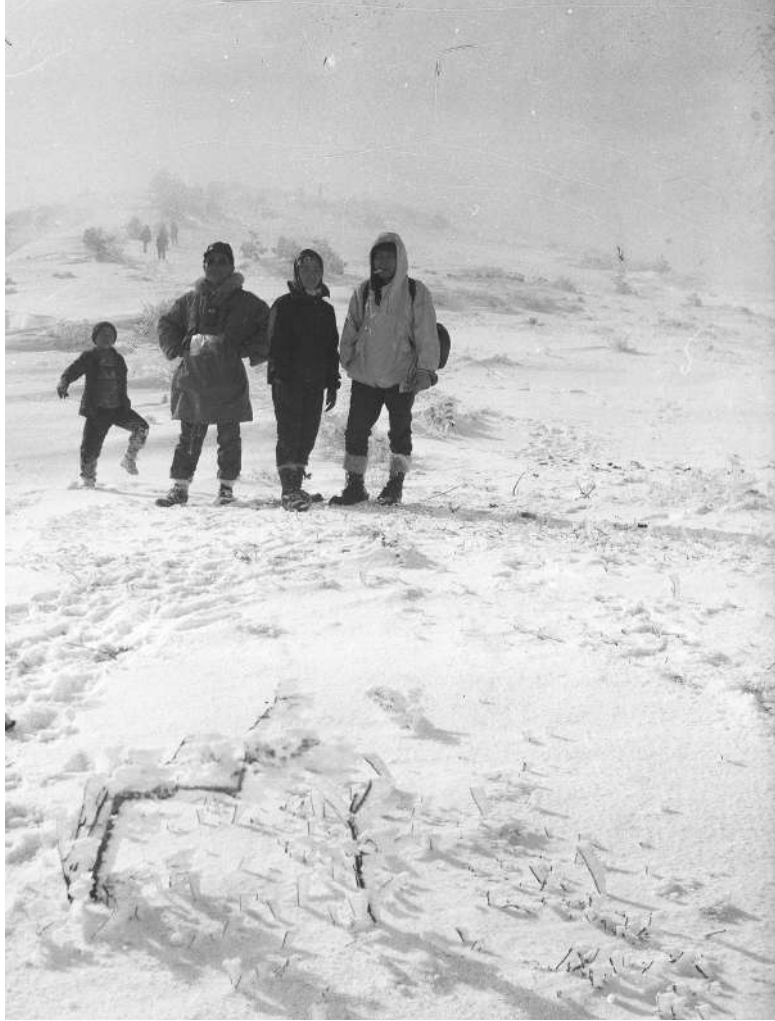
어리목 © 1970년대

어리목 계곡에서 탐방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어리목 ⑩ 1970년대

어리목 계곡 흘러내리는 계곡물에서 휴식중인 탐방객들.



겨울 등반 1964년

한라산 겨울 등반 모습이다. 맨 뒤에 있는 소년은 부종휴 선생의 장남 명제씨다. 당시 나이 12세로 부친을 따라 한라산 등정에 나섰다.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속 사람들은 미국 문화공보부 직원들이다.

영실 탐방로

영실靈室은 한라산 탐방로 중 하나인 영실 코스가 시작되는 곳이다.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동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뒷세오름을 거쳐 남벽분기점까지 갈 수 있다. 문헌에는 영곡靈谷 또는 영실靈室로도 표현했다.

영실은 예부터 뛰어난 경관으로 유명했다. 영실계곡의 기이한 바위들은 ‘영실기암靈室奇巖’이라 해서 제주의 가장 뛰어난 경승 10곳을 지칭하는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다. 영실은 백록담과 물장오리, 아흔아홉골과 함께 성소로 신성시하던 곳이다.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하늘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 석가여래가 설법하던 영산靈山과 비슷하다하여 영실靈室이라 불리게 됐다고 한다.

이곳은 2011년에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이란 이름으로 명승 제84호로 지정됐다. 이곳 1200여 개에 이르는 돌기둥의 빙 둘러쳐져 있는 모습이 마치 병풍을 쳐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병풍바위, 이 바위들이 설법을 경청하는 불제자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오백나한이라 불렀다. 또는 오백장군이라 하기도 한다. 문헌에는 이를 통틀어 천불봉千佛峰이라 했다. 그만큼 영실계곡의 바위들은 천태만상의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영실 소나무 숲은 제주 해안에 주로 분포하는 곰솔과 달리 대부분 적송으로 이뤄져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영실 ① 1970년대

한라산 영실에서 바라본 제주 서남부 풍경이다. 멀리 산방산과 송악산 및 국토 최남단 섬 마라도까지 희미하게 보인다.



영실 ② 1970년대

한라산 탐방로 영실계곡 모습이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던가. 골짜기기 뺏어내린 내린 가운데 '영실기암'이라 불리는 기이한 바위들이 즐비하게 서 있다.



영실 ㉓ 1970년대

예전 한라산 영실 탐방로 입구 모습이다. 영실 탐방로는 1970년대 1100도로가 개설되자 탐방객이 크게 늘었다. 집계를 시작한 1975년 6690명에서 1976년에는 2만860명을 기록하더니 1984년에는 5만 명(5만3204명)을 넘어섰다. 2015년에는 31만1099명으로 영실 코스 탐방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한라산 횡단도로

한라산은 일제 강점기에 수난을 겪는다. 나무 벌채를 비롯 각종 임산자원이 수탈을 당한다. 일제는 진작부터 한라산의 풍부한 임산자원에 눈독을 들였다. 1937년부터 조선총독부 주도로 「제주도개발사업계획」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라산 중허리를 빙 둘러가며 도로를 개설한다. 이른바 ‘하치마키’[鉢券]라 불리는 도로다. 일제는 이 도로를 ‘환상선環狀線’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 일대를 한 바퀴 순환하는 도로였다. 한라산과 중산간 일대의 산림자원을 산지항까지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총 연장 110km, 너비 10m 정도로 만들어졌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한라산 중복中腹도로’라고도 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 위기에 몰리면서 제주도는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결7호 작전의 무대가 된다. 해안가에서부터 한라산 고지대까지 지하갱도가 구축되는 등 섬 전체가 거대한 군사기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제주도개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던 환상선 개설도 이러한 진지 구축과 맞물려 군사용 도로로 이용된다. 당시 일본군이 건설한 산악도로는 해발 900m 한라산 국유림 지대인 어승생 수원과 어승생악을 중심으로 한라산록을 머리띠를 두르듯이 만들었다. 머리띠를 두른 모양이라는 뜻에서 ‘하치마키’라 불리게 된 이유다. 한라산 서쪽으로는 지금의 한밭교~영실을 거쳐 노루봉 뒤 영실 분기점인 법정악에 이어졌고, 동쪽으로는 수악교 상류와 성판악에서 물장울, 관음사, 천왕사로 이어졌다.

이보다 앞서 일제는 식민지 정책에 따라 도민들을 동원 1914년부터 동서로 일주하는 신작로新作路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의 신작로는 3년 공사 끝에 1917년 개설됐다. 이때부터 제주도에 현대적 의미의 도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현재 한라산을 횡단하는 5·16도로(제1횡단도로)와 1100도로(제2횡단도로)는 이전부터 이용되던 노선을 광복 후에 보수, 개설하고 1960년대에 포장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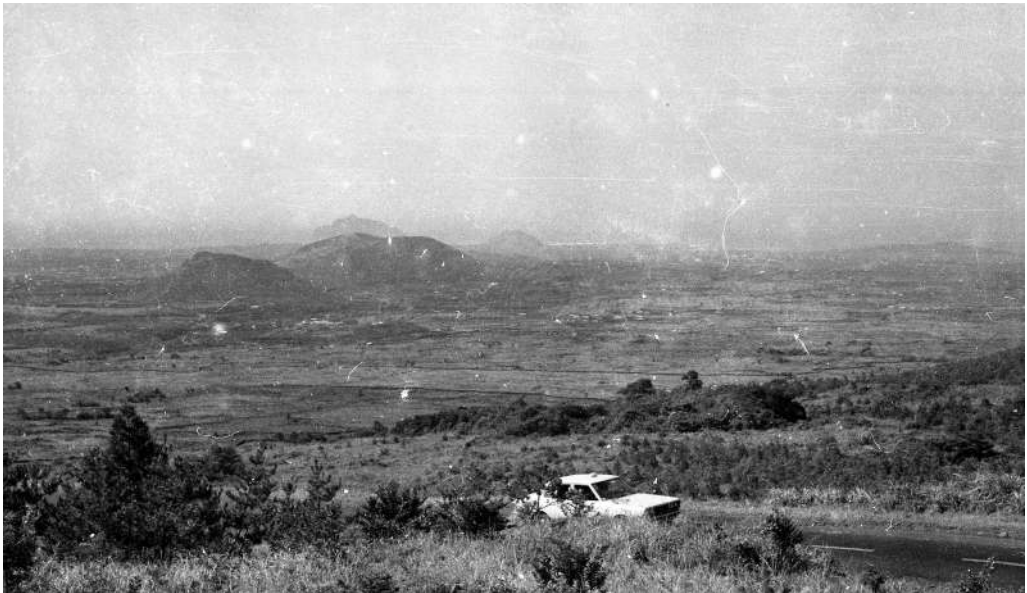
1100도로 ① 1970년대

한라산 횡단도로인 1100도로 포장공사가 진행중인 모습이다. 사진 오른쪽 능선이 이어지는 오름이 어승생악이다. 가운데 정면으로는 아흔아홉골이 펼쳐져 있다. 아흔아홉골은 빼어난 경승지이자 예부터 물장오리, 영실 등과 함께 신성시했던 공간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1100도로 주변은 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풀밭을 이루고 있다.

5·16도로

한라산을 횡단하는 5·16도로(제1횡단도로)는 제주시 이도1동 남문로 사거리에서 서귀포시 비석거리 교차로까지를 연결하는 지방도(1131호선)로다. 제주시 산천단과 삼의약, 성판악 해발 750m를 지나 수악, 토평을 거친다.

5·16도로는 1931년 경에 제주~서귀간 44km의 임도를 개설한 것이 시초다. 이에 앞서 1911년에 발행한 『남선의 보궐 제주도』를 보면 제주성내와 서귀포까지 가는 통로는 한라산 동쪽 7부 능선을 넘었다는 기록과 함께 이 길의 거리가 약 11리쯤 된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1924년 발행한 『미개의 보고 제주도』에도 한라산 중턱을 횡단해서 서귀포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 도로는 인마人馬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일제는 이 도로를 한라산의 임산자원을 수탈해서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도 공사를 벌였다. 임도 공사는 1935년에 완공됐다.



5·16도로 1970년대

택시가 구불구불 이어진 5·16도로를 오르고 있다. 이 일대는 급커브가 굽이굽이 이어져 속칭 ‘아리랑고개’로 불린다. 사진 중간 왼쪽부터 오름이 영천약과 칩오름과 섯섬, 제지기오름이 차례로 이어진 모습이 보인다.

이어 광복 후인 1957년 1차 도로복구 공사가, 1958년 2차 공사, 1959년 3차 공사가 진행된데 이어 1961년까지 공사가 계속됐다. 하지만 도로가 유실되는 등 제기능을 못하게 되자 5·16후 도로개수와 확장 및 포장공사가 이뤄진다. 기공식은 1962년 3월 24일 제주도청(현 제주시청 자리) 앞 공설운동장에서 있었다. 이후 1966년 6월 9일까지 총 연장 40.43km를 4m 너비로 포장을 완료하기에 이른다. 총 공사비는 1억2320만3000원이 소요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제주에서 서귀포로 갈 때 무려 5시간이 걸렸으나 이 도로의 개통으로 약 1시간 30분으로 줄었다. 5·16 五·一六도로라는 이름은 5·16 후 처음 포장공사를 시작한 도로라는 의미에서 명명됐다.



성판악 인근 5·16도로 준공 기념탑 1970년대

한라산 탐방로 인근 성판악 입구에 5·16도로 준공을 기념하여 세웠던 탑이다. 높이 3.5m 크기로 1967년 4월 20일 준공 기념 제막식이 열렸다. 한문으로 ‘五一六道路’ 글씨가 선명하다. 지금은 철거됐다. 산천단 도로변에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 휘호로 음각한 ‘五一六道路’ 기념비가 세워졌다.

1100도로

1100도로(제2횡단도로)는 제주시 노형로터리에서 한라산 서쪽 1100고지를 지나 서귀포시 중문동 일주도로까지 연결되는 35.10km의 지방도(1139호)로다. 1968년 7월 17일 도로개설공사를 시작으로 1969년 12월 17일 완료했다. 이어 도로포장 공사는 1969년 5월 25일에 착공하여 1973년 12월 13일 총 연장 37km를 완공했다. 도로 공사에는 총 5억6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100도로 역시 5·16도로와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이용되던 도로를 개보수하여 포장했다.

5년에 걸쳐 진행된 도로 건설에는 전국에서 검거된 폭력배가 국토건설단원이라는 이름 아래 투입되기도 한다. 1968년 6월 24일 제주출신 39명을 비롯 제1진 210명이 어승생담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데 이어 그해 6월 29, 30일 285명이 제주에 도착한 뒤 어승생 북쪽 산록도로변에서 야영생활을 하면서 도로건설에 동원됐다.

1100도로라는 이름은 한라산 해발 1100m 고지를 통과하는 도로라 하여 불리게 됐다. 또는 5·16도로 다음으로 건설된 한라산 횡단도로라고 해서 제2횡단도로라고 하기도 한다.

한때 이 도로는 유료로 이용되기도 했다. 1974년 6월부터 1982년 12월 30일까지 8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다 폐지했다. 어승생 저수지 앞에는 톨게이트가 설치됐다.

1100도로가 개설되면서 한라산 탐방객도 어리목 코스와 영실 코스 등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1100도로 ㉔ 1970년대

한라산 횡단도로인 1100도로 포장공사 모습이다. 사진 오른쪽에 우람한 산체를 보이는 오름이 어승생악이다. 왼쪽으로는 아흔아홉골이 이어져 있다. 1100도로 ㉓ 사진과 연결된 사진이다. 도로 개설공사 주변은 미끈한 초원을 이루고 있다.



1100도로 ③ 1970년대

1100도로 공사 당시 도로포장을 위해 오름 능선이 파헤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으로는 도로 포장을 위한 골재가 쌓여있다.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능선은 어승생약 사면이다. 부종휴 선생은 1100도로 공사현장을 담은 사진을 연속으로 여러장 남겼다.



1100도로 ④ 1970년대

1100도로 공사 당시 오름 능선이 파헤쳐져 절개지가 드러나 있다. 사진 1100도로 ③보다도 공사가 한참 진행됐다. 이 오름에서 채취한 암반들은 골재로 만들어져 도로포장공사에 이용됐다.



1100도로 ㉔ 1970년대

1100도로 공사 당시 오름 능선이 파헤쳐진 채 절개지가 드러나 있다. 오름 능선이 반쯤은 사라진 상태다.



1100도로 ㉔ 1970년대

1100도로 공사로 인해 파헤쳐진 오름이 자취를 감췄다. 오름이 있던 자리는 골재만 쌓여 있다.



1100도로 ㉞ 1970년대

1100도로 포장공사 당시 골재를 만드는 현장이다.



1100도로 ㉔ 1970년대

1100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서 골재를 만들고 있다.

오름

흔히 제주도를 오름의 왕국이라고 한다. 제주섬이 품고 있는 오름이 368개에 이르다보니 제주 사람들은 늘 오름과 함께 했다. 오름에서 나고 오름을 무대로 생활을 영위하다 오름으로 돌아 간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제주도의 자연경관 중에 가장 특색있는 지형이 오름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李衡祥은 저서 『남한박물南宦博物』(1704년·숙종 30년)에서 ‘한라산이 가운데 우뚝 솟아있고 여러 오름들이 별처럼 여기저기 별리어 있으니 온 섬을 들어 이름을 붙인다면 연일 위의 구슬의 형국이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책은 제주도 및 그 주변 도서의 자연·역사·산물·풍속·방어 등을 기록하고 있다.

오름의 어원은 무엇일까. 1601년 제주에 안무어사로 파견된 김상헌(1570~1652)의 『남사록南槎錄』에는 ‘방언으로 岳을 일컬어 오름(兀音)이라 하여 특이한 제주어의 하나(方言稱岳曰兀音)라 하고 있다. 현평효의 『제주방언사전』에도 오름의 표제어로 오름(orum)을 쓴다. 또한 악岳·봉嶂·산山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오창명은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2007)에서 ‘오름(山岳)의 본디 이름은 단순히 그 땅을 일컫는 이름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언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무형문화재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름은 오늘날 제주지역에만 남아있는 독특한 옛말 중 하나이다. 한자어 악岳이나 봉嶂, 또는 산山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고 했다.

화산지질학적으로 보면 오름은 하나의 소화산체다. 대부분 정상부에 움푹한 굽부리(분화구) 등을 갖고 있다. 분화구가 있으며 화산쇄설물로 구성되고 화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오름이라고 한다.

오름은 고도별로도 다른 식생 분포를 보인다. 오름과 한라산이 자리한 제주도는 화산지질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물론 자연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제주 오름들은 저마다 특색이 있다. 성산일출봉이나 송악산, 수월봉 등은 바닷속에서 분출한 수성화산체이고, 제주시의 물장울, 어승생악, 원당봉, 한림읍의 금악, 조천읍의 물찻오름, 남원읍의 사라오름, 물영아리, 동수악 정상부에 산정화구호가 있다. 오름의 여왕이라 불리는 다랑쉬오름처럼 빼어난 균제미가 있는가 하면 드러누운 용의 형상을 닮았다는 용눈이오름 등 제각각의 모습을 뽐낸다. 보는 각도에 따라 천千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제주 오름이다. 오름의 세계 최대 균락지로 알려진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에트나산 오름 균락의 수가 260여개로 알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는 그야말로 오름의 왕국이다.

오름은 역사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조선시대 제주의 방어체계는 3성, 9진, 25봉수, 38연대 체제로 구축됐다. 제주성·대정현성·정의현성 등 3성을 중심으로 아홉 개의 진과 25개의 봉수, 연대 38곳을 구축 위급상황에 대비했다. 25곳의 봉수는 대부분 오름 위에 축조돼 위급상황을 알리는 기지로 이용됐다.

일제강점기에 오름은 일본의 본토결전 사수를 위한 결7호 작전계획에 따라 수난을 당한다. 제주도내 100여 곳 오름이 일제가 파놓은 지하갱도로 신음하고 있다. 가마오름처럼 길이가 2km 이상 되는 거대한 지하갱도를 비롯 해안가부터 한라산 고지대에 위치한 오름까지 군사시설이 구축됐다. 일제 군사시설 구축에는 제주도민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제주4·3사건을 비롯 고비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이 된다.

오름에는 다양한 신화와 전설이 녹아있다. 제주섬을 만들었다는 설문대할망의 전설을 보자. 설문대할망이 명주 속옷 한 벌을 만들어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준다는 약조를 했다. 물까지 다리를 놓아준다는 말에 사람들은 섬 안의 모든 명주를 모았다. 설문대할망이 육지까지 다리를 놓기 위해 치마폭으로 흙을 나르며 바다를 메워나갔는데 이때 조금씩 떨어진 흙덩이들이 오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설은 이어진다. 속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명주는 100동이였다. 그렇지만 섬 안의 명주를 다 합해도 99동밖에 모을 수 없었다. 결국 설문대할망의 작업은 중단되고 제주는 섬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오름에는 물과 이어지기를 바랐던 제주 사람들의 기대와 이를 이루지 못한 한이 쌓여있다.

구좌읍 송당리 당堂오름 처럼 오름은 신당의 원조가 되기도 한다. 제주 신의 내력이 담긴 ‘본풀이’에는 당오름의 금백조와 소로소천국이 부부의 연을 맺고 그 자식들이 제주 각처에 흩어져 살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오름과 관련된 신화와 전설을 통해 제주인의 기저에 자리한 의식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오늘날 오름은 제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겨찾는 명소로 떠올랐다. 한라산처럼 탐방객 증가로 인한 훼손을 우려할 정도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에는 송이(scoria) 채취로 몸살을 앓는다. 이후에는 대규모 관광개발이나 골프장 건설 등으로 훼손되거나 훼손위협에 처해있다. 또 대규모 송전탑 건설로 오름 경관이 훼손되는 사례도 있다. 부중휴 선생의 사진을 보면 한라산을 횡단하는 1100도로 건설 과정에서 오름 자락이 잘려나가기도 했다. 희미한 사진 기록을 통해 제주와 제주의 자연을 사랑했던 부중휴 선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어승생악

한라산 어리목 광장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뒤에 자리하고 있다. 어승생악(御乘生岳) (표고 1169m)은 제주도 오름 가운데 군산 다음으로 큰 산체를 갖고 있다. 어승생악이라는 이름은 ‘오름 아래서 임금이 타는 말이 났다’고 하는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오름 정상부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구축해놓은 토치카 시설이 있고, 중턱에는 대규모 지하 갱도가 만들어졌다. 어승생악 일대는 태평양전쟁 시기 제주에 진주했던 일본군 전쟁지휘부인 제58군사령부가 주둔했던 어두운 역사가 있다. 이곳의 일제 군사시설은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307호로 등록돼 있다.



어승생악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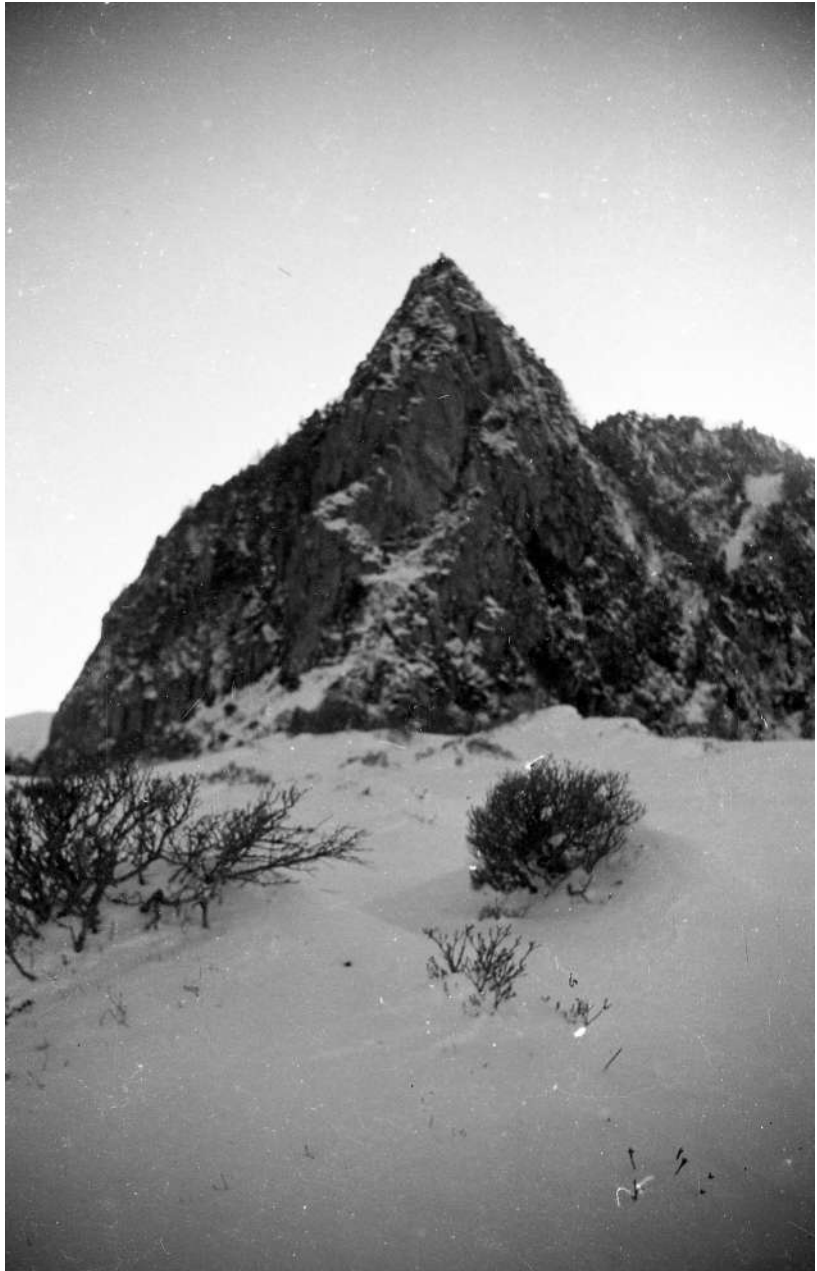
어리목 탐방로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오름이다. 너른 개활지에 키 작은 나무들이 식재돼 있다.

삼각봉

삼각봉三角峰(표고 1695.5m)은 한라산 정상 북쪽에 있다. 관음사 코스 탐방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장구목과 연결돼 있다. 위에서 보면 장구목의 연장으로 보이지만 북쪽에서 보면 삼각형을 이룬다. 때문에 문헌에는 삼각봉과 장구목 표기 등을 놓고 혼선을 빚기도 한다. 삼각봉 이름은 봉우리 모양이 삼각형 같다는데서 불리게 됐다고 한다. 혹은 봉우리 모양이 솔개나 제비머리처럼 뾰족하다고 해서 연두봉鸞頭峰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은상의 『탐라기행 한라산』(1937)에는 ‘삼각형으로 우뚝 뾰족한 연두봉鸞頭峰’이라고 하고 있다. 또 연두봉과 함께 대연두봉大鸞頭峰과 소연두봉小鸞頭峰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전부터 큰 봉우리와 작은 봉우리를 따로 불렀던 것이다.

부종휴 선생 장남 명제씨는 “아버님은 평소 삼각봉에 묻히길 원하셨을 만큼 이곳을 좋아했다”고 회상했다.



삼각봉 ① 1970년대

하얀 눈이 덮인 한라산 삼각봉이 위압스런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다. 부종휴 선생은 겨울 삼각봉과 주변 풍경을 여러 장의 앵글에 남겼다.



삼각봉 ㉔ 1970년대

겨울철 삼각봉을 클로즈업 했다. 전체적으로 봉우리 모양이 뾰족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 가까이서 보면 위압스런 모습이다.



삼각봉 ③ 1970년대

겨울철 한라산 등반에 나선 남녀 등반객이 삼각봉을 바라보며 서 있다. 관음사 코스 탐방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삼각봉은 이곳을 이용 등정에 나선 등반객들에게는 일종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



삼각봉 ④ 1970년대

삼각봉(오른쪽)과 그 주변 일대를 담았다.



삼각봉 ㉔ 1970년대

삼각봉과 장구목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담았다.



삼각봉 ㉔ 1970년대

겨울 삼각봉 모습이다. 삼각봉과 장구목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담았다.



삼각봉 ㉞ 1970년대

삼각봉 겨울산행 모습이다. 일단의 사람들이 눈밭을 헤치고 하산하고 있다. 삼각봉과 주변 일대가 온통 눈으로 덮여있다.

사라오름

산정화구호를 갖고 있는 오름 가운데 하나다. 남원읍 신례리(산2-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남원읍과 조천읍의 경계에 있다. 성판악 탐방코스변에 위치해 있다. 표고 1324.7m로 화구호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화구륜 둘레는 약 1.2km 정도로 물이 들어차면 잔잔한 호수가 장관을 이룬다. 한라산 정상 동쪽에서 내려다보면 제일 먼저 사라오름 산정화구호가 보인다.



사라오름 ① 1970년대

앞에 보이는 오름이 사라오름이다. 정상부 화구호가 보인다. 뒤에 보이는 오름은 성널오름이다.

예부터 사라오름 일대는 명당으로 꼽혔다. 제주도 6대 음택혈(陰宅穴)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곳이다. 현재 사라오름 분화구는 성판악 탐방로 분기점에서부터 데크시설을 해놓아 악천후에도 탐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라오름 ② 1970년대

사진 오른쪽에 사라오름이 보인다. 움푹 패인 부분이 산정화구호다. 그 뒤에는 성널오름이 솟아있다. 성판악 휴게소 너머 등반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성널오름(城板岳·표고 1215.2m)은 한라산 백록담 동쪽 산사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오름이다. 성널계곡은 크고 깊어 천연림을 이루는데다 계곡에 흐르는 물은 오래전부터 물맛이기로 유명했다. 부종휴 선생은 13세 때 이곳 성널폭포로 누님을 따라 물맛이를 갔다. 이때가 부종휴 선생이 처음 한라산을 오른 때다.



사라오름 ㉓ 1970년대

사라오름 산정화구호에 물이 들어차 있다. 산정호수 가장자리에 소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한라산에서 방목은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방목은 대부분 여름 한철에 이뤄지지만 백록담까지도 소들이 드나들었다.



사라오름 ④ 1970년대

사라오름 산정화구호에 물이 들어차 있다. 산정호수 내에 여러 마리의 소가 보인다. 사라오름 ③사진과 연속으로 촬영했다.

물장오리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개벽 전설의 여신 설문대할망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오름이다. 제주시 봉개동(산 78-2)에 위치한 표고 937.2m 오름으로 예부터 제주도민들이 한라산 영실 오백나한과 더불어 3대성산三대聖山으로 신성시 했다. 오름에 오르기 며칠 전부터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해야 했다고 한다. 울창한 원시림으로 둘러싸인 정상부에는 둘레 1.5km 정도 되는 산정화구호가 있다. 원형에 가까운 산정 호수는 수심이 헤아릴 수 없이 깊다하여 ‘창(밑) 터진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설문대할망이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전하는 산정 호수다. 가뭄이 극심할 때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물장오리 ① 1970년대

물장오리 오름 산정화구호 모습이다. 화구호 내부에 물이 들어차 있다.



물장오리 ② 1970년대

물이 들어찬 물장오리 산정화구호 내부를 조사하는 모습이다.

아흔아홉골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크고 작은 골짜기가 아흔아홉 개나 된다고 하여 불리게 됐다. 한자로는 구구곡九九谷이라고 한다. 골짜기들은 제주시 공원묘지 남쪽에 집중돼 있다. 아흔아홉골에는 전설이 얽혀 있다. 원래 한라산에는 100개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들이 괴롭히자, 중국의 한 스님이 맹수들을 한 군데 몰아넣고 골짜기 하나를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그후로 제주도에는 맹수가 없어지고 큰 인물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 아흔아홉골은 영실 오백나한과 함께 한라산의 비경으로 꼽히는 곳이다.



아흔아홉골 ① 1970년대

아흔아홉골 앞쪽으로는 조림지다. 너른 개활지에 삼나무 등 나무가 식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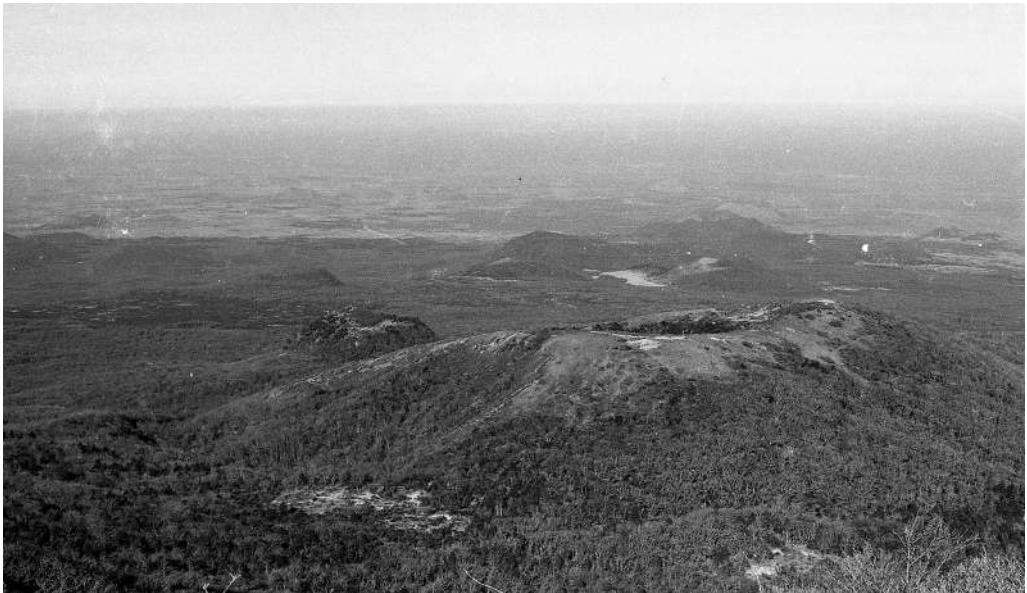
아흔아홉골 ㉔ 1970년대

현재 제주시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전의 아흔아홉골 일대 모습이다. 겨울철 세 사람이 등정에 나선 모습이 보인다.

흙붉은오름

제주시 아라동 산6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아라동과 조천읍 교래리의 경계에 있다. 멀리서도 붉은 흙의 능선이 보일만큼 붉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서 한자로는 토적악(土赤岳)이라 표현한다. 표고는 1380.7m로 백록담을 중심으로 동부 산록상에서는 가장 높고 정상에 가까운 오름이다. 동쪽으로 벌어진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다.

부종휴 선생은 1960년대 흙붉은오름 등성마루에서 흰진달래 자생목을 처음 발견했다. 그때까지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미기록종이었다. 당시까지만해도 한라산에는 흰진달래가 자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종휴 선생은 발견 순간 “이건 미기록종이다!”라며 흥분해 했다고 한다.



흑붉은오름 1970년대

앞에 보이는 오름이 흑붉은오름이다. 정상부 능선이 표면을 드러내고 있다. 흑붉은오름 바로 왼쪽으로는 돌오름이 자리하고 있다.

새별오름

이 사진은 새별오름과 그 앞쪽으로 도로 포장공사가 진행되는 장면을 담았다. 포장공사가 진행되는 도로는 평화로다. 평화로변에서 보이는 새별오름은 전형적인 풀밭오름으로 제주시가 주최하는 들불축제가 매년 열리는 곳이다. 표고 519.3m인 새별오름은 한자로는 효성악(曉星岳)·진성악(震星岳)·신성악(新星岳) 등으로 표기했다. ‘저녁 하늘에 셋별과 같이 외롭게 서있다’하여 붙여졌다.

평화로는 제주시 용담동에서 대정읍 보성리에 이르는 연장 39km의 지방도로다. 이 도로는 중산간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한 1967년부터 서부산업도로로 불리다가 2002년부터는 서부관광도로로, 2006년 6월부터는 평화로(平和路)로 명칭이 바뀌었다. 도로 포장공사는 1981년부터 시작돼 1985년 완공까지 5년간 진행됐다. 이어 안덕면 서광리에서 대정읍 안성리까지 7km 도로 포장공사는 착공 5년만인 2005년 5월 완공됐다. 평화로는 애초 제주목과 정의현을 연결하던 도로를 개설하여 확포장한 도로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는 군용도로로 이용할 목적으로 개보수하여 군수물자 수송과 오름 등지의 진지구축을 위한 통행로 역할을 했다.



새별오름 1970년대

사진 왼쪽에 새별오름이 부드러운 능선으로 자리하고 있다. 새별오름 앞쪽으로 길게 도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이 도로는 평화로로 불리지만, 이전에는 서부산업도로, 서부관광도로라는 이름 아래 제주시와 대정을 연결했다.

거미오름

동검은이, 동검은오름, 동거문악(東巨文岳(표고 340m)이라 부른다. 구좌읍 종달리(산70번지)에 있으며 보기드문 복합형 화산체를 보여주는 오름이다.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서검은오름과 대비하여 동검은오름, 동검은이라 한다. 또 오름 사면이 둥그렇고 층층이로 언덕진데다 산상에서 사방으로 등성이가 뻗어나간 모습이 마치 거미집과 비슷하다 하여 거미오름이라 불려왔다고 한다.

이 오름은 깔때기 모양의 원형 분화구가 둘 있는데다 삼태기 모양의 말굽형 화구를 갖고 있다. 말굽형 화구 안에 잡목들이 자라는 것 외에는 대부분 풀밭을 이루고 있다.



거미오름 1970년대

거미오름이 매끈한 풀밭을 이루고 있다. 거미오름은 가운데 보이는 봉우리를 중심으로 원형 분화구와 말굽형 분화구가 있는 복합형 화산체를 보여준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훤 사진집

漢山

그리고

濟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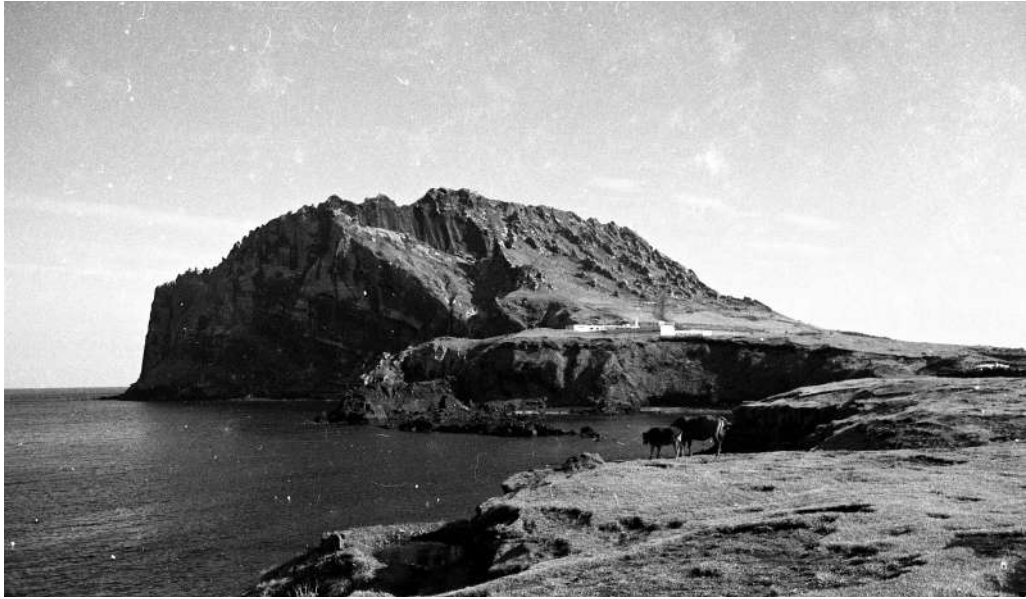
제 3 장

성산일출봉과 섬지코지

화산지질로 본 일출봉과 섭지코지

성산일출봉은 바닷속에서 분출한 수성화산체로서 응회구(tuff cone)라 한다. 현재는 9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마치 성곽과 같은 분화구 형태만이 남아있다. 화산체는 북쪽의 일부가 육지와 연결되어 있을 뿐, 대부분 해파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깎아지른 해안 절벽을 이루고 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제420호)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일출봉의 정상은 분화구로 되어 있다. 분화구의 외륜은 해파의 침식에 의해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고, 99개의 뾰족한 바위들은 마치 성곽을 두른 것처럼 그 위용을 자랑한다. 바다에서 솟은 일출봉의 정상은 북동쪽 외륜으로 해발 182m에 이른다. 분화구 바닥의 해발고도가 98m이므로 일출봉 분화구는 깊이가 84m나 된다. 분화구 바닥에는 수림이 거의 없고 억새와 띠의 화본과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화구벽에는 풍란이 자생하고 있다.



성산일출봉 전경 1970년대

일출봉 북쪽 해안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 경관이다. 중간쯤에 보이는 하얀 건물이 일출봉호텔이다. 해안가 초원 위에 소 두 마리가 바다를 바라보며 한가로이 서있다.

일출봉의 북동쪽 기슭에는 두 개의 자연포구가 형성되어 있다. 우뚝개는 일출봉 응회암의 부스러기로 이루어진 검은 모래 사장이며 오정개에는 붉은 송이층이 노출되어 있다.

성산일출봉은 원래 섬이었다. 해안선을 따라서 풍성퇴적층의 사구가 형성됨에 따라 성산일출봉과 육지를 잇는 육계사주가 만들어져 육지와 이어졌다. 이 육계사주를 따라 성산일출봉 진입도로가 개설돼 있다. 신양리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신생대 제4기 해양퇴적층으로 알려져 있다. 신양리층의 조개를 이용하여 분석한 탄소동위원소 연대가 4460년 전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신양리층을 만든 성산일출봉 화산체의 형성시기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섬지코지의 지질은 반도 끝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붉은오름이 약 9만5000년 전에 육상 분화활동으로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오름은 분석구 형태를 띠며 아아용암류의 현무암을 분출했다. 현재는 바다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화산체의 대부분은 유실되



섬지코지 붉은오름 1970년대

섬지코지 남단에 있는 오름이다. 붉은색 스킨리아(scoria)로 되어있어 붉은오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현재 붉은 오름 주변은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전망대 등이 설치돼 있다.

어 버렸고 분화구 중심 부분인 암경만 남아있다. 이 암경을 선돌이라고 부른다. 분석구에서 유출된 용암류는 하부의 온평리 현무암을 덮으며 해안가에서 섬 형태로 존재했다. 그후 오랜 시간이 지난 약 5000년 전에 인근 성산일출봉이 수중분화에 의해 폭발적으로 분화한다. 이 분화 산물로 만들어진 신양리층의 화산쇄설성 퇴적층이 섬지코지 동부 해안에서 관찰된다. 그후 현생 사구(砂丘)(sand dune)가 약 10여m 높이로 쌓여 섬지코지는 섬에서 육지와 이어지며 반도상 지형으로 남게 되었다.

붉은오름은 섬지코지 남단 해안선에 있는 분석구이다. 붉은색과 검은색의 스킨리아 단면을 관찰할 수 있다. 붉은색 스킨리아로 되어 있어 붉은오름이라고 부른다. 화산체 중심의 암경(岩頸)(volcanic neck)인 '선돌'은 바다 속에 우뚝 서 있다. 선돌 등 화산체의 내부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성산일출봉

제주 문인 이한우(1818~1881)는 제주 경승지를 대상으로 영주십경(瀛州十景)을 선정하였다. 영주십경 중 제일경(第一景)이 바로 ‘성산일출(城山日出)’이다. 성산(城山)을 일출봉(日出峰)으로 부르게 된 연유이다. 성산일출봉의 옛 이름은 ‘성산’이었다. 산 정상을 빙 둘러싼 암석이 마치 산성(山城)과 같다 하여 그리 부른 것이다. ‘성산’이라는 이름을 따라 이 마을의 이름 또한 ‘성산’이 된 것이다. 조선 중기 문장가 임제(1549~1587)는 ‘성산’을 ‘바다 가운데 꽃혀있는 푸른 연꽃’이라 노래한 바 있다. 푸른 목초로 뒤덮인 ‘성산’을 달리 ‘청산(靑山)’이라고도 불렀다. 그러한 성산을 임제는 ‘푸른 연꽃’이라 칭송한 것이다. 바다로 뻗은 성산일출봉 끝자락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다. 성산 사람들은 이 섬을 ‘새끼 청산’이라 부른다. ‘성산(城山)’을 ‘청산(靑山)’이라 불렀던 흔적이다. ‘새끼 청산’은 ‘푸른 연꽃’의 ‘작은 꽃봉오리’인 셈이다.

성산을 다녀간 조선의 선비들은 성산의 비경에 놀라 자신의 서책에 시(詩)를 남겼다. 그들의 시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목이 ‘신선이 노니는 곳’이라는 감탄이었다. 하지만 성산 사람들에게 성산일출봉은 ‘목은출’(鰐甘)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 열다섯 번을 오르내려야 했던 가차(假借) 없는 삶의 공간이었다.

성산일출봉은 무엇이었을까

성산일출봉은 제주도 가장 동쪽에 있는 해발 182m의 수성화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성산일출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꺄아 세워놓은 석벽(石壁)은 병풍처럼 둘러있다. 그 높이는 천여 길이다. 돌을 쪼아서 길을 만들어야 겨우 오를 수 있다. 그 꼭대기는 평평하고 넓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이 글은 성산일출봉의 험난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성산일출봉의 분화구는 매우 깊고 넓다. 그 넓이는 3만9325평이다. 지적도地籍圖상에는 5개의 지번地番으로 나뉘어 있다.

성산일출봉 자락에는 성산마을(성산읍)이 있다. 성산일출봉의 분화구는 이 마을 사람들 공동 소유의 ‘새왓’[茅畑]이었다.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1904년)에는 이 마을에 연가煙家가 46호 있었다고 하였으니, 한 가호 당 평균 855평의 ‘새왓’을 소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마을에서는 소설小雪, 11월 22일쯤 무렵에 ‘새’와 잡초를 거두어들였다. ‘새’는 지붕을 이는 재료, 그리고 잡초는 땀감으로 이용하였다.

1970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을에는 50마리의 일소[農牛]가 있었다. 암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마을의 소들은 청명淸明, 4월 5일쯤에서부터 소설까지는 마을 주변의 들판에서 풀을 뜯으면서 자랐다. 소에게는 고삐를 채우고, 고삐의 줄을 말뚝에 매어두었다. 이런 소를 ‘줄소’라고 하였다. 하루에 세 번 말뚝을 옮겨 매며 소에게 풀을 뜯겼다. 그리고 소설에서부터 이듬해 청명까지 이 마을의 소들은 모두 성산일출봉에 올라가 겨울을 넘겼다. 이 마을 사람들은, 청명에서부터 소설까지는 마을 주변에서 소를 매어 기르고, 소설에서부터 이듬해 청명까지는 성산일출봉 분화구에서 방목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소를 가꾸었다. 이 마을에서는 겨울에 ‘쇠막외양간’에서 소를 매어 기르지 않았으니, 월동 사료인 ‘출’[목초]을 먹이는 일도 없었다.

이 마을의 소들이 성산일출봉 분화구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날은 마을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 마을의 소들은 어떻게 성산일출봉의 석벽을 오르고 내렸을까. 이 마을 오시중(1992년생, 남) 씨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성산일출봉에는 ‘인도人道’와 ‘우도牛道’가 있었다. 인도는 지금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이고, 우도는 예전에 이 마을 소들이 오르내리던 길이다. 우도에는 ‘지방턱 골짜기’가 있고, 사람들이 집의 ‘지방턱’을 넘어서 집안으로 들어가듯이, 이 마을의 소들은 성산일출봉의 지방턱을 넘어야 분화구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지방턱은 문지방의 제주어다. 소들이 오갔던 지방턱을 보고자, 오 씨에게 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였다. 오 씨는 직접 우도를 안내해 주었다. ‘지방턱 골짜기’로 가는 길에는 잡목이 무성하였고, 가시나무는 살갓을 할퀴었다. 이렇게 지방턱까지는 올라갔으나, 지방턱을 눈앞에 보니 넘을 수 있을지가 걱정되었다. 지방턱은 사람이 넘기도 어려웠다. 지방턱에는 세 계단이 있었다. 첫 번째 계단은 지면地面에서 140cm높이, 두 번째 계단은 다시 31cm 높이, 그리고 세 번째 계단은 다시 38cm의 높이에 있었다. 오 씨와 나는 겨우 그 지방턱을 넘었다. 이 마을의 소들이 사람이 넘기도 힘든 깎아지른 석벽의 지방턱을 오르고 내렸다고 생각하니 아찔하였다. 그러나 매년 소설 무렵 성산일출봉 분화구의 ‘새왓’에서 ‘새’ 수확이 끝나면, 이 마을의 소들은 어김없이 이 지방턱을 넘었다.



성산일출봉과 초가 ① 1970년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띠로 지붕을 엮은 초가가 고즈넉한 정취를 자아낸다. 관광지로 본격 개발되기 이전의 성산리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이 일대는 관광지화 되면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서 등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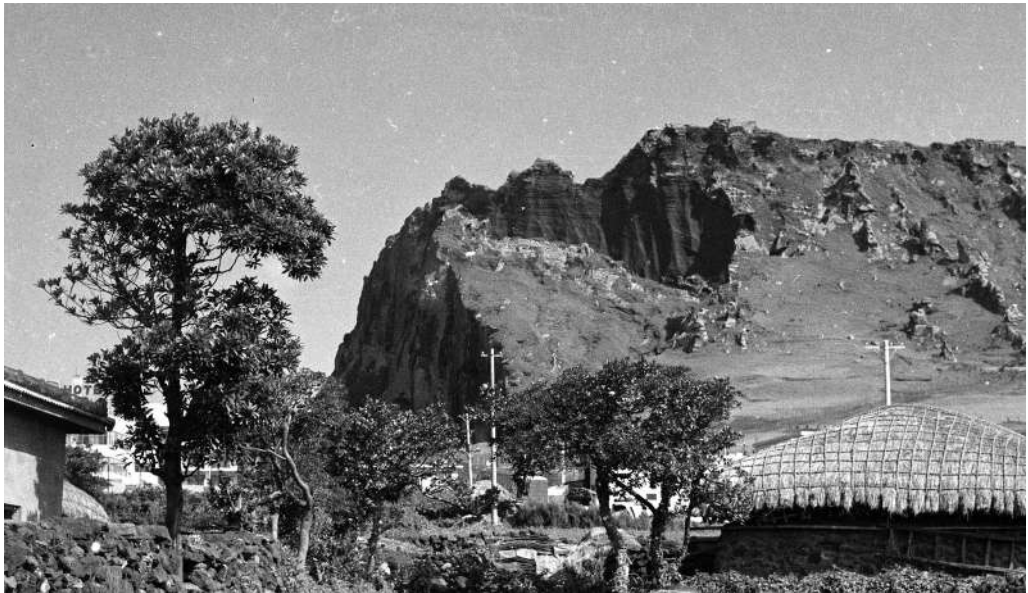
이 마을의 소들은 이곳 분화구에서 ‘새’와 잡초의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마른풀, 그리고 겨울에도 짝이 트는 풀을 뜯으며 월동하였다. 그 동안 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먹었을까.

소의 주인은 5일에 한 번 물이 가득 담긴 ‘허벅’을 등에 지고, 소에게 물을 먹일 그릇을 손에 들고 인도를 따라 성산일출봉으로 올라갔다. 도착하여 막대기로 손에 들고 갔던 그릇의 바닥을 당당 쳤다. 그릇에서 올려나온 소리가 분화구에 퍼졌다. 소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물을 먹었다.

성산일출봉은 무엇일까. 청명(4월 5일 무렵)에서부터 소설(11월 22일 무렵)까지는 ‘새왓’이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이 마을 일소와 그에 딸린 송아지들의 월동장이었다. 즉, 성산일출봉은 청명에서 소설까지는 밭, 그리고 그 이외 기간은 방목지였다.

인도와 우도

성산일출봉에는 사람이 오르내리는 ‘인도’와 소의 길인 ‘우도’가 있다. 인도는 오래 전부터 관광로로 활용되었고, 우도는 최근 들어 개방되었다. 관광객들의 등반은 인도로 올라갔다가 옛 우도로 내려오도록 등반코스가 조성되었다.



성산일출봉과 초가 ② 1970년대

성산일출봉과 초가 ①과 연속된 사진이다. 부중휴 선생은 성산일출봉과 주변 풍경을 여러 장의 사진에 연속으로 남겨 기록하고 있다.

성산일출봉의 농사

사진 전경에 초집(초가집)이 있다. 지붕을 덮고 있는 ‘띠’를 제주에서는 ‘새’라고 한다. 1970년대까지 성산일출봉 분화구에서 소를 키웠으니, 그 때까지 ‘출왓’(소에게 먹일 풀을 키우는 밭)과 ‘새왓’(새를 키우는 밭)이 윤작되었을 것이다. 197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 속 초가지붕은 성산일출봉 분화구의 ‘새왓’에서 수확한 ‘새’일 가능성이 높다. 초가지붕이 햇빛을 받아 윤기가 나고 있다. 아마 전년도前年度 11월에 수확한 ‘새’를 지붕에 올린 게 아닌가 싶다.

성산일출봉 분화구에는 ‘출왓’과 ‘새왓’만 키웠던 것은 아니다. 일제 말기에는 이곳에서 ‘조’를 경작하기도 하였다. 분화구는 공출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에 숨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꿩이 날아와서 곡식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소출이 반으로 줄었지만, 전쟁을 벌이던 일제의 강제 공출로 어려웠던 시기를 분화구의 조농사 덕분에 조금이나마 견뎌낼 수 있었다.

성산일출봉 분화구에서 월동하는 소들이 싸놓은 쇠똥과 오줌은 훌륭한 거름이 된다. 이 거름 덕분에 분화구의 ‘새’농사는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분화구 안에서도 셋바람을 타는 곳에서는 풀이 잘 자라지 않는다. 이런 풀과 소들이 먹지 않는 풀들은 통칭하여 ‘묵은출’이라 부른다. ‘묵은출’은 베어낸 후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분화구 밖 골짜기로 밀어내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내려온 ‘묵은출’을 등짐으로 집까지 옮겨 땀감용으로 쓴다. 다리 힘이 좋은 이는 하루에 열다섯번 정도 ‘묵은출’을 성산일출봉에서 집까지 운반하였다.



성산일출봉과 초가 ③ 1970년대
성산일출봉과 초가 ①, ②와 연속된 사진이다.

해녀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테왁과 망사리를 담은 바구니를 등에 진 해녀들이 바다로 향하고 있다. 해녀들은 어느 바다로 가는 것일까? 성산일출봉 왼쪽에는 ‘오정개’ 앞바다가 있고, 오른쪽은 ‘수메릿’ 앞바다가 있다. 만약 이날 남풍이 불고 있다면 ‘오정개’로 갈 것이고, 북풍이 불고 있다면 ‘수메릿’으로 갈 것이다. 성산일출봉이 바람을 막아주는 잔잔한 바다에서 물질을 해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오정개’ 앞바다로 간다면 ‘산여’, ‘방애여’, ‘뭍팍여’, ‘구쟁기머들코지’, ‘거꿈베기’, ‘뭍아구리’ 등으로 갈 것이고, ‘수메릿’ 앞 바다로 간다면 ‘개안’, ‘망치통바위’, ‘모루여’, ‘그물칠모루’, ‘툰덕’, ‘진덕’, ‘섬바르’ 등으로 갈 것이다. 물론 이날의 조류방향을 고려하여 물질할 ‘바다밭’을 정할 것이다.



성산일출봉과 해녀 ① 1970년대

테왁과 망사리를 담은 바구니를 등에 진 해녀들이 일출봉 주변 잔디밭을 가로질러 물질작업을 위해 걸어가는 모습이다. 일출봉 아래 하얀 건물은 서울 리라재단 소유의 일출봉호텔이다. 이 호텔은 1969년부터 신축에 착수하여 1972년 7월 3일 일반호텔인 성산포 일출호텔로 개관했다. 일출봉호텔은 국내외 회의장소로 이용될만큼 성산지역의 관광시설로 유명했다. 1981년부터 휴업상태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철거된 상태다. 호텔이 있던 일대는 행사 무대 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섰다

송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

송아지는 생후 1년까지는 어미소를 따라 다니며 풀을 먹지만, 그 이후에는 어미소를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진 속 송아지의 나이는 한 살인 것이다. 제주에서는 한 살짜리 송아지를 ‘금성’이라 부른다. 만약 주인이 송아지를 내다 팔 계획이라면 어미소와 떨어지는 나이인 2살 되는 해에 팔아야 한다. 송아지는 3살 되는 해부터 농우로 길들여야 한다. 주인에게 한 번 길든 소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하여 길들이기 전에 주인을 결정하는 것이다. 소의 주인이 결정 되면 소의 엉덩이에 낙인을 찍는다. 제주에 여러 소를 때로 몰아 방목하기 때문에 낙인을 찍어 소유주를 구분한다. 낙인찍을 두 살짜리 소를 ‘다간’이라 부른다. 농우로 길들이기 위해서는 힘든 훈련을 시켜야 한다. 소의 목에 멩애를 씌우고 쟁기 대신 무거운 돌멩이를 메달아 훈련을 시키는데, 이 돌을 ‘곰돌’이라 부른다. 곰돌을 메달아 험한 길을 오르내리며 농우로 거듭난 세 살짜리 소를 ‘사릅’이라 불렀다.

이 사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산일출봉 주변이 나무 한그루 없이 온통 풀밭이라는 것이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이곳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때마다 성산 사람들이 나무를 뽑아버렸다. 성산 사람에게는 소를 위한 목초지가 절실했던 것이다. 필요한 목재나 땀감은 인근 곳자왈이나 중산간까지 가서 구해왔다.

현재 오름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지만, 제주의 오름은 원래 민둥산이었다. 정확히는 목초지였다. 목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가 자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매년 2월이 되면 오름에 불을 놓는 ‘방애불’은 제주의 중요한 목축문화였다. 이것은 진드기 구제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부수적으로는 씨앗에서 발아한 나무의 싹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일출봉 분화구나 기슭에는 방애불을 놓지는 않았다. ‘여름에는 바닷바람만 쐬어도 소가 살찐다’는 말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 성산일출봉은 진드기 피해에서 자유로웠던 것 같다. 다만 일본인이 심은 나무를 몰래 뽑는 것은 중요한 방목행사였을 것이다.

1970년 이후 사진으로 보이는 이 사진 속의 소는 산자락에서 풀을 뜯고 있다. 이 소들은 줄에 묶여 있다. 이러한 소를 ‘줄소’ 혹은 ‘줄쉐’라고 한다. 성산 사람들은 이러한 ‘줄쉐’ 키우는 것을 일러 ‘줄쌍 키운다’라고 한다.



성산일출봉과 해녀 ② 1970년대

한 무리의 해녀들이 일출봉 주변 잔디밭을 가로질러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인다.

성산리는 네 개의 동네로 이루어졌다.

성산일출봉 오른쪽에는 ‘수메릿’ 동네가 있고, 왼쪽에는 ‘오정개’ 동네와 ‘우뭇개’ 동네가 있다. 그리고 해녀의 등을 지고 있는 뒤쪽으로는 ‘통밭알’ 동네가 있다.

성산리 네 동네에서 이루어졌던 생조生藻와 풍조風藻 채취 관습

제주도는 바다풀을 거름으로 이용하는 수가 많았다. 바닷물 속에 자라는 거름용 바다풀을 생조, 그리고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몰려든 바다풀을 풍조라고 하고자 한다. 1970년대 초 화학비료가 많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풍조와 생조 채취는 어느 마을에서나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마을에서는 풍조를 두고 풍태風苔라고 하였다. 성산리는 ‘수메릿동네’, ‘오정개동네’, ‘통밭알동네’, ‘우뭇개동네’ 네 개의 동네로 짜여졌다. 동네마다 풍조와 생조를 채취하는 바다밭 구역이 나누어졌다.

‘수메릿동네’는 ‘수메릿’이라는 해변의 풍조와 생조를 채취하였다. 수메릿은 성산일출봉 서남쪽의 해변 이름이다. ‘오정개동네’는 ‘오정개’라는 해변의 풍조와 생조를 채취하였다. 오정개는 성산일출봉 북쪽에 있는 해변의 이름이다. 오정개는 포구로도 이용하였다. ‘우뭇개동네’는 ‘우뭇개’라는 해변의 풍조와 생조를 채취하였다. 우뭇개는 성산일출봉 북쪽에 있는 해변의 이름이다. ‘통밭알동네’는 ‘통밭알’이라는 해변의 풍조와 생조를 채취하였다. 통밭알은 성산일출봉 서쪽에 있는 해변의 이름이다. 네 개의 동네마다 풍조를 채취하는 구역은 고정불변이었다. 그리고 성산일출봉 서쪽이면서 지금은 성산항이 들어서버린 ‘구무새끼’라고 이르는 해변이었다. 이곳의 풍조와 생조 채취권은 마을 이장에게만 주어졌다. 이것은 마을 합의로 이루어진 마을 이장의 보수나 다름없었다.



성산일출봉과 해녀 ③ 1970년대

테왁과 망사리를 담은 바구니를 등에 진 해녀들이 성산일출봉 초원 위를 걸어가고 있다. 밀짚모자를 쓰고 걸어가면서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정겹다.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성산일출봉 오정개 해안 1970년대

성산일출봉 북쪽 '용당'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사진 중앙의 하얀 건물은 서울 리라재단 소유의 일출봉호텔이다. 이 호텔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95년 철거되었다. 사진 오른쪽 하단에는 배가 정박하고 있다. 이곳은 '오정개' 안에 자리한 '작깃개'이다.



사들 1970년대

사진에 보이는 배의 돛대에 걸려 있는 것은 돛이 아니다. 자리돔을 잡는데 쓰이는 '자리그물'이다. '자리그물'을 '사들'이라 한다. 제주에는 보통 세 종류의 '자리그물'이 있다. '덕자리사들', '국자사들',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돛대에 그물을 고정시킨 '돛대사들'이다.

광치기 해변과 성산일출봉

성산읍 사람들이 ‘백기’라고 부르는 이곳은 성산리와 신양리의 바다경계선이다. 신양리에서는 이곳을 ‘앞바르’라고 부른다. 이 경계선은 행정상 신양리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곳 ‘바다밭’의 사용권은 간단치가 않다. 오조리, 신양리, 고성리가 앞바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조리의 경우는 1940년대 ‘백기’와 맞닿아 있던 ‘터진목’을 떼우기 이전부터 앞바르에서 물질을 하였기에 이곳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신양리는 원래 고성2리였다가 신양리로 독립 하였지만, 앞바르에 대한 고성리의 권리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앞바르에 대한 사용권을 세 마을이 나눠 갖게 된 것이다.

오조리, 신양리, 고성리 세 개의 마을 해녀들이 번갈아 가면서 물질을 하고 있는 앞바르의 채취 권은 다음과 같다. 조간대潮間帶에 나는 톳의 경우 오조리, 신양리, 고성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채취한다. 그리고 점심대漸深帶에서 자라는 해산물, 즉 잠수하여 채취하는 해산물은 신양리와 고성리 해녀들에게만 허용된다.



광치기 해변과 성산일출봉 1970년대

‘광치기’는 해변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성산일출봉 해돋이 촬영 장소 중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광치기’에서 성산일출봉 방향 바로 위쪽 해변이 ‘백기’이다. ‘백기’는 성산리와 신양리의 바다밭 경계선이다.



종달리 해안가의 '고망난돌'에서 바라본 성산 1970년대

머들(돌밭) 뒤로 발담과 목초지가 보인다. 그 넘어 바다 위로는 성산일출봉이 솟아 있다. 그 왼쪽 끝자락에 조그마한 섬, '새끼 청산'이 보인다. 과거에는 '고망난돌'에서 시작한 '발담'이 마을의 '올랫담'까지 연결되고, 다시 중산간의 '발담'과 '잣담'(목축을 위한 돌담)까지 연결되었다. 해안에서 중산간까지 아우르는 삶의 유기적 풍경이 바로 제주의 고유한 풍경이었다. 제주 해안마을을 가로지르는 해안도로 개발은 관광을 위한 새로운 공간은 창출하였지만, 제주의 고유한 풍경은 해체되고 말았다. 이제 제주의 원풍경은 이렇게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다.



종달리 소금밭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 1970년대

사진 중앙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종달리 ‘소금밭’이다. ‘소금밭’은 소금을 생산하는 밭을 말한다. 바닷물 수급을 조절하는 수문도 보인다. 제주도는 소금이 매우 귀한 곳이다. 1910년 제주도의 소금 자급률은 23.6%였다. 그 당시 소금밭은 종달리의 중요한 생산시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금밭’의 기능을 상실한 지는 오래되었다. 지금은 양식장으로 바뀌었고, 수문 위로는 해안도로가 가로지르고 있다.



섬지코지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 1970년대

밀짚모자와 수건을 쓴 해녀 두 명이 성산일출봉쪽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구니에서 테왁을 꺼내 놓고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물질 나서기 전인 듯하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소라와 고둥을 잡을 수 있을까.

섬지

신양리 해수욕장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길목에 이르게 된다. 이 길목의 좌, 우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마치 바다 위의 떠있는 섬을 연결하는 교량처럼 느껴진다. 이 길목을 건너면 사방이 바다로 둘러 싸인 드넓은 평야에 이르게 되는데, 신양리 사람들은 이곳을 ‘섬지’라고 불렀다. ‘섬지’의 동남쪽 해안에는 ‘보름알동산’이 있다. 작은 동산의 정상에는 조선시대의 통신수단인 연대煙臺가 잘 보존되어 있다. 연대 이름은 ‘협자연대俠子煙臺’이다. 또한 옛 문헌에는 신양리 일대를 협재포俠財浦라 기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섬지’의 의미를 협소하다는 의미인 ‘협지俠地’라고 주장하는 이가 많다. ‘섬지’로 들어가는 길목이 좁으니 그럴듯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주장도 있다.

“제주섬이 나무라면, ‘섬지’는 그 동쪽 가지에서 뺏어나간 나뭇잎이다. 잘록한 목을 지나 바깥으로 나갈수록 평퍼짐하니, ‘섬지’는 나뭇잎 같은 땅이라는 말이다. 나뭇잎의 뜻을 지닌 제주어가 ‘낭섬’이다.(낭은 나무이다) ‘섬-’은 나뭇잎, ‘-지’는 ‘코지’의 ‘-지’처럼 땅이름에 붙는 말에 지니지 않는다. 이곳을 두고 ‘섬지’라고만 이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코지’를 덧붙여 ‘섬지코지’라고도 한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를 옛 지명의 본뜻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문헌 기록과 길목의 협소함을 근거로 ‘섬지’의 의미를 설명하는 첫 번째 주장보다 두 번째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유는 두 번째 주장이 제시하는 나뭇잎 비유가 길목의 협소함과 더불어 ‘섬지’의 넓은 평야를 두루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헌기록상의 ‘협俠’자는 음차를 위한 것이지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주 옛 지명 연구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섬지’의 전체 면적이 약 30만평 정도이다. 이 중 목초지가 2/3이고, 전작지가 1/3을 차지하고 있다. ‘섬지’는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길목과 연결된 모서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모서리마다 각각의 이름이 있다. 동쪽은 머릿개코지, 남쪽은 생이부리코지, 서쪽은 오등애코지. 모두가 해녀들의 바다밭으로 연결되는 길목이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섬지의 원풍경이 사라진 지는 오래 되었다. 하지만 ‘섬지’에는 아직도 수많은 지명地名과 해명海名(바다밭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이 이름들을 따라가다 보면 신양리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원풍경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늬바람 타지 않는 ‘브름알’

‘생이부리코지’와 ‘머릿개코지’ 한가운데는 섭지에서 가장 높은 표고 33m의 오름이 있다. 화산이 터지면서 만들어낸 붉은 송이로 이루어졌기에 ‘붉은오름’이라고 한다. 그 기운이 바다 속까지 미치더니, 높고 낮은 여러 개의 바위를 꽃아 놓는다. 그 중 가장 높이 서 있는 바윗돌을 ‘선돌’이라고 한다. 선돌 바깥에 따로 서 있는 세 개의 바윗돌을 ‘난돌’ 또는 ‘툰덕’이라 한다. ‘선돌’보다 바깥으로 나간 곳에 있어 ‘난돌’, 그리고 ‘선돌’과는 다른 ‘덕’이어서 ‘툰덕’이라고도 한다. ‘툰덕’은 ‘다르다’는 의미를 갖는 제주어 ‘툰나다’의 ‘툰’과 비교적 높다는 의미를 지닌 ‘덕’이 어우러진 말이다. 그리고 난돌 바깥 자락에 자그마한 간출여가 있다. 감태^{ㅁㅁ}가 다닥다닥 붙어 자라는 여라서 ‘감태돌’이라고 한다.

줄줄이 늘어서 있는 ‘선돌’ - ‘난돌’ - ‘감태돌’을 기준하여 바람의 미침이 뚜렷하게 다르다. 하늬바람이 일 때 선돌 동쪽은 파도가 울렁이나 그 서쪽은 잔잔하다. 선돌에서부터 ‘구시개’까지의 갯가는 25m 높이 단애^{斷崖}로 둘러 있다. 하늬바람이 드세게 불더라도 바람은 위에만 머물 뿐이다. 이곳은 바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바람 아래여서 ‘브름알’이라고 한다. 그러니 하늬바람이 일 때 해녀들은 살갓을 파고드는 하늬바람이 타지 않아 포근한 브름알로 쏠린다. 그 동쪽 갯가를 ‘큰브름알’, 서쪽을 ‘죽은브름알’이라고 구분한다.



생이부리코지 방향에서 바라본 브름알 동산 1970년대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동산 위 네모난 돌담이 ‘협자연대俠子煙臺’이다. 협자연대가 있는 곳이 ‘브름알동산’이고, 이 동산을 넘어 바다로 내려가면 하늬바람을 타지 않는 ‘브름알’에 이르게 된다.



섬지코지 해녀들 ① 1970년대

한 무리의 해녀들이 테왁을 지고 섬지코지 붉은오름 옆을 지나 바다로 향하고 있다. 섬지코지 풀밭은 나무 하나 없는 매끈한 초원 형태를 보여준다. 부중휴 선생이 사진 촬영 당시만 해도 섬지코지는 운동 풀밭이었다. 현재 이 일대는 대규모 호텔과 박물관 등 대형 건축물,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등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개발되기 전 섬지코지의 원풍경을 느낄 수 있다.



섬지코지 해녀들 ② 1970년대

테왁을 담은 구덕을 등에 진 해녀들이 섬지코지의 돌담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 아마도 물질하러 바다에 가기 위해 담을 넘으려는 것 같다. 부중휴 선생의 사진 촬영 당시만 해도 섬지코지 일대에서는 경작이 행해지고 있었고 본격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밭담이 둘러쳐져 있었다.



섬지코지 해녀들 ③ 1970년대

바다로 물질 나갔던 해녀들이 섬지코지 초원을 가로질러 돌아오고 있다.



섬지코지 해녀들 ④ 1970년대

성산일출봉이 바로 보이는 곳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다. 해녀들뿐만 아니라 남정네들도 서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 공동어로작업을 하기 위해 모여든 것으로 보인다.



섬지코지 해녀들 ㉟ 1970년대

섬지코지 붉은오름 근처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보인다. 매끈한 풀밭위에 해녀들이 바구니에서 테왁을 꺼내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머릿개코지 방향에서 바라본 붉은오름코지 1970년대

사진 오른쪽 끝의 둔덕이 '붉은오름코지'이다. 붉은오름코지 앞으로 '선돌' - '난돌' - '감태돌'이 이어지고 있다. 섬지의 바다는 넷으로 나뉜다. ① 앞곶 ② 동곶 ③ 북림알 ④ 셋곶. 붉은오름코지 앞의 돌들은 '동곶'과 '북림알'을 나누는 바다의 경계선이다.

‘섭지코지’의 바다밭

성산리와 바다밭을 경계삼는 ‘백기’(광치기)에서부터 ‘질너리원개’까지를 뭉뚱그려 ‘앞곶’이라고 한다. 고성리에서 봤을 때는 마을 앞이요, 신양리에서 봤을 때는 동쪽이다. 신양리가 고성리에서 떨어져 나온 마을이고 보면, 두 마을의 중심은 고성리에 쏠린다. 그래서 앞곶은 고성리 마을 앞 가까운 바다밭인 ‘앞’과 갯가의 의미를 지닌 제주어 ‘곶’이 어우러진 말이다. 섭지코지와 성산일출봉 사이 깊게 후미진 곳에 있어 파도가 덜 미치는 갯가라 ‘포레’(파래)가 많이 자라고, ‘감은돔’과 ‘구릿’(벵에돔)은 이것을 뜯어먹으려고 자주 이곳으로 기웃거린다.

‘질너리원개’에서부터 ‘선돌’까지의 갯가를 뭉뚱그려 ‘동곶’이라고 한다. 동쪽에 있는 갯가라는 말이다. ‘선돌’에서부터 ‘생이부리코지’까지를 ‘브름알’, 그리고 ‘생이부리코지’에서부터 ‘오등애코지’까지의 바다밭을 ‘섯곶’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늬바람이 일 때는 ‘브름알’에서,
마파람 일 때는 ‘동곶’과 ‘앞곶’에서,
셋바람이 불 때는 ‘섯곶’에서 일한다.
그러니 바람만 놓고 볼 때, ‘섭지코지’는 전천후 바다밭이다.



머릿개코지에서 바라본 성그랭이 1970년대

사진 중앙의 돌밭을 ‘성그랭이’라고 부른다. 돌들이 얽히고설킨 듯해서 그리 부른다. 사진의 하단에 보이는 돌담은 ‘영불턱’이다. 고헌민의 ‘해녀 노트’에는 다음과 같이 메모되어 있다. “흔 삼십명 안주. 그 속에 의자 닮은디도 잇곡.” 영불턱은 반쯤 허물어져있지만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붉은오름코지’에서 ‘머릿개’를 돌아 ‘질너리원개’에 이르는 앞바다를 ‘동곳’이라 부른다. ‘성그랭이’는 ‘동곳’의 바다밭이다.

터우

‘터우’는 제주의 전통 뗏목 배이다. ‘때배’, ‘테’, ‘테우’라고 불리기도 한다. 터우는 고기잡이를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해조류 채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짐을 실어야 하는 트럭이 그러하듯 터우는 채취물 적재積載를 최대화하기 위해 단순하고 넓게 제작되었다. 터우는 3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하다가 나머지 기간 동안은 해체하여 말린다. 말려서 물을 빼야 터우의 속도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말린 후에는 다시 조립하여 사용한다.

오래 전에는 터우를 만들 때 한라산의 구상나무를 이용하였다. 그 당시 제주 사람들은 구상나무를 구하기 위해 한라산 700~800m 고지까지 올라갔다. 베어낸 나무를 산북 사람들은 ‘도그내’(외도동 도근천)로, 산남 사람들은 ‘쇠소깍’으로 운반한 후, 배에 싣고 마을로 돌아가서 터우를 만들었던 것이다. 구상나무를 구하기 어려워진 이후부터 삼나무로 만드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질너리원개와 터우 1970년대

'질너리원개'는 '앞곳'과 '동곳'의 경계이다. '터우' 뒤로 돌이 길게 쌓여있는 곳은 '오녀덕코지'이다. 그 뒤로는 '조랑개'가 있다.

웃쇄와 알쇄

신양리는 네 개의 마을로 이루어졌다. ① 동마루왓 ② 동동네 ③ 셋마루왓 ④ 셋동네. 신양리 사람들은 소를 공동으로 방목한다. 이러한 소를 ‘돌음쇄’라고 한다. 신양리의 돌음쇄는 윗동네 소인 ‘웃쇄’와 아랫동네 소인 ‘알쇄’로 나뉜다. 웃동네, ‘셋마루왓’과 ‘셋동네’의 웃쇄는 ‘족은물미’와 ‘큰물미’ 일대에 방목하고, 알동네, ‘동마루왓’과 ‘동동네’의 알쇄는 ‘섭지’에 방목한다. 웃쇄의 방목지 ‘물미’는 진드기가 많고, 목초의 영양도 떨어진다. 알쇄의 방목지 섭지는 진드기도 없고 목초의 영양도 뛰어나다. 하여 웃쇄는 가끔 섭지로 내려온다. 이때 알쇄와 웃쇄는 서로 영역 싸움을 벌이게 된다. 결국 알쇄가 웃쇄를 쫓아내고 만다.



생이부리코지와 돌음췌 1970년대

사진 중앙 왼쪽에 새부리처럼 뽕족 나온 둔덕이 '생이부리코지'이다. 신양리 사람들은 공동으로 소를 방목하는데, 이를 '돌음췌'라 불렀다. '섭지'가 아랫동네이기 때문에 '섭지'의 '돌음췌'를 '알췌'라고 부른다.

쉐 ㄱ꾸는이 1

아침에 해가 뜨면 소 입자가 '쉐석'(소의 줄을 묶어놓는 돌)을 풀어서 약속한 장소까지 소를 내몬다. 주로 한 집에 소 한 마리 안팎이다. 어미에 딸린 금싱(1살)과 다간(2살)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금싱'은 어미를 따라 다니기에 '쉐 ㄱ꾸는이'(이 마을에서는 당번을 두고 이르는 말. 'ㄱ꾸다'는 '가꾸다'는 말이다.)의 의무에서 '금싱'은 제외된다.

'쉐 ㄱ꾸는이'가 '돌음쉐'를 돌보는 일을 '번 본다'고 한다. 번 보는 일은 우선 '큰쉐'에 한해서 이루어진다. 큰쉐 번 보는 일을 '큰쉐돌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다간'을 거느리는 번을 본다. 이때의 번 보는 일을 '다간돌음'이라고 한다.

큰쉐와 다간의 숫자에 따라 번을 보는 날은 저절로 늘어난다. 신양리 정종영 씨는 1960년대 우도에서 젓꼭지가 세 개 달린 암소를 사왔던 적이 있다. 그 소는 해마다 새끼를 쳤으니 어미는 금싱과 다간을 동시에 거느리고 말았다. 그 무렵 정씨는 큰쉐돌음과 다간돌음을 하였다.

이러한 돌음쉐 돌보기는 청명(4월 5일 경)에서부터 상강(10월 23일 경)까지 이루어졌다.



큰보름알과 돌음쇠 1970년대

‘붉은오름코지’ 아래로 선돌, 난돌, 감태돌이 보인다. ‘돌음쇠’들이 ‘큰보름알’ 위의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다.

쉐크꾸는이 2

‘섭지’의 초지를 소들은 좋아한다. 이곳에서 풀을 뜯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살이 쏙 빠져버린다. 지난날 구좌읍 김녕리에 거주하는 소장수 이 씨가 섭지에서 풀을 먹이던 소를 사갔던 적이 있다. 그 소는 김녕리에서 섭지까지 주인 몰래 도망 왔던 것이다.(김녕에서 섭지까지 옛길을 따라 가면 30km가 넘는다) 소들은 섭지 초지를 그만큼 좋아하였기 때문이었다.

무더운 여름에도 바다 바람이 부는 섭지는 다른 곳에 비해 시원하다. 하지만 파리의 극성은 피할 길 없다. 섭지의 소들은 꼬리로 파리를 때려잡으려다가 그만 ‘브름알’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심한 경우 브름알에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는 쉐크꾸는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섭지는 해수 때문에 여름농사는 잘 안되었지만 가을, 겨울농사인 보리와 고구마는 잘되는 곳이다. 섭지의 소들은 고구마와 보리밭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다. 몽니가 사나운 소들은 가슴으로 밭담을 밀어 허물고 밭으로 들어가기 일쑤였다. 소가 밭에 들어가 고구마줄기와 보리를 먹어버리면 ‘쉐크꾸는이’가 변상을 해야 한다.



오등애코지에서 바라본 생이부리코지 1970년대

‘돌음쇄’들이 ‘생이부리코지’ 일대의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다. ‘오등애코지’에서 ‘생이부리코지’로 향하는 해안가에는 큰여, 죽은여, 방애여, 가릿여 등이 많은 바다밭이 있다. 생이부리코지를 기점으로 좌우로 바다가 펼쳐져 있다. 왼쪽이 ‘보름알’ 바다이고 오른쪽이 ‘섯긔’ 바다이다. 셋바람(동풍)이 심할 때 해녀들이 찾는 바다는 ‘생이부리코지’ 오른쪽 ‘섯긔’이다. ‘생이부리코지’가 셋바람을 막아주어 ‘섯긔’의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기 때문이다.



진방딕에서 보는 오등애코지 1970년대

바다 끝자락에 보이는 물이 '섭지'이다. 사진에 보이는 '섭지'의 끝자락이 네모난 섭지의 서쪽 모서리, '오등애코지'이다. 사람들이 보이는 모래 해변은 신양 '섭지해수욕장'이다. 과거 이곳은 신양리 사람들의 '후릿그물' 어장이었다. '후릿그물'은 200~300m에 이르는 그물을 이용하여 멸치를 가두어 잡는 어로기술로, 주로 모래해변에서 이루어졌다. '후릿그물'은 보통 20~30인이 하나의 '집'을 이루었다. 신양리에는 3개의 '후릿그물집'이 있었다.

1) '후릿그물'에 대한 설명은 '모래해변' 편을 참조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훤 사진집

漢山

그리고

濟州

제 4 장

생·활·민·속·경·관

마을

현대문명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공동체’라는 말이 등장한 지는 꽤 오래 되었다. 공동체라는 말은 특히 ‘개인주의’에 대응하여 쓰이는 용어로서 ‘마을’의 협력적 사회구조에서 빌려온 말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존재했던 공동체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마을의 인적 네트워크인 계, 접, 모임 등을 마을 내의 ‘작은 공동체’라고 할 때, 제주 마을에 실재했던 최소한의 공동체의 수는 몇이나 될까? ‘씨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물’[用水] 공동체, ‘췌’(소) 공동체, ‘수놓음검질’ 공동체, ‘물방애’(말 방앗간) 공동체, ‘영장’(장례) 공동체. 해안마을의 경우 여기에다 ‘그물망’(어로) 공동체, ‘해녀’ 공동체 등이 추가될 것이다. 마을의 인적 관계망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수록 마을 내의 작은 공동체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현대의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숨막히는 인간관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는 열악한 자연 환경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제주에는 일 만-萬의 신神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네 마다 자신만의 ‘본향당’과 그 외 여러 신들을 독자적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마다 동네심방이 따로 있기에, 굿을 하기 위해 다른 동네심방을 찾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제주 특산물 ‘옥돔’을 부르는 말은 지역마다 다르다. 북쪽 사람들은 ‘생선’, 동쪽 사람들은 ‘오토미’, 남쪽 사람들은 ‘솔라니’라 부른다. 지금도 제주시 동문시장에 가서 ‘솔라니’를 찾으려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작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리 다를까? 이것은 제주 사람들이 특별히 유별나서가 아니다. 그것은 구성원들의 결속을 통해 각 마을이 처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경제자립을 통해 마을의 독자성을 확보한 결과이다. 제주의 ‘마을’은 그렇게 창조된 것이다.

애기구덕에 쉼똥 담아와야 부자된다

제주도의 화산암은 구멍이 숭숭 나 있다. 제주의 화산회토는 푸석푸석하였다. 제주의 강수량은 1년에 1549mm로 한반도보다 높았다. 하지만 비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빠져 나갔고, 건천(乾川)을 타고 흘러 바다로 빠져 나가 버렸다. 물을 머금은 흙이 있어야 논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 토양은 투수성이 높기에 제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밭농사에 의존해야만 했다.

밭농사의 성패는 거름이 좌우한다. 거름으로 흙의 기운을 살려야 곡식을 키울 수 있다. 투수성이 강한 토양일수록 더 많은 거름이 필요하기에 제주 사람들은 거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다. 제주에서 으뜸 거름은 돛통(돼지우리)에 보릿짚을 섞은 ‘돛거름’이다. 그래서 제주에는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다.

하지만 제주의 토양은 너무 열악하였다. 가족의 배를 채울 곡식을 키우기에 돛거름만으로는 부족했다. 거름의 양을 늘려야 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방목지에 널린 쉼똥, 말똥을 씹 없이 모아야 했다. 돼지 수를 늘려 돛거름의 양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하지만 식성이 좋은 돼지는 생산 대비 비용이 너무 높다. 한 집에 큰 돼지 한 마리 이상은 무리였다.

예전에는 어린아이 사망률이 높았다. 아이가 죽으면 죽은 아이를 구덕에 담고 인적이 드문 들판으로 나갔다. 그곳에 무덤을 파고 아이를 묻었다. 죽은 아이를 담고 갔던 애기구덕은 봉분 주변에 놓아두고 내려왔다. 하지만 들판에는 쉼똥, 말똥이 널려 있다. 아이를 묻은 어미는 독한 마음을 품고 애기구덕에 쇠똥을 담고 집으로 내려왔다. 제주에는 ‘애기구덕에 쉼똥을 담아와야 부자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식 잃은 아픔을 딛고 애기구덕에 쇠똥을 담아왔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품어야 했던 그 모진 마음을 향한 자조 섞인 말일 것이다.



마을 풍경 1970년대

제주 서쪽지역의 어느 마을인 듯 하다. 초가 옆으로 소 한마리가 서 있고 쇠바퀴 달린 구루마가 세워져 있다. 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잠시 마을 연못을 찾았다. 사진 상단 오른쪽에 솟아있는 오름이 큰노꼬메오름이다.

검질매기

밭농사를 위해서는 두 가지와 싸워야 했다. 하나는 거름이고 다른 하나는 잡초였다. 제주의 여름은 고온다습하다. 잡초가 자라기에 최적의 기후인 것이다. 이러한 잡초 제거를 육지에서는 '김 맨다'고 한다. 제주에서는 이를 두고 '검질 맨다'고 한다. 제주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골갱이' 하나로 '검질'과의 전쟁을 해야 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전쟁에서 부지런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잡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잡초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잡초 하나하나에 그 이름을 붙였다. 보리밭의 검질은 대오리, 보리탈낭, 돌막작클 등이 있고, 조밭의 검질은 울리, 제완지, 고노클, 쑥, 그랏, 물웃, 머마줄, 생이죽 박, 삼수세, 함박클, 빈네함박클, 가마귀윗줄, 하늘래기, 진풀, 천상클, 역귀, 쇠비늘 등이 있다.

검질 매기는 보통 여럿이 한데 어울려 밭을 맨다. 이를 '수눔음검질'이라 한다. 동네 사람들 여럿이서 '수눔음'을 짜서 밭을 돌아가며 검질을 맨다. 육지말로 하면 '품앗이'이다.

'수눔음' 사람들은 '익은넝'과 '선넝'이 있다. 익은넝은 검질 기량이 뛰어난 사람, 선넝은 기량이 모자란 사람이다. 모두가 일렬로 검질 매기의 출발점은 '뒷명애' 앉는다. 익은넝은 양 끝 가장자리, 선넝은 앞쪽에 앉는다. 익은넝이 검질매기를 선도하면 선넝이 뒤따라온다. 익은넝이 앞서나가 목표점인 '앞명애'에 도달하면 뒤쳐진 선넝의 검질까지 매어준다.

검질을 매면서 피곤함을 달래는 노래를 한다. 이 노래를 '검질매는 소리' 또는 '사디 소리'라 한다. 익은넝이 '앞소리'를 하면 선넝이 '뒷소리'로 따른다.

앞명애랑 들어나오라
뒷명애랑 나가나노라
검질짓고 굴늦은 밭디
사디로나 우겨근매자



김매기 1970년대

제주시 정실 지경 농촌진흥청 시험장 인근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멀리 한라산이 희미하게 전형적인 순상화산체 모양으로 부드럽게 뻗어있다. 여인네들이 줄을 지어 밭에서 검질을 매고 있는 모습이다. 밭농사를 위해서는 검질을 매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다.

답하니

제주에서 논농사가 가능한 지대는 제주도 전체 경작지(耕作地)중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0.5%의 경작지라 하여 자기 마음대로 농사지을 수는 없다. 상호규약과 실천이 없이는 척박한 환경에 처한 공동체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 논은 두 종류이다. 수답(水沓)과 건답(乾沓)이다. 수답을 ‘흐랭이’라고 한다. 흐랭이는 논 안에 샘물이나 빗물로 논농사를 지었다. 그러니 흐랭이에서 논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을 놓고 이웃과 싸울 일이 없었다. 그러나 건답의 경우 물도랑을 따라 흘러오는 물로 논농사를 지었다. 이러한 마을에서는 물 관리자를 선출하여 ‘답하니’라고 불렀다. 답하니가 모든 논에 물을 관리하여 “제 논에 물대가”식 논쟁을 방지하였다. 논마다 ‘물골’이 연결되어 있다. 물골에서 논으로 물이 들어가는 곳을 ‘물코’라 했다. 물고랑의 흙으로 물코의 입구를 여닫아 물을 조절했다. 물이 넘ek할 때는 3일 동안 하루에 한 차례씩 모든 논에 물을 댔다. 그리고 하루는 물을 끊었다. 물이 모자란 가뭄에는 답주(沓主)들이 모여 논에 물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답하니는 모내기에서 수확까지 논을 관리하면서 물 조절하는 일과 더불어 논에 우마의 출입을 막는 일을 했다. 답하니의 품삯으로 벼를 받는다. 이를 ‘켓곡식’이라 하였다.



하늘에서의 농사 풍경 1970년대

위 사진은 마르형 분화구인 하늘의 풍경이다. 한 여인이 어미소와 새끼소를 몰고 가고 있다. 사진 오른쪽 중간쯤에 선일포도당 건물이 보인다. 하늘은 큰 눈(大畵)이란 뜻이다. 5만~7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이원진)는 원래 이 지역이 큰 연못大池이었는데 물의 양을 줄이고 눈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하늘은 비고 88m, 둘레 3774m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의 마르형 분화구이다. 화구 바닥에서 풍부한 용천수가 분출돼 농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등성마루를 ‘하늘거제’라고 하였다. 서쪽에 있는 것을 ‘하늘섯거제’, 동쪽에 있는 것을 ‘하늘동거제’, 북쪽에 있는 것을 ‘하늘웃거제’라고 하였다. 하늘 안에는 ‘밀망소’라고 이르는 못이 있다. 『탐라지』(이원진)는 이 못을 조연藻淵이라고 하였다. 조연藻淵의 조藻는 바다풀을 이른다. 서귀포 사람들은 거름용 바다풀을 ‘밀망’이라 부른다. ‘밀망’이 ‘조藻’이니 ‘밀망소’를 ‘조연藻淵’이라 쓰는 것이 맞다.

보리 7시락 동골름

‘그렛방석’을 펼쳐 놓고 ‘솔박’으로 도리깨질한 보리를 바람에 불려서 불필요한 것을 날려 버리는 일이다.

밭에서 곡식을 추수한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추수한 곡식이 밥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곡식의 종류에 따라 탈곡의 방법이 다르다. 보리의 경우를 살펴보자.



① 보리베기

망종 전후에 베어 들인다.

② 이삭따기

베어낸 보리 줄기에서 이삭을 분리하는 일이다. 보리 이삭을 차곡차곡 모아 호미로 잘라낸다. 그 다음 보리클(보리훅이)로 이삭을 따낸다.

③ 마당질

도리깨로 이삭을 후려쳐 낱알을 내는 일이다. 보리줄기에서 이삭을 분리하지 않은 채 마당에 펼쳐 놓고 도리깨로 탈곡하기도 한다. 마당에서 도리깨로 탈곡하는 것을 마당질이라 한다.

④ 불림질

‘그렛방석’(맷방석)을 펼쳐 놓고 ‘솔박’으로 도리깨질한 보리를 바람에 불려서 불필요한 것을 날려 버리는 일이다. 이 일을 ‘보리 7시락 동골름’이라 한다.



불림질 1970년대

한 여인이 땡유지나무 아래에서 맷방석을 펼쳐놓고 바람을 이용하여 보리 불림질을 하고 있다.

⑤ 농그기

물방애를 이용하여 보리껍질을 벗겨내는 일이다. 보리를 물에 담가둬야 껍질이 잘 벗겨진다. 물방애 이전에는 남방애를 이용했다.

⑥ 말리기

물방애에서 껍질을 벗겨 놓은 보리쌀을 멩석에 놓고 말린다.

⑦ 체가름

모든 곡물부스러기를 ‘체’라고 한다. 그러니 ‘체가름’이란 보리쌀과 그 부스러기를 분리하는 일이다. ‘푸는체’를 이용한다.

⑧ 말리기

부스러기를 골라낸 보리쌀을 멩석 위에 넣어놓고 말린다.

⑨ 보리쌀 벌르기

말린 보리쌀을 ‘그래’에 넣고 간다. 이 일을 두고 ‘보리쌀 벌른다’라고 한다. 그래에 넣고 갈 때 보리알이 온전히 남기도 하나 으깨져 버리는 것도 많다. 온전하게 갈린 보리쌀을 ‘통보리’, 두 조각으로 으깨진 쌀을 ‘굽쌀’, 아주 자잘하게 으깨져버린 쌀을 ‘좁쌀’이라 한다. ‘좁쌀’은 온전한 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쓰인다. 좁쌀에 섞어 밥을 짓기도 하고 보릿가루에 섞어 수제비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대체로 쌀을 걸러내기 1970년대

‘대체’로 쌀을 걸러내고 있다. 대오리로 만들었기에 ‘대체’라고 한다. 망綱의 구멍이 2mm의 체다. 달리, ‘좁진대체’라고도 했다. ‘훙은(굵은) 대체’보다 구멍이 ‘좁질기’(조밀하기) 때문이다. 소나무를 오려 만든 둥그런 ‘에움’에 나일론실의 망綱을 메워 만들었다. ① 보리를 장만할 때는, 온전한 쌀은 체 안에 남고, 으깨진 쌀과 가루만 빠져 내린다. 으깨진 쌀을 두고 ‘좁쌀’이라고 한다. ② 발벼를 장만할 때는, 온전한 쌀은 체 안에 남고, 으깨진 쌀은 구멍으로 빠져 내린다. 으깨진 쌀을 두고 ‘스레기쌀’이라고 한다. ③ 메밀을 장만할 때는, 메밀은 체 안에 남고, 쌀은 구멍으로 빠진다.

감저

제주도 사람들은 고구마를 ‘감저’라 부른다. 기록에 따르면, 제주도 역사상 고구마는 조선 순조 32년(1832)에 최초로 나타난다. 그 당시 제주 목사 한응호韓應浩는 제주도 풍토에 구황작물救荒作物 고구마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고구마 재배를 권장했다. 고구마는 우도와 가파도에서 먼저 유입되었고, 그 이후 제주 섬 내로 유입되었다. 고구마는 겨울철 제주 사람들의 주요 식량이었으며, 해방 전후 주정공장에 판매되면서 제주농가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1966년도 통계에 따르면 그 당시 제주도 총 경지면적은 4만9148정보 중 고구마 재배 면적은 1만7345정보로 매우 넓었다. 생산량은 전국 총생산량의 10.3%를 차지했다.

겨울철 식용 고구마

고구마를 한 가족의 겨울철 식량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고구마를 부패 없이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겨울철 김장김치 독을 땅에 묻듯이, 제주 사람들은 땅에 구덩이를 만들어 고구마를 장기간 보관하였다. 다음은 고구마 저장고 만드는 방법이다.

- 고구마 75말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의 구덩이를 판다.
- 구덩이 밑에 직경 1촌^寸 정도의 나뭇가지 5~6개를 깎는다.
- 그 위에 ‘조’나 ‘겉보리’ 왕겨 3말을 깎는다.
- 조짚 15단을 세워 구덩이 주위를 에두른다.
- 고구마를 그 속에 담고 그 한가운데는 통풍이 되도록 대나무를 꽂는다.
- 조짚으로 고구마를 덮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은 후 발로 밟아준다.
- ‘주쟁이’를 만들어 그 위를 덮는다.

절간 고구마

제주 사람들은 고구마를 주정공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절간^{切干} 고구마를 만들었다. 절간 고구마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기계를 돌려 고구마를 무 자르듯 자른다. 기계로 썰어 낸 고구마를 햇볕에 말린다. 이것을 ‘감저뻗데기’라 한다. 제주도 농가에서는 상강^{霜降} 전에 고구마를 파서 상강 이후에 썰어 말렸다. 상강 이후에 부는 차고 건조한 바람은 썰어낸 고구마를 잘 말려주기 때문이다.



구덩이를 파고 고구마 저장하기 1970년대

어느 초가 담벼락 아래 한 가족이 구덩이를 파고 고구마를 저장하는 모습이다. 감자를 저장한 후에 그 위에 덮을 노람지가 보인다. 구덩이를 파고 저장한 고구마는 겨울철 요긴한 식량대용이었다.

정지와 굴묵

조선조 숙종 때 제주 목사로 왔던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은 제주도의 정지를 보고, 그의 책 『남환박물南宦博物』에서, ‘부엌에는 오직 솥만 앉히고 불을 땀다(竈則獨鼎而炊)’라고 했다. 부엌이라고 하면 아궁이만을 생각했던 그였기 때문이다. 한국 본토는 온돌과 솥이 일체형一體型이고, 제주도는 분리형分離型이다.

한국 본토의 ‘부엌’에는 아궁이와 솥이 같이 있지만, 제주도의 ‘정지’에는 솥만 있고, 육지의 아궁이 격인 ‘굴묵’은 다른 곳에 있다. 정지의 한쪽 벽에 돌을 ‘품’ 자 모양으로 세우고, 그 위에 솥을 앉혔다. 이것을 ‘솥덕’이라고 했다. 솥덕과 솥덕 사이에 불을 지피는 곳을 ‘솥강알’이라고 했다. 솥덕과 벽 사이는 50~60cm 간격을 두었는데, 그 곳을 ‘솥독강’이라고 했다. ‘솥 뒤’라는 말이다. 그곳에 ‘재’를 밀어내어 쌓아 둔다.

‘굴묵’은 제주의 난방시설이다. 초가를 삼등분 하면, 왼쪽은 ‘정지’(부엌), 가운데는 ‘상방’(마루), 오른쪽은 ‘큰구들’(큰방)로 나눌 수 있다. 큰구들 밑에 구멍을 내어 ‘굴묵’을 만들었다.

굴묵 구멍 안에 말린 쇠똥, 말똥을 넣고 불을 붙인다. 그리고 굴묵 입구에 넓적한 돌로 막는다. 굴묵입구를 ‘굴묵어귀’라 하고, 막는 돌을 ‘굴묵돌’이라 부른다. 굴묵어귀와 굴묵돌 사이에는 틈이 생긴다. 이 틈새를 젖은 쇠똥으로 잘 발라 막는다. 이렇게 막아야 굴묵의 불기운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속된다. 굴묵 틈새에 발랐던 쇠똥은 다음날 바짝 마른다. 마른 쇠똥은 굴묵 연로로 쓴다. 한 5일에 한 번씩 굴묵 안에 쌓인 재를 긁어낸다. 정지에 쌓인 재거름과 합쳐, 메밀 파종 때 밑거름으로 이용한다.

산성회토酸性土壤의 제주도 밭농사에는 ‘재’ 거름이 긴요하게 쓰였다. 재 거름의 알칼리성분이 제주토양의 산성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과거 제주 사람들은 현대의 화학용어를 알지 못하였어도 오랜 농사 경험의 축적으로 ‘재’의 효과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재 거름을 어떻게든 많이 만들려고 ‘정지’와 ‘굴묵’을 분리시켜 놓은 것일까?



정지 1970년대

부엌에 해당하는 '정지'의 모습이다. 손때묻은 항아리가 놓여있고, 아래쪽으로 솔단지가 걸려 있다.

지들커

제주도는 오름이 360개가 넘는다. 지금은 나무가 무성한 ‘나무의 산’이 되었다. 하지만 제주의 오름은 원래 민둥산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풀을 키우기 위한 ‘풀의 산’이었다. 제주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꼽으라고 한다면 소가 첫째일 것이다. 하여 소를 기르기 위한 방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방목지에는 매년 음력 2월 경 ‘방애불’을 놓는다. 방목지에 불을 놓는 것은 소를 괴롭히는 진드기 구제驅除를 위한 것이다. 또한 풀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다년생 나무를 없애는 효과도 있다. 방목지 확보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자연히 땃감 부족을 초래했다. 소를 위해 오름의 나무를 포기한 대가로 제주 사람들은 사시사철 땃감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들로 돌아다녀야 했다. 나뭇가지부터 잡초에 이르기까지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땃감으로 사용했다. 이 중 풀 종류의 땃감을 ‘지들커’라 불렀다. 방목지에는 고사리들이 많이 자란다. 말과 소는 고사리를 먹지 않는다. 고사리 철이 지나 잎이 무성히 자란 고사리들은 좋은 땃감의 재료가 되었다. 이를 ‘고사리지들커’라 부른다. 피, 조의 수확이 끝난 밭에 가면 수확 후 남은 아랫동가리가 있다. 뿌리 채 캐어내어 말리면 좋은 땃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쉼똥과 말똥도 훌륭한 땃감이었다. 취사용 땃감과 난방용 땃감을 구분했던 제주 사람들은 쉼똥과 말똥을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였다. 겨울철에 육지 소는 소죽을 쭈어 먹었다. 제주의 소는 마른 건초를 먹었다. 제주는 땃감이 부족하여 소의 월동 사료를 육지와는 달리 생식으로 준 것이다.

여담 하나를 소개한다. 옛날, 수석을 구한다고 제주 해안을 해매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다. 지나던 노인이 한 마디 했다고 한다. “불에 때지도 못할 돌은 주워서 뭘 하나?” 지금은 제주 돌이 귀하지만, 그 옛날 쉼똥과 말똥은 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했다. 쉼똥과 말똥은 겨울철 난방 연료일 뿐 아니라 밭에 뿌리는 중요한 거름이기도 했다.



지들커를 지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 1970년대

지계에 지들커를 잔뜩 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듯 하다. 척박한 풍토를 일구며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느껴진다. 현재의 제주시 정실 지경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물항굽 물르민 살림 노고릇 못한다

제주도에서 먹는 물을 등짐으로 저 나르는 게 일반적이다. 음료수를 길어 나르는 물동이를 ‘물허벅’이라고 하고, 이 물허벅을 지어 나르는 대바구니를 ‘물구덕’이라 한다. 물구덕은 거의 장방향으로 짚고, ‘물배’라는 밧줄로 여자들이 지어 나른다. 제주도 지역에는 이런 속담이 전승되었다. “물항굽 물르민 살림 노고릇 못한다(물 항아리 바닥에 물이 마르면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다).” 제주도 여자들은 식수 운반에 머뭇거릴 겨를이 없었다

김정(金淨, 1486~1521)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 ‘부이부재負而不載’라고 지적하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운반할 짐을 등에 질지언정 머리에 이어 나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 도서 지역 남자들이나 제주도 지역 남자들의 운반문화는 어떠한 물건을 지게 또는 바지계에 올려놓고 등에 지어 나르는 것이었으니, 김정의 ‘부이부재’는 한반도와 그 주변 도서 지역 여자들의 두상頭上 운반문화와 제주도 지역 여자들의 배부背負 운반문화를 대비적 관점에서 지적한 것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 도서 지역 여자들은 머리에 일지언정 등에 지어 나르지 않았고, 제주도 지역 여자들은 등에 질지언정 머리에 이어 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허벅 진 여인 1970년대

등에 물허벅을 진 여인이 풀로 지붕을 엮은 원두막을 지나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다. 원두막 옆으로는 키 큰 미루나무가 외로이 서있다.

도두리 오래물

도두리 북쪽 ‘올레’ 앞에 있는 우물이어서 ‘오래물’이라 한다. 오래물은 도두포구 상류에서 솟는 샘물인데 오방_{午方}(남쪽방향)에서 솟는다 하여 ‘오래물_{午來泉}’이라고도 했다. 중동 마을 중앙 오거리 바다 쪽에 있는 샘물이다.

『증보탐라지_{增補耽羅誌}』에 ‘우래천_{牛來泉}’은 제주읍 도두리에 있다. 샘물 맛이 매우 달고 수맥은 오방_{午方}으로부터 솟는다 하여 ‘오래물’이라 이름 하였다.’고 전한다. 이 ‘오래물_{午來泉}’과 ‘우수동_{牛水洞}’은 같은 명칭의 다른 표기로 보인다. 오래물은 샘의 호칭이고 우수동은 이 물이 있는 마을의 호칭으로 본다.

제주 내천_川에는 흐르는 물이 없다. 모두 건천_{乾川}이다. 비는 많이 오지만 빗물이 모두 땅 속으로 빠지기 때문이다. 지하로 스며든 물이 투수_{透水} 되지 않는 암반층과 만나면 그곳에 고인다. 고인 물이 차올라 넘치게 되고 그 물은 다시 아래로 흘러 바다에 이르러 솟구친다.

바닷가로부터 떨어진 중산간에는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로 수맥이 터지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다. 그렇지 않은 마을인 경우 땅을 파서 수맥을 찾아내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물통’을 마련하였다. ‘목 마른 놈이 물통 판다’라는 제주의 속담은 중산간 마을에서 유래한 속담인 듯하다.

제주의 용천수는 1000여 곳에 이른다. 위치 확인이 가능한 용천수는 661개이고, 이 중 200m 이하 지대의 용천수는 600개에 이른다. 이렇듯, 해안마을은 용천수가 풍부하다. 큰 마을의 경우 용천수가 수 십 개에 이른다. 해안마을의 용천수는 지하 속을 흐르다 나오는 물이기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제주의 강물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제주의 강물은 지하로 흘러 바다에 이르는 것이다.



오래물 1970년대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오래물'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빨래를 하거나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다. 오래물 뒤로 조랑말이 끄는 구루마와 초가집들이 늘어서 있다. 현재는 이곳의 풍부한 용천수를 이용한 도두 오래물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구루마와 췌질메

제주에 살았던 누군가는 바퀴를 이용한 이동 수단을 상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의 지형이 워낙 험악해 대규모 공사를 요하는 도로공사가 선행되지 않은 이상 바퀴를 이용한 이동 수단의 실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제주 '구루마'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구루마는 1921년 신작로가 생긴 이후, 1934년 일본에서 들어왔다. '구루마'라는 말 자체가 일본 말이다. 그 당시 구루마는 도청에 허가를 받아야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물건이었다.

'질메'는 소나 말의 등쪽에 짐을 싣기 위한 도구이다. 말은 '말질메', 소는 '췌질메'를 사용한다. 질메의 역사는 오래 된 듯하다. 제주에 전하는 '호종단 전설'에 췌질메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지장샘'의 수맥을 끊으려 왔던 호종단은 지장샘이 숨어버리는 바람에 실패하고 만다. 지장샘이 숨은 곳이 바로 '췌질메'동산이다. 호종단 전설이 언제 유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췌질메라는 이름은 그 전설만큼 오래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루마와 췌질메 ① 1970년대

한 여인이 소가 끄는 구루마 옆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아래 사진에는 말에 몰질메와 구루마가 메어 있다. 왼쪽 사진 소의 등에는 쉼질메 대신 몰질메가 얹혀 있다. 쉼질메는 몰질메에 비해 크기도 크거니와, 무게도 거의 4배나 무겁다. 소의 등에 있는 질메는 짐 운반이 아니라, 구루마를 걸기 위한 것이다. 기왕이면 가벼운 몰질메를 얹어 주는 것이 소의 고생을 덜어주는 것이다.



구루마와 쉼질메 ㉔ 1970년대

말이 끄는 구루마 위에 한 사람이 앉아있다. 그 주변으로는 마을 공동작업을 하는 듯 주민들이 함께 나서 일을 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초가집

제주도 사람들은 2칸 집을 ‘막살이’라고 한다. 막살이 뒤쪽에 월령리(한림읍) 갯가에 있는 ‘즈럭코지’가 보인다. 즈럭코지는 ‘즈럭’[柄] 모양의 ‘코지’라는 말이다. 즈럭코지는 막살이의 자연적 방파제 구실을 한다. 그래도 막살이는 하니바람이 들어오는 바다를 등지고 남쪽으로 앉아 있다. 바닷가 자갈한 갯돌로 벽담과 울타리를 에둘렀다. 막살이 왼쪽 칸살에 ‘큰방’과 ‘고팡’, 그리고 오른쪽 칸살에 ‘정지’를 배치시켰다. 정지 칸살 앞면에 조금은 내밀듯이 하여 자그마한 칸살을 덧붙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렇게 막살이에 덧붙인 자그마한 공간을 ‘고랑케’라고 한다. 막살이 주인은 고랑케를 땀나му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였을 것이다. 고랑케라는 공간을 거느리고 있는 막살이의 넉넉한 삶의 지혜가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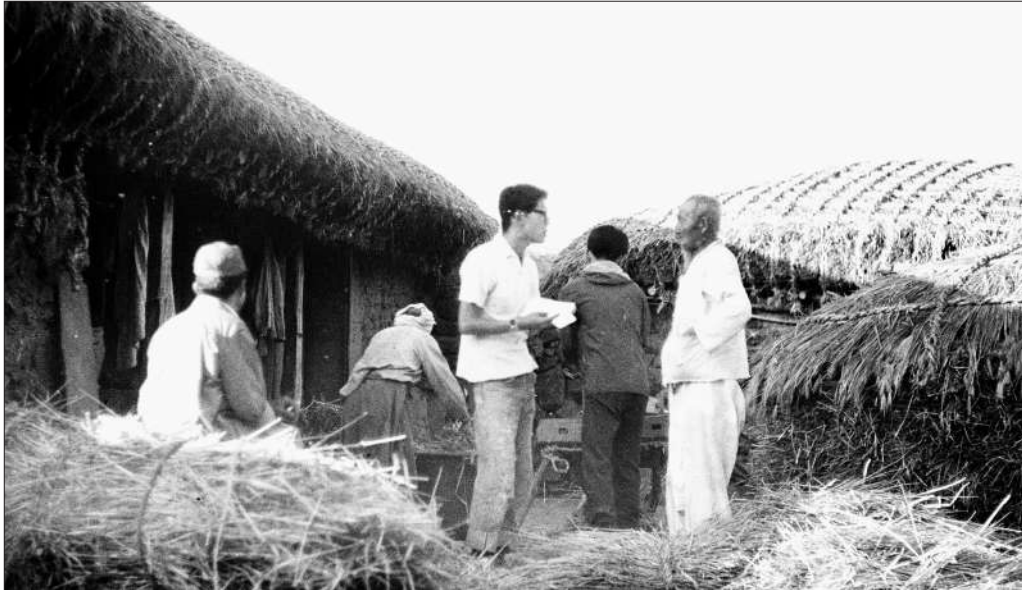
막살이 1970년대

사진 속에 있는 왼쪽 초가집은 마을길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곳에 대문을 배치시켰다. 이때의 대문을 ‘올렛문’이라고 한다. 오른쪽 초가집은 마을길에서 집안으로 연결된 골목 비슷한 길을 배치시켰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런 골목길을 ‘올레’라고 한다. 오른쪽 올레 골목길 따라 들어간 집의 ‘안거리’(안채)는 3칸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집을 삼간집이라고 한다.

삼간집 가운데는 ‘상방’을 배치시켰다. 상방으로 들어가는 앞쪽 문을 ‘대문’이라고 한다. 상방 칸살을 중심으로, 그 왼쪽 칸살 앞면에는 ‘큰방’, 뒷면에는 ‘고팡’을 배치시켰을 것이다. 고팡은 곡물의 저장고라 할 수 있는 방으로 각종 향아리가 옹기종기 열을 지어 놓여 있는데, 그 속에는 그 해에 거두어들인 보리, 조, 콩, 팥 등 1년 수입이 전부 들어 있다. 고팡이 있는 칸살에 큰방을 두는 것은 제주 초가집 평면구조의 고정체계(固定體系)이다. 반면, ‘정지’(부엌) 칸살의 평면구조는 다양한 공간을 배치시키는 비고정체계(非固定體系)이다. 간혹 정지가 있는 칸살에도 방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지 칸살 쪽의 방은 전면이나 후면, 또는 측면에 배치시킨다. 정지 칸살 쪽의 방을 ‘족은방’이라고 한다. 방은 일상적 삶 속에서는 취침, 독서, 휴식의 공간이다. 그러나 제주도 초가집에서 ‘큰방’만은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 공간이면서 출산, 임종 그리고 결혼 때 신부를 맞아들이는 비밀상적 삶의 신성한 공간이기도 하다.



삼간집 1970년대



마당 1970년대

어느 초가집 마당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보리를 훑고 있다. 현용준의 제주도 초가집 마당에 대한 다음의 글(『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1931, 323쪽)이 떠오른다.

농가에서 마당처럼 중요한 곳은 없다. 모든 일이 거의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보리를 베어 들여 임시로 부리는 곳도 마당이고, 그 보리를 타작하는 곳도 마당이다. 조를 베어 들여 놓은 곳도 마당이고, 조의 이삭을 끊어내는 곳도 마당이다. 그 조를 타작하여 장만하는 곳도 마당이고, 마소의 풀을 처리하는 곳도 이 마당이다. 모든 농삿일이 이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당은 넓고 단단해야 하고 흰칠하게 만들어야 한다.



구루마 집 1970년대

제주도에는 원래 마차가 전승되지 않았다. 제주도 화산섬 바윗돌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921년에 제주도 일주도로가 열리면서 운반과 교통수단으로 자동차와 함께 달구지가 보급되었다. 제주도 사람들은 달구지를 '구루마(くるま)'라고 하였다. 제주도 구루마는 일본열도에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구루마를 보관할 장소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의 집을 '구루마 집'이라고 하였다. 구루마 집에는 구루마가 들어가 있고, 구루마 위에는 질메(길마)도 놓여 있다. 구루마와 질메는 마소의 힘을 이용한 운반도구이다.

어느 늦가을 마을길에서 세 사람이 ‘새’[茅]를 등에 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한반도와 그 주변 사람들은 벧짚으로 겨울나기용 소죽 재료와 지붕을 이는 재료를 마련하였지만, 논이 귀한 제주도 사람들은 겨울나기용 마소의 먹이인 ‘출’과 지붕을 이을 ‘새’를 밭에서 마련하였다. 출을 키워내는 밭을 ‘출밭’, 새를 키워내는 밭을 ‘새밭’이라고 하였다. 새밭은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는 등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장마 때 억새를 베어내 버리면 억새의 뿌리는 저절로 삭아들기도 하였다. 나머지 잡초는 숙전에서 김매듯이 ‘굴갱이’로 뽑아냈다. 그리고 잡목 뿌리는 팽이로 파냈다.

새밭 수확은 음력 1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새밭 1천 평에서 새 30바리 정도가 생산되었다. 새 30뭇을 1바리라고 하였으니, 1천 평의 새밭에서 거의 900뭇의 새가 생산되었다.

새는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새의 길이가 1m 안팎의 것을 새, 그리고 60cm 안팎의 것을 ‘각단’이라고 하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새로 지붕을 덮고, 또 각단으로 ‘집줄’을 꼬아 ‘井’ 자 모양으로 엮어 묶었다.



새 윤반 1970년대



집줄 놓기 ① 1970년대

제주도 사람들이 지붕에 ‘새’를 두껍게 펴 덮고, 그것을 바람에 날리지 않게 가로, 세로로 묶어 주는 줄을 ‘집줄’이라고 한다. 집줄은 길이에 따라 ‘진줄’과 ‘쫓른줄’이 있다. 집줄 엮기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쳤다. 한 사람이 ‘각단’을 먹여나가는 대로, 한 사람은 ‘호롱이’를 빙빙 돌리며 앞으로 꼬아 나갔다. 이때의 집줄 직경은 1.5cm 안팎이었다. 이 일을 두고 ‘줄 놓는다’라고 하였다. 한 남정네가 각단을 먹여나가는 대로 한 사람은 호롱이를 돌리며 앞으로 집줄을 꼬아 나가고 있다.



집줄 놓기 ② 1970년대

한 사람이 각단을 먹여주는 대로 한 사람은 호롱이를 돌리며 앞으로 꼬아나가고 있다. 호롱이는 대나무나 막대로 기둥을 만들어 빙빙 돌리며 집줄을 놓을 때 쓰는 도구이다. 제주도에서 호롱이가 땅에 닿지 않게 짧게 만든 것과 땅에 닿게 길게 만든 것이 동시에 전승되고 있는데, 제주도 동부 지역에서는 짧은 호롱이, 그리고 제주도 서부 지역에서는 긴 호롱이가 전승되고 있다. 사진 속의 호롱이는 기둥이 땅에 닿게 길게 만든 것이다.



집줄 어울리기 ㉠ 1970년대

집줄 엮기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한 사람이 각단을 먹여나가는 대로, 한 사람은 호롱이로 돌리며 앞으로 꼬아 나간다. 이때 줄의 직경은 1.5cm 정도이다. 이 일을 ‘줄 놓는다’고 한다. 이렇게 엮은 두 개의 줄이 한 몸이 되게 다시 엮는데, 이 일을 ‘줄 어울린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직경 2.5cm 정도의 집줄이 탄생된다. 지금은 집줄을 어울리고 있는 중이다.

집줄을 꼰 적에 이미 꼬아놓은 두 개의 줄을 더 굵고 단단하게 꼰 수 있게 만든 막대기를 ‘뒤치기’라고 한다. 뒤치기를 ‘구레’(멧돌) 구멍에 끼우고 세워놓았다. 한 남정네는 뒤치기 뒤에서 집줄이 되게 막대기를 돌려가며 꼬아주고 있고, 한 남정네는 앞으로 나가면서 두 개의 줄을 어울리고 있다. 이때 앞에서는 두 사람이 호롱이에 두 개의 줄을 각각 하나씩 끼우고 돌려준다.



집줄 어울리기 ② 1970년대

한 남정네는 뒤치기 뒤에서 집줄이 되게 막대기를 돌려가며 꼬아주는 대로 한 남정네는 앞으로 나가면서 두 개의 집줄을 어울리고 있다. 이때 두 아낙네는 호롱이에 두 개의 집줄을 각각 하나씩 끼우고 돌려주어야 한다.



집줄 놓기와 어울리기 ① 1970년대

남정네 두 사람이 각각 집줄을 놓고 있고, 남정네 두 사람과 아낙네 두 사람이 집줄을 어울리고 있다. 집줄을 놓아가는 대로 집줄을 어울리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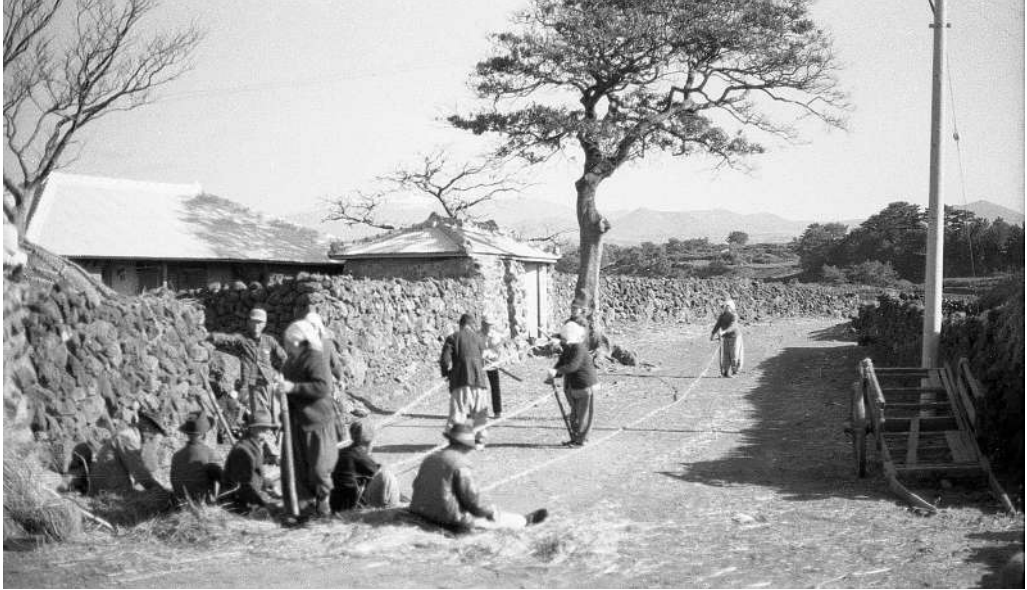
집줄 농기와 어울리기 ② 1970년대

돌담 아래 앉아 있는 한 남정네가 각단을 먹여가는 대로 한 남정네는 호롱이를 돌려가며 집줄을 놓고 있고, 그 옆에 한 남정네가 뒤치기 뒤에 앉아 집줄이 되게 막대기를 돌려가며 집줄을 어울리고 있다.



집줄 놓기와 어울리기 ③ 1970년대

돌담 가까운 쪽에서 남정네 한 사람이 각단을 먹여가는 대로 아낙네 한 사람은 호롱이를 돌려가며 집줄을 놓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두 남정네도 똑같은 방법으로 집줄을 놓고 있다. 남정네 네 사람은 서로 힘을 모아 집줄을 어울리고 있다. 집줄을 놓아가는 쪽쪽 어울리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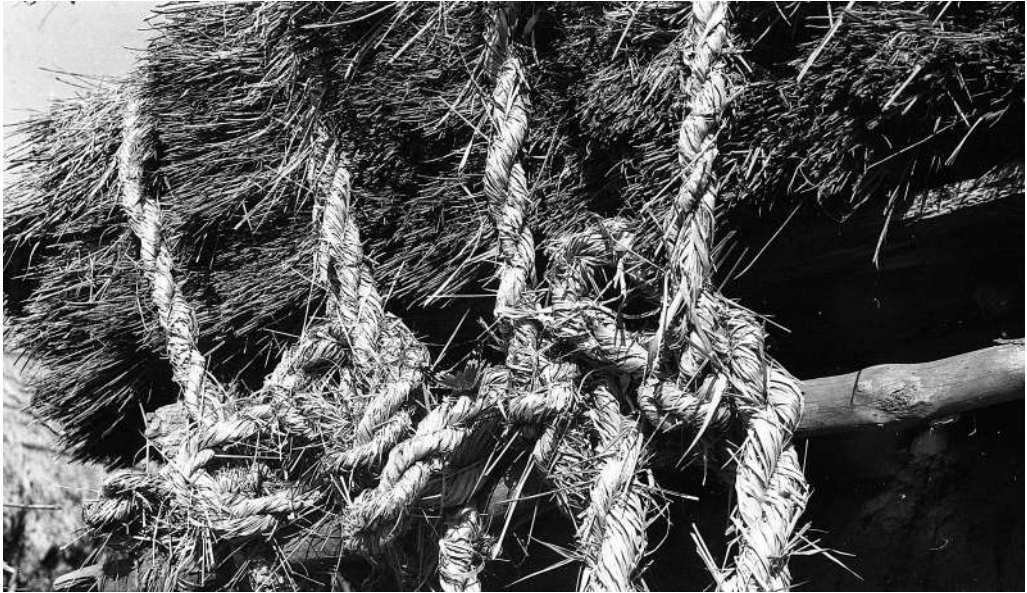


집줄 놓기와 어울리기 ④ 1970년대

남정네 한 사람과 아낙네 한 사람이 각각 한 조를 이루고 집줄을 놓아가는 대로 남정네 네 사람은 한 조가 되어 집줄을 어울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집줄이 완성된다.

초가지붕에 ‘새’를 이는 일을 ‘새 깎다’고 한다. 이는 ‘새를 펴 놓는다’는 말이다. 새를 까는 일은 시계바늘 돌듯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처마 끝에서부터 초가지붕의 마루 쪽으로 차차 올라가며 깔아나갔다. 또 새는 잎사귀가 초가지붕 아래로 향하게 깔아나갔다. 다만, 새가 녹아들어가 꽤 인 데는 줄기가 아래로 향하게 깔아놓고 다시 그 위에 새의 잎사귀가 아래로 향하도록 다시 깔아주었다. 햇볕이 강하게 쨍쨍 내려쬐는 날에는 깔아놓은 ‘새’는 말라들면서 사람이 지붕 위를 걸어 다니기가 어려울 만큼 잘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이럴 때는 가끔씩 새 위에 물을 뿌려주기도 하였다.

제주도 초가집 지붕이기는 1년 1회 지역과 2년 1회 지역이 동시에 분포하였다. 제주도 초가집 지붕이기 2년 1회 지역에서는 지붕이기를 하지 않는 초가집 지붕 한쪽에만 집줄을 묶어두는 경우도 있었다. 사진 속의 초가집 지붕은 1년을 더 버텨 2년을 채우려고 4개의 ‘집줄’만 바람 타는 쪽에 묶어놓았다.



집줄 1970년대

어로

제주의 해안 지형은 한라산의 화산활동과 용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용암은 바다의 지형을 결정하기 이전에 물의 지형을 결정하고서 바다로 흘러 내렸다. 강수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제주에서 논농사가 어려운 이유는 물이 쉽게 빠져나가는 용암지대의 특성 때문이다. 제주는 결국 밭농사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어느 지역이건 밭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거름이다. 제주의 토양은 대부분 부박하여 곡식 소출량이 낮았다. 최대한 땅을 확보하여 생산량을 늘려야 했다. 농토가 늘어난 만큼 필요한 거름의 양도 늘어났다. 이것이 제주 밭농사에서 거름이 절박했던 이유이다. 제주의 주요한 거름은 ‘똥거름’, ‘쇠거름’ 그리고 ‘듬북’(거름용 해조류)이다. 일가一家の 1년 식량을 충당하기에 똥거름, 쇠거름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거름 보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동원되었고 그 중 가장 유용했던 것은 듬북이었다. 1년에 두 차례 다량의 채취가 가능한 듬북은 ‘거름콩’에 비견될 만큼 양질의 거름이었다. 제주 밭농사의 주요 작물인 보리, 조, 메밀 성장의 절반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듬북이 키워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듬복놀이 1970년대

거름용 해조류를 '듬복'이라 한다. 산남 지역에서는 '뭍망'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 듬복을 채취한 것을 말리고 '놀이'을 쌓은 후 '주쟁이'를 씌워서 보관하고 있다.

제주 사람들은 조간대의 해안을 ‘갯곳’이라 부르고, 갯곳에서 수심 20~40m의 점심대를 ‘걸바당’이라고 부른다. 화산활동 당시 용암이 완만하게 흐른 산북 지역에는 걸바당이 2km에 이르는 곳이 있고, 경사가 급한 산남지역에서도 400~500m까지 걸바당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드넓은 화산암반 지대와 연평균 20℃ 안팎의 따뜻한 제주바다가 만나면서 풍족한 바다자원이 형성된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바다의 일터를 ‘바다밭’(바다밭)이라 부른다. 물의 밭과 바다밭에서는 협력을 통한 공동작업이 이루어졌다. 물의 밭의 경우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 공동작업이라면 바다밭의 경우는 ‘상호보호’ 차원의 공동어로가 요구되었다. 물론 바다밭 자체가 마을의 공유지이기도 했지만, 시시각각 바뀌는 바다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상호간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동어로가 성공을 위하여 소통의 기본은 언어이고 이름이다. 그러므로 바다밭 이름은 공동어를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갯곳에서 걸바당에 이르는 드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바다밭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풍향, 조류, 지형지물, 수산물 종류 등 바다 상황의 복잡함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화산섬에 살아야 하는 제주인은 물의 열악함을 보완하기 위해 세대를 이어 ‘바다밭’을 일구어 왔던 것이다.



‘포래’말리기 1970년대

종달리 ‘조개왓’이다. 사진 앞부분에 앉아 있는 사람은 ‘포래’를 말리고 있다. 주변의 풀과 포래가 잘 구분되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가지런히 정돈한 포래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포래는 말려서 거름으로 사용했다.

‘허채’와 ‘금채’

사진 상단 바다에 떠있는 까만 점들은 ‘테왁’(해녀들의 잠수도구)이다. 테왁이 떠있는 것으로 보아 해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해녀들이 해산물 채취를 위해 잠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 중앙을 보면, 한 무리의 해녀들이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같은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데 물질하는 시간이 다르다. 지금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과거에는 이와 달랐다. 과거에 행해지던 ‘미역조문’(미역을 채취하는 일)이나 ‘듬북조문’(듬북을 채취하는 일)은 마을에서 ‘허채許菜’가 떨어진 후 동시에 물질을 시작하여 동시에 물질을 끝내는 것이었다. ‘금채기禁菜期’에는 어느 누구도 물질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한 무리가 물질하는 동안 다른 무리가 갯가에 머무는 일은, 과거의 바다에선 보기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허채와 금채 ① 1970년대

바다에 점점이 테왁이 떠있는 것으로 보아 해녀들이 물질작업을 하고 있다. 물에서는 한 무리의 해녀들이 이를 지켜보며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 당시 전복, 소라, 해삼 등을 잡는 것을 해녀들은 ‘헛물애질’이라고 불렀다. ‘헛물애’가 ‘미역조문’이나 ‘듬복조문’에 비해 중요하지 않기에 그리 불렀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헛물애’는 마을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오늘날 ‘미역조문’과 ‘듬복조문’이 자취를 감춘 지는 오래 되었다. 요즘 해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헛물애에 집중한다. 전복, 소라, 해삼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허채와 금채는 남아있다.

어느 시기에나 바다밭의 주요 자원에 대한 접근은 마을의 자율적 규약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는 해녀 구성원들에게 자원에 대한 접근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이며, 한정된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일이다. 허채와 금채는 마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자치自治’의 노력이다.



허채와 금채 ② 1970년대

구좌읍 종달리 지경으로 사진 상단 왼쪽으로 소섬, 즉 우도가 일부 보인다.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자리

자리는 아열대성 물고기이다. 일본에서는 류큐열도琉球列島와 일본 중남부지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를 중심으로 하여 거문도와 독도에서 자란다. 그러니 제주도는 자리 분포지역 중 가장자리에 있는 셈이다.

제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물고기를 좋아하여 어획 대상으로 삼아왔다. 제주 사람들은 자리를 가지고 젓, ‘물회’, 강회를 만들어 먹는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 따르면, 1908년에 제주도에 282개의 자리그물이 있었다고 했다.

생후 1년의 자리와 2년의 것이 산란기가 조금 다르다. 두 살짜리 자리의 산란기는 음력 4~5월, 그리고 한 살짜리 자리의 산란기는 음력 7월이다. 앞의 것을 ‘창자리’, 그리고 뒤의 것을 ‘부종끗자리’라고 한다. 여름농사의 으뜸인 조 파종은 소서(7월 8일 경) 무렵에 이루어졌고, 그 후에 산란하는 자리를 부종끗자리라고 했을 것이지만, 창자리의 의미는 알 수 없다. 그 외에도 자리는 성장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알찬자리: 음력 5~6월 동안에 배 가득 알이 차 있는 자리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쉬자리: 음력 7~8월 사이에 잡히는 25mm 안팎의 자잘한 자리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쉬’는 이의 알의 뜻을 지닌 제주어다.

*거죽자리: 음력 7월 이후 산란하고 난 자리가 가죽만 남은 듯이 살이 쪽 빠지어버린 여윈 자리다. 거죽자리는 맛갈도 푹 떨어지기 마련이니, 자리를 잡는 철은 음력 4~6월 산란기에 쏠린다.

제주도에서 보통 자리그물을 ‘사들’이라 한다. 제주도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자리그물이 확인되는데, 어구漁具에 따라 어법漁法이 조금씩 달랐다.

- ㉠ 손잡이와 그물이 분리된 사들: 배를 타고 나가지 않고 ‘갯갯’ 바다밭 중 수직적 나눔이 거의 불가능한 ‘덕’에서 자리를 잡는 그물이다.
- ㉡ 손잡이와 그물이 분리 안 된 사들: 그물과 손잡이가 분리 안 된 것으로 ‘국자사들’(또는 ‘죽력사들’)이라 한다. 한마디로 ‘죽바지’형 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단지 손잡이와 그물이 기역(ㄱ) 자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를 뿐이다.
- ㉢ 돛대에 그물을 고정시킨 사들: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돛대를 손잡이로 삼고 거기에다 걸어 그물을 바닷물 속으로 드리우고 떠올리며 자리를 잡아나가는 ‘사들’이다.



자리돔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1970년대

사람들이 '자리'를 사기 위해 '터우' 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 '자리'는 여름철 제주 사람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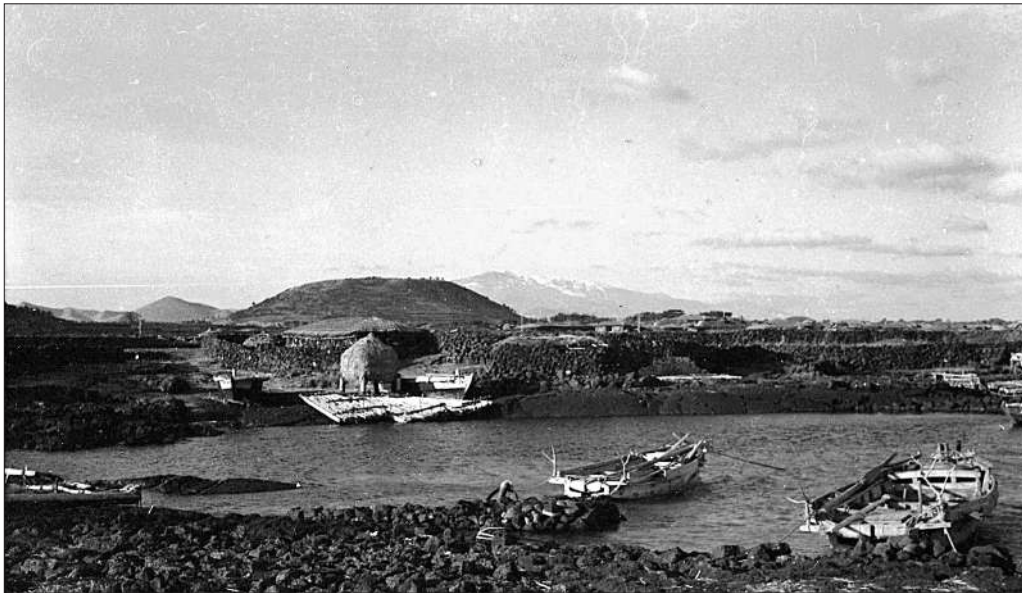
그물살레

후릿그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그물살랑’이라고도 한다. ‘후릿그물’의 여기는 여름과 가을인데, 그 이외 기간에는 후릿그물을 잘 보관해야 한다. 비를 맞아 그물이 썩어 버리거나 또 쥐가 그물을 쏘지 않게 잘 간직해야 한다. 후릿그물 위에 ‘늑람지’를 휘두르고, 다시 ‘주쟁이’를 덮은 것은 비를 막기 위해서다. 4개의 돌기둥에는 그 당시만 해도 손쉬운 물건이 아니었을 시멘트를 발랐다. 이는 쥐가 쉬 기어오르지 못하게 돌기둥에 막힌 송송한 구멍을 메워 버리려고 애쓴 흔적이다.



그물살레 ① 1970년대

포구 주변에 그물살레 3채가 서있다. 그물살레 뒤로 띠로 단단히 엮어맨 초가가 보이고, 조그만 포구에는 나무배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구좌읍 김녕리에 있던 포구 주변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그물살레 ② 1970년대

나무배가 정박중인 포구 주변에 그물살레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 중앙에 보이는 오름은 김녕리에 있는 입산봉이다. 입산봉 뒤로는 한라산이 보인다. 현재 해수욕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성세기 해안 인근의 포구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그물살레 ③ 1970년대

그물살레 ①, ②와 연속된 사진이다.



섬으로 물질 나가는 해녀들 1970년대

해녀와 어부가 작은 배에 몸을 실었다. 배는 포구를 떠나 인근 섬으로 갈 것이다. 해녀들은 섬에 내려 물질을 할 것이고, 어부들은 섬 주변 어장에서 고기를 잡을 것이다. 어부는 해가 떨어질 무렵 섬에서 물질하던 해녀를 태우고 다시 이 포구로 돌아올 것이다. 이 작은 배의 목적지는 '비양도'이다. 비양도는 한림읍 9개 마을(금동리, 판포리, 월령리, 협재리, 웅포리, 한림리, 한수리, 수원리, 귀덕리)이 관리하는 '공존共存'의 '바다밭'이 드넓다.



종달리 생개남돋짓당 1970년대

생개남돋짓당은 종달리 포구 북쪽 ‘새개’와 ‘작지’ 사이에 있다. 밀물 때는 바닷물에 둘러 싸이고, 물이 빠지면(빠지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갯바위에 마련된 작은 당龕이다. 돌 틈에 ‘개팡낭’이 자라고 있다. 나뭇가지 사이에는 ‘백지’와 ‘물색’이 걸려 있다. 땅사리에 ‘요망진’ 것들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해녀들이 기도하며 걸어놓은 것이다.

과거 제주의 소녀들은 14살에 첫 물질을 했다. 18살이면 상군 해녀가 되었고, 시집가서 애를 낳고는 ‘따렌’, ‘칭따오’, ‘블라디보스토크’로 ‘출가물질’을 떠났다. 먼 바다로 떠났던 해녀가 나이가 들어 돌아오면 ‘할망바다’에서 굶은 허리로 물질을 했다. 해안마을 종달리 할망들은 평생 ‘생개남돋짓당’에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 맨 손으로 일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기도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응원이었을까? 40년이 지난 사진이니, 지금 ‘생개남돋짓당’의 ‘개팡낭’도 허리가 많이 굽었을 것이다.

상량식 上梁式

상량上樑은 건물의 골격에서 최상부인 대들보를 올리는 일이다. 대들보는 지붕을 지탱하는 골격으로 건물의 구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상량의 단계는 집 공사 과정 중 가장 어려운 단계를 마쳤다는 뜻이다. 이제 큰 고비를 넘겼으니, 공사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고 목수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상량식을 치렀다. 상량식 관련 사진들은 모두 1974년 10월 13일 촬영됐다.



상량식 ① 1974년 10월 13일

일반적으로 대들보 양 끝에는 화재 방지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물수의 상징인 용龍과 귀뿔을 적었다. 이 사진 속 대들보에는 龍과 虎가 적혀 있는 것이 특색이다. 한문으로 서기 1974년 10월 13일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상량식이 열린 날짜다.

‘성주풀이’는 집을 신축하거나 이주하여 입주할 때 치르는 곳이다. 가택신(家宅神)인 ‘성주신’을 모셔 좌정을 청하고 집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祭儀)이다. 강정식은 『제주도 성주풀이』(2013)에서 1980년대 제주시내에서 ‘성주풀이’가 성행하였는데, 제주시 인구 증가와 제주시 경제 성장을 그 이유로 들었다.²⁾ 1970~80년대는 제주시의 유입 인구가 폭증할 때이다. 그들의 주요 정착지는 제주성 외곽 지대였다. 이때부터 제주성의 동쪽 건입동과 일도2동, 서쪽 용담1, 2동, 남쪽 삼도1동, 이도2동은 제주시내권이 되었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사진 속의 인물들은 상량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진이 촬영시기가 70년대이고, 사진 속에 ‘칼호텔’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집은 “제주시내에서 성주풀이가 성행”하던 바로 그 시기에 제주시로 이주를 준비하는 가정임을 알 수 있다. 칼호텔 건물의 방향과 거리로 보아 이 집의 위치는 ‘이도2동’ 인근으로 보인다.

2) 강정식, 2013, 『성주풀이 자료 개요』 『제주도 성주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p8



상량식 ② 1974년 10월 13일

집이 완공되기 직전에 '상량식'을 하고, 입주 후에는 성주풀이를 한다. 상량식과 성주풀이는 입주 전과 후로 치러지는 제의祭儀의 연속적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진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집이 완성된 후 치르게 될 성주풀이를 미리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성주풀이의 제차祭次는 삼석울림으로 시작하여 초감제-추물공연-강태공수목수-문전본풀이-각도비넴-액막이-도진으로 마무리 된다. 부종휴 선생이 촬영한 사진 속의 상량식 장면들을 중심으로 성주풀이의 제차를 3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서序-신을 청하여 모시고 곳을 하는 연유를 신에게 고하는 단계
- ② 본本-가택신을 모시고 집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단계
- ③ 말末-액막이를 하고 좌정했던 신을 돌려보내는 단계



상량식 ③ 1974년 10월 13일

사진 속 제사상의 아래에는 ‘축문’이 접혀있고, 그 위에 ‘꽃’이 두 개 놓여 있다. 사진의 하단에는 ‘닭’이 보인다. 그리고 ‘대들보’가 사진 왼쪽에 놓여 있다. 꽃과 닭은 육지와는 달리 제주의 성주풀이에만 나오는 제의적 상징물이다. 꽃, 대들보, 닭은 성주풀이 제차에서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을 알리는 상징물들이다. 이는 상량식이 성주풀이의 예고편 혹은 요약본임을 말해주고 있다.

① 서序-신을 청하여 모시고 굿을 하는 연유를 신에게 고하는 단계



상량식 ④ 1974년 10월 13일

‘성주상’을 차리고 제를 올리고 있다. 준비한 꽃을 성주상에 마련된 ‘쌀그릇’에 꽂는다. 이 꽃을 ‘성주꽃’이라 부른다. 성주꽃은 말 그대로 성주신의 꽃이며 성주신의 상징인 것이다. 성주신을 제장祭場으로 청하여 모시고 성주신에게 제를 올리는 연유를 고한다.

② 本本-가택신을 모시고 집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단계



상량식 ㉟ 1974년 10월 13일

성주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제차이다. 제차는 ‘강태공목수’, ‘문전본풀이’, ‘각도비념’으로 이어진다. 이 중 ‘강태공수목수’가 등장하는 제차를 살펴보자. 강태공수목수는 제장祭場에 등장하여, 서울의 열녀문, 남대문, 동대문, 창경궁을 자기가 만들었다며 자신의 능력을 뽐낸다. 집 안을 돌아다니며 ‘영등산 덕든 남 베자’라는 노래를 부른다. 집 안 구석구석에 있는 나무에 도끼질하는 시늉을 한다. 이는 집을 짓기 위해 ‘한라산의 덕든 나무’를 베어내는 상징적 행위이며, 동시에 집안의 동티를 제거하는 제의적 행위이다. 한라산에서 나무를 장만한 강태공수목수는 제장에 좌정하여 모형 집을 짓기 시작한다. 재료는 대나무를 쪼개어 만든 댓가지이다. 사과와 배를 둘로 쪼개 네 귀퉁이에 얹어 놓고 이는 주춧돌이 된다. 사과와 배에 댓가지를 꽂고 4개의 기둥을 만든다. 기둥 위에 가로, 세로로 댓가지를 놓고 서리와 들보로 삼는다. 가운데 대들보 자리를 남겨두었다가 댓가지 양 끝에 백지를 묶어 위로 들어 올릴 준비를 한다. 상량식이 재현되는 대목이다.



상량식 ㉞ 1974년 10월 13일

상량하기 전에 가족들이 몰려와 지폐를 꺼내어 인정을 건다. 인정을 모두 걸면 댓가지를 들어 올려 대들보 부분에 걸친다. 상량이 끝나고 심방은 문전으로 나가 대주(굿을 청한 집주인)의 성명과 함께 “입주상량 立柱上樑이요”라고 세 번 외친다.

③ 말末-액막이를 하고 좌정했던 신을 돌려보내는 단계



상량식 ㉞ 1974년 10월 13일

심방은 입주상량立柱上樑을 고한 후, 닭을 들고 문전 밖으로 내던진다. 닭을 제물로 바쳐 액막이를 하는 것이다.

성주풀이 중 사진 속 상량식에 빠져 있는 제차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강태공수목수’는 성주신이 집안에 좌정하도록 청하는 제차이다. 하지만 가택신은 성주신만 있는 게 아니다. 성주신 이하 정주신, 문전신, 뒷문전신, 조왕신, 측간신 등 많은 신들이 대기하고 있다. 나머지 신들의 좌정은 ‘강태공수목수’ 다음 제차인 ‘문전본풀이’에서 이루어진다. 문전본풀이가 끝나면 ‘성주꽃’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태운다. 그 다음 ‘각도비념’이 진행되고 곳은 마무리 단계로 넘어간다. 액운을 막아달라고 기원하는 ‘액막이’, 그리고 신들을 돌려보내는 ‘도진’을 끝으로 성주풀이는 마무리 된다.

이상의 성주풀이에 근거하여 사진 속의 상량식을 해설하자면 다음과 같다.

- ① 성주상을 차려 성주신과 그 이하 모든 가택신을 청하여 모신다.
- ② 앞으로 신들을 모시게 될 집을 미리 소개한다.
- ③ 잔치를 벌여 신들을 기쁘게 한다.
- ④ 신들에게 집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한다.
- ⑤ 닭의 대명대충代命代充을 통해 액막이를 한다.



상량식 ⑧ 1974년 10월 13일

지금 잔치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날 상량식에 초대된 신神들의 표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神들은 인간들이 차린 술과 음식을 흠향敬饗하면서 이 집의 안녕을 약속하고 있을 것이다.

강정식은 『제주도 성주풀이』(2013)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성주풀이는 과거에도 그다지 자주 벌어지는 의례는 아니었다. 이어나 신축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참 사람들의 이주가 빈번해지고 도시가 확대되면서 이사와 신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야말로 성주풀이가 성행하던 때이다. 그러나 점차 공동주택이 늘고 무속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성주풀이의 기회도 줄었다.”³⁾

위의 말을 좀 과장한다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1970~80년대 제주시에 성행했던 성주풀이는 ‘전례 없는 사회현상이다.’ 아니, ‘전통문화에서 현대문화로,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발생했던 전무후무한 사회현상이다’라고.

3) 강정식, 2013, 「성주풀이의 의례적 특징」 『제주도 성주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p353



상량식 ㉠ 1974년 10월 13일

이 집이 친인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다. 입가에 머금은 옅은 미소 속에 막연한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의 나무는 별목의 대상에 불과하지만 그때의 나무는 베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 존재였다. 그때의 인간은 세계가 허락한 자리에 거했지만, 지금의 인간은 세계 위에 군림하고 있다.

1970~80년대 제주시에 성행했던 '성주풀이'는 제주시만이 아니라 제주의, 나아가 한국의 문화적 이행기에 벌어졌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진입을 알리는 일대 사건이었던 것이다.

시장

제주도는 시장이 없었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기록을 따른다. 본래 가게가 없고 또한 저자도 설치하지 않는다. 만약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가지 못한 물건을 바꾸고 싶으면 마을과 마을을 드나들며 찾아가서 사고팔고 한다(隨錄. 本無塵肆亦不置場. 若欲以有易無則出入村間訪問買賣).

유한명¹이 목사를 할 때 관덕정에 시장을 설치하려 했다. 감독자를 정하고 매일 불러 모았으나, 사람들이 각자 소유한 물건을 겹겹이 묶어서 굳게 감추고 내놓지 않았는데 지역마다 다 그랬다. 종일 시장을 열었으나 한 물건도 교역하는 자가 없이 해가 지면 시장을 거두고 돌아갔는데 다음날도 또 그랬다.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관의 명령이 지엄하기 이러하니 다음 장에는 점고나 받아 보자 하였다. 가지고 온 물건을 주인의 집에 걸어놓고 가 버렸다. 시장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았다(牧使柳漢明時, 欲置市場於觀德亭. 定監考排日招聚, 而民各以所持之物重重結束堅藏不出面面相然. 終日開市無一物交易者日暮罷歸後日又如此. 民人相與語曰, 官令至嚴當以此後場逢點. 以其所持之物懸於主人家而去. 場市之不可成乃如是).

유한명¹柳漢明은 조선 중기 무신으로 1696~1699년에 제주목사를 역임하였다.

제주에 시장은 없었다. 하지만 물물교환은 이루어졌다. 물물교환의 사례를 보자.

① ‘웃드르’와 ‘알드르’의 경우이다.

‘웃드르’(중산간마을)는 해산물이 필요했고, ‘알드르’(해안마을)는 농산물과 지붕의 재료인 ‘새’, 그리고 소의 사료인 ‘출’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웃드르’와 ‘알드르’ 사이에 물물교환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알드르’는 ‘새’와 ‘출’을 ‘웃드르’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알드르’의 경작지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풍경 ① 1970년대

어느 장날 풍경이다. 조랑말이 끄는 구루마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물건을 고르고 흥정하고 있다. 주변으로도 물건을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길 옆에 앉아서 물건을 파는 모습도 보인다.

② ‘서촌’과 ‘동촌’의 경우이다.

제주의 토양은 거칠다. 특히 제주 서촌의 토양은 매우 조밀하고 딱딱하다. 밭을 갈기 위해 튼튼한 쟁기가 필요했다. ‘성애’와 ‘몽클’은 쟁기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므로 목질이 단단한 가시나무로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가시나무는 서촌에서 잘 자라지 않았다. 상록수림이 많은 동촌의 ‘선흠사람’들은 가시나무로 성애와 몽클을 만들어서 서촌에 가서 팔고 보리를 받아 왔다. 서촌은 동촌보다 보리가 잘되는 지역이었다.

③ 제주와 육지의 경우이다.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의 저서 『경세유표經世遺表』에는 ‘한반도 사람 반이 제주미역을 먹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968년 부산에서 미역 양식이 성공하기 이전까지 제주는 미역의 주산지(主產地)였으며, 사람들에게 미역은 현금과도 같았다. 제주 사람들은 배에 미역을 싣고 육지로 나가 쌀, 소금, 면포 등 생활물품과 교환하였다.

과거 제주의 마을은 대부분 자립적 경제구조를 유지했지만 필요한 물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① 생산양식이 서로 다른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간의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② 자연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도구 제작의 지역 편중 문제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교류는 드물게 이루어졌다. ③ 생산양식이 유사한 해안마을 간의 교류나 중산간마을 간의 교류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제주에서 생산이 어려운 물품은 육지와 교류를 통해 구입했다.

제주도 내의 오일장은 1906년 윤원구尹元求 군수가 부임해 오면서, 도민들의 물자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당시 제주읍내를 비롯한 이호, 외도, 애월, 삼양, 조천, 김녕, 세화, 서귀포 등에 9개 지역에서 오일장을 개설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⁴⁾

제주 오일장의 형성 전후에 있었던 제주사회의 주요 변화는 ① 1912년 도로정비사업, 1914년 일주도로 착공 ② 1934년 이동수단인 구루마 유입 ③ 도내 인구의 증가 등이 있다.

4)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주 일제시대 오일시장’



시장풍경 ② 1970년대

물건을 실은 구루마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한 여인이 물건을 흥정하는 모습을 일단의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시장풍경 ③ 1970년대

쌀이 귀했던 시절 제주에서는 보통 보리나 옥수수 등을 이용하여 평튀기를 해서 간식으로 요긴하게 먹었다. 간혹 평튀기 장수가 마을에 찾아오는 날이면 동네 꼬마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기 일쑤다. 한 여인이 평튀기를 하기 위해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팽나무 아래서는 이를 지켜보는 어린아이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이다.



시장풍경 ④ 1970년대

떠약벌이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빙수를 파는 파라솔 주위로 동네 아이들이 모여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다. 파라솔 앞에는 아이스끼끼통을 어깨에 멘 한 소년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여름철이 되면 아이스끼끼! 하고 외치면서 동네를 다니며 아이스크림을 팔던 일이 흔했다.

1970년대

한반도와 그 주변 도서지역에는 한반도와 지질구조가 비슷한 대륙도大陸島, 그리고 화산으로 이루어진 화산도火山島가 있다. 한반도 주변에 몰려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은 대륙도, 비교적 멀리 떨어진 제주도는 화산도이다.

제주도를 사람의 몸에 견주면 화산회토火山灰土는 살, 화산암火山岩은 뼈, 그리고 건천乾川과 바다는 동맥이다. 제주도민들은 화산회토의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왔고,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산과 들에서는 방목, 수렵, 채집활동을 펼쳐 왔으며,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 물고기잡이, 해조류 채취, 그리고 소금을 만들어왔다.

제주도는 그 주변의 자연풍토와 썩 달랐기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의 자연풍토에 맞는 삶을 창조하고 계승하여 왔으니 제주도민들의 삶의 문화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만하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① 1970년대

마을길을 넓히는 공사가 한창이다. 바다의 돌을 옮겨 마을길 확장 공사에 쓰이고 있다.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경운기 도입, 저가 비료공급, 미역 양식 등 1970년 전후로 일어난 산업사회의 양식은 제주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이때부터 제주도의 전통적인 문화도 차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인분(人糞)의 쓰임을 놓고 보자. 한반도 사람들에게 있어 인분은 비료였으나 제주도 사람들에게 있어 인분은 돼지의 사료였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도민들은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똥 돼지’라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제주도다운 삶의 문화를 영위하여왔다.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의 자연풍토에서 창조하고 계승하여 온 삶의 문화, 이것이 제주도민의 생활사다. 전통적인 제주도민의 생활사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제주도의 산과 들에서는 우마(馬牛)의 방목, 밭에서는 곡식, 목초, ‘새’(띠) 재배, 그리고 바다에서는 어부들의 물고기 잡기와 해녀들의 어패류(魚貝類) 따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무렵의 제주도는 원초 경제 사회였다. 그후 제주도에도 경운기가 도입되어 1968년 9월 21일, 제주도에서 최초로 경운기 기술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소(牛) 대신 경운기로 밭을 가는 시대의 출발점이었다. 이제는 소가 필요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으니, 소의 월동 사료를 마련하였던 ‘출왓’도 필요 없게 되었다. 1970년에는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이 일어났다.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이름하에 ‘새벽종’ 소리와 함께 마을길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다. 초가지붕은 슬레이트지붕으로 바뀌어갔다. 서서히 초가지붕을 이는 재료를 마련하였던 ‘새왓’도 필요 없게 되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② 1970년대

마을길 넓히는 공사에 나선 주민들이 바닷가에 앉아 잠시 쉬고 있다. 도로공사에는 바다의 돌을 옮겨 이용하기도 했다.

출왔과 새왔을 경운기로 개간하여 밀감나무를 심어나갔다. 자본가들은 이런 밭을 사들여 골프장을 만들어나갔다. 1970년 3월 24일,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서서히 마소의 방목도 금지되었다. 이는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시대(3세기 무렵)부터 제주도에 이어져 온 소사육 전통의 종언의 서곡(序曲)이었다.

조선왕조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경세유표(經世遺表)』에는 “제주도의 미역은 조선사람 절반이 먹는다.”라고 하였으니, 제주도의 미역은 제주도민의 물물교환의 물품으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었다. 제주도민들은 공동으로 금채기(禁採期)를 정하여 미역을 잘 가꾸었다가 해녀들이 잠수하여 채취하였고, 남정네들은 그 미역을 배에 싣고 한반도로 나가 소금, 쌀, 옷감 등의 생필품과 물물 교환을 하여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양식미역이 한반도 연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제주도의 미역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에 더해 1970년대부터 대량 생산된 저가의 화학비료가 듬북을 비롯한 제주의 전통적 ‘자연거름’을 대체하였고, 이로 인해 그동안 미역과 듬북을 ‘즈물던’(따던) 제주의 해녀들은 전복, 소라, 해삼 등 ‘헛물애질’을 하는 해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③ 1970년대

도로 확·포장공사와 담을 쌓는데 필요한 돌을 옮기기 위해 주민들이 바닷가로 모여들었다.

1970년대는 한국 근대화의 출발점이다. 또한 원초경제와 개발경제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이 시기를 전후로 생태적 순환에 의지하던 제주의 원초경제는 근대화, 산업화에 기반을 둔 개발 경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거름이 화학비료로, 소가 경운기로, 몰방에는 정미소로, 용천수는 수도와 전기로 바뀌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제주의 마을공동체는 국가와 시장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 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갔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④ 1970년대

갈증을 입은 촌로들이 삽과 곡괭이 등으로 바닥을 고르고, 그 옆에서는 돌담을 쌓고 있다.

모래해변

제주도 해변은 대부분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암반지대이다. 하지만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도 드물지 않다. 제주의 모래해변들은 현재 어디나 할 것 없이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종휴 선생이 촬영한 모래해변들은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금릉 해수욕장

금릉 해수욕장은 이웃한 협재 해수욕장과 더불어 제주 서부 지역의 대표적 해수욕장이다. 사진에 보이는 모래해변은 과거 금릉 어민들의 후릿그물 어장이었다. 후릿그물은 200~300m에 이르는 그물로 멸치를 가두어 잡는 어로기술로 주로 모래해변에서 이루어졌다. 후릿그물을 드리운 채 해안까지 끌고 와야 하기에 바닥에 압초가 없는 모래밭이어야 가능한 어업이다.

이 마을에는 세 개의 후릿그물 접이 있었는데, 그 운용에는 규칙이 있었다. 세 개의 그물접 으뜸들이 모여 순번을 정한다. 만약 오늘 어장에 멸치가 많이 몰려와서 ‘구접’과 ‘신접’이 그물을 드리우면, 다음날은 ‘복쟁이선접’이 제일 먼저 그물을 드리우게 되는 것이다.



금릉 모래 해변 1970년대

제주 서부지역의 대표적 해수욕장으로 물이 맑고 모래가 깨끗하다. 예전 이 넓은 모래해변에서 멀치잡이가 성행했다.

함덕 모래 해변

이증李增의 『남사일록南槎日錄』에는 함덕의 ‘앞개’와 ‘모살물개’를 ‘사시포沙時浦’라 기록하고 있다. 민간에서 ‘사시미’라 불리던 이름을 한자로 차음한 것으로 보인다. 사시미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함덕 바다의 모래밭과 연관성이 깊다. 함덕의 모래밭은 연안에서 바닷 속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앞개성창’에서 ‘올래여’까지 ‘족은사시미’(작은사시미), ‘올래여’에서 ‘중툽굴개’까지 ‘셋사시미’(중간사시미), 그리고 ‘중툽굴개’에서 ‘서우봉’까지는 ‘큰사시미’라 부른다. 관광객의 시선으로 보면 족은사시미라 불리는 모래사장이 가장 넓어 보인다. 하지만 사시미를 이해하려면 어부의 입장이 되어 바다 속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지도에서 보이듯 족은사시미의 바닷 속 모래밭은 여로 애들려 있다. 하지만 셋사시미부터는 여의 막힘없이 넓게 펼쳐져 있고, 큰사시미는 바다 방향으로 800m에 이르는 면적이 모두 모래밭이다. 후릿그물은 폭이 300m에 이르는 그물을 이용하여 멸(멸치)을 잡는 어로기술이다. 수심 깊은 곳에서 그물을 드리우고, 멸씩(멸치떼)을 그물로 에워싼 채 연안까지 물고 가야 한다. 그물의 손상 없이 성공적으로 멸치를 잡으려면 넓은 모래밭은 필수적이다. 함덕 바다에서 후릿그물을 펼치기에 제격인 곳이 바로 큰사시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눈에 가장 좁아 보이는 함덕 제2해변을 어부들은 큰사시미라 불렀던 것이다.

멸은 여름멸과 가을멸이 있다. 여름멸은 참멸과 넙멸, 가을멸은 눈뽕렁이, 식용으로는 참멸이 가장 좋다. 후릿그물 시절 넙멸, 눈뽕렁이는 거름용으로 썼다. 참멸은 테역밭(잔디밭)에서 말리고, 거름멸은 모살밭(모래밭)에서 말린다. 넙멸과 눈뽕렁이를 말리던 곳은 ‘관땃모살’, 현재 함덕 제2해변이다. 함덕의 밤바다는 1960년대 중반 불배(집어등 어선)가 등장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배에 불을 밝히고 들망을 이용한 신식 어로기술은 먼바다에서 멸치를 잡아들였다. 연안으로 들어오는 멸치는 점점 줄어들어 사시미는 텅 비고, 관땃모살엔 바람만 날리게 되었다. 백사장 활용방안을 고민하던 함덕은 1970년대 들어 해수욕장을 개장하였다.



함덕 모래 해변 1970년대

제주시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가운데 하나다. 서우봉 앞쪽으로 너른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해수욕장을 찾은 몇몇 수녀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문헌에는 이 일대 ‘앞개’와 ‘모살개’를 ‘사시포’라 기록하고 있다.

색달 모래 해변

과거에는 ‘진모살’이라 불렀다. 지금은 ‘중문색달해수욕장’으로 불린다.

중문색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중문, 대포, 색달동 일원에 제주를 대표하는 중문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중문관광단지는 국제적 휴양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1978년부터 개발하였다. 중문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고유의 지명과 바다밧 이름들이 사라졌다. 사라진 이름은 다음과 같다.

진모살, 들물찢, 쉼똥누껴떡여, 호매, 만지섬, 붉은덕그정, 나그네왓, 나그네왓골챙이, 오름골, 도릿밭, 도릿밭불턱, 베릿네오름케, 베릿내논케, 베릿네개당, 베릿네성창, 큰주에, 작은주에, 큰주에원, 구쟁기잡는여, 박선덕, 굽둘리진여, 뽕람돌, 싱거물, 싱거물질, 싱거물흙머럭, 싱거물케, 싱거물흙, 싱거물당, 너베기, 네베깃질, 잉건이그정, 모시그정, 진동산, 불목케, 옷골, 음낭굴, 구녕물골, 음낭굴구녕물각, 지삿개, 지삿개동녀동산, 살레덕….



색달 모래 해변 1970년대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예전에는 긴 모래해변이란 뜻의 ‘진모살’로 불렸다. 지금은 사진 중앙에 길게 연결된 절벽 위로 국제적 수준의 관광호텔이 들어서며 등 해수욕장 주변은 관광지로 개발됐다. 해마다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고 매년 국제 서핑대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별도봉

베릿내오름은 무엇이었을까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에는 지금의 제주시 화북동으로 흘러드는 ‘베릿내’라는 건천乾川 서쪽에 ‘별도악別刀岳’이 그려져 있다. 별도악은 베릿내오름을 한자로 차용한 표기이다. ‘베릿내오름’(해발 136m)은 베릿내의 하류에 있는 오름이다. 베릿내오름은 사라봉오름(해발 148.2m)과 이어져 있다. 두 오름 사이에는 구릉丘陵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자그마한 ‘알봉’이 하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서쪽은 건입동, 동쪽은 화북동이다.

1939년 6월 3일, 일본인 농학자 타카하시 노보루高橋昇는 지금의 제주시 화북동의 영농규모와 농법을 알아보기 위해 화북동의 김완주 씨 댁을 찾아갔다. 그때 공부하였던 노트의 내용이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朝鮮半島の農法と農民』(일본·미래사, 1998년)이라는 책 속에 기록되어 남아 있다. 그중 김완주 씨의 베릿내오름에 있는 출왓[牧草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초전은 ‘베릿내오름’에 있다. 넓이는 800평이다. 작년에는 ‘출’[牧草] 25바리를 수확하였다. 겨울에는 이곳에서 일소를 놓아먹인다. 4월에는 방목을 금하고 8월에는 목초를 수확한다.”

베릿내오름은 능선이 가파르다. 그러니 출왓을 돌담으로 둘러막을 수가 없었다. 이 마을 주민 중 40여 가호가 베릿내오름의 출왓을 소유하고 있었다. 우마牛馬들은 베릿내오름의 출왓을 호시탐탐 노렸다. 출왓의 주인들은 ‘오름집’이라는 공동조직을 만들어 이에 맞섰다. 오름집에서는 소만(5월 21일 경)에서부터 소서(7월 7일 경)까지 약 40일 동안 출왓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한 사람 고용하였다. 관리인은 알봉에 초소를 지었다. 밤에는 초소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출왓을 돌아다니며 우마의 출입을 단속하였고, 그 값으로 출왓의 주인들로부터 각각 보리 한 말씩을 받았다.



화북에서 바라본 별도봉 1970년대

베릿내오름은 별도봉을 이르는 옛 이름이다. 현재 별도봉은 나무가 무성하지만 사진 속 풍경은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이다.

왜 오름집에서는 고용인에게 소만에서부터 출왓의 관리를 위탁하였을까.

제주도에서는 “‘새왓’[茅田]은 청명(4월 5일 경), 그리고 ‘출왓’은 소만에 가둔다.”라는 말이 전승되었다. 여기에서 ‘가둔다’는 새왓과 출왓의 돌담을 정비한다는 말이다. 돌담 정비는 새왓과 출왓에 방목을 차단한다는 의사 표시이다. ‘새’[茅]는 청명부터, ‘출’은 소만부터 성장기간에 들어간다. 타카하시 노보루가 남긴 “4월에는 방목을 금하고 8월에는 목초를 수확한다”라는 내용 중, ‘4’월이 음력 4월이라면 소만 때이고, 소만부터 방목을 금하였다는 말이다. 목초의 성장기간은 방목을 차단하기 위하여 돌담을 정비하는 소만에서부터 ‘출’을 수확하는 추분(秋分), 9월 23일 경까지가 된다. 그래서 베릿내오름의 출왓 주인들은 고용인에게 소만 때부터 관리를 위탁하였던 것이다.

베릿내오름은 무엇일까. 소만에서부터 추분까지는 출왓이었다. 목초의 생장이 시작되는 소만에서부터 이 마을의 일소들이 공동목장이나 산촌으로 올라가는 소서까지, 출왓의 주인들은 공동으로 관리인에게 위탁하여 베릿내오름의 출왓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출 수확이 끝나는 추분에서부터 이듬해 목초의 생장이 시작되는 소만까지, 베릿내오름은 방목지였다. 즉, 베릿내오름은 소만에서부터 추분까지는 밭, 그리고 그 외의 기간은 방목지였던 것이다.



누리이

앞장 첫번째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산자락은 사라봉 동쪽 기슭이다. 사진은 사라봉 동남쪽 일대가 공동묘지 터였음을 보여준다. 이곳은 현재 우당도서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민체육관, 평생학습센터, 사라봉축구장 등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사진을 촬영한 위치가 모충사의 남쪽이니, 그 당시 부종휴는 ‘사라드르’와 ‘올레난밭’ 인근 어디쯤에선가 셔터를 눌렀을 것이다. ‘사라드르’는 사라봉의 ‘들녘’이란 뜻이다. 좁은 골목길이 나 있는 ‘올레난밭’은 아직도 밭으로 남아있다.

오른쪽(세 번째 사진)에 별도봉이 보인다. 사라봉과 별도봉 사이로 낮게 솟은 동산이 ‘알봉’(두 번째 사진)이다. 알봉은 경계선이다. 알봉을 기점으로 서쪽의 건입동과 동쪽의 화북동이 나뉜다. 공동묘지 끝 경계에 나무들이 서 있다. 나무들 오른쪽으로 밭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 밭들이 펼쳐진 곳을 ‘누리이’ 지경이라 부른다. 현 국립제주박물관 동쪽 지경을 ‘알누리이’라 부르고, 제주교육대학교 앞 일주도로 남쪽 지경을 ‘웃누리이’라고 부른다. ‘알누리이’는 건입동이고 ‘웃누리이’는 화북동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밭은 ‘알누리이’가 시작되는 밭인 것이다.



별도봉 주변 풍경 ㉠ 1970년대

사진 맨 왼쪽 사라봉 동쪽 기슭에서부터 별도봉(세 번째 사진)과 그 사이 알오름이 솟아있고, 맨 오른쪽 멀리 삼양동에 위치한 원당봉까지 보인다. 현재 우당도서관 주변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부종휴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별도봉 주변의 풍경을 기록하고자 한 것 같다. 별도봉 앞으로는 국립제주박물관 등이 들어서 당시의 원풍경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별도봉 주변 풍경 ② 1970년대

별도봉 주변 풍경 ①의 맨 왼쪽 사진이다. 사라봉 동쪽 기슭과 알오름 사이 능선을 담았다.(사진 위) 아래 사진은 별도봉 주변 풍경 ①의 두 번째 사진이다. 별도봉 알오름과 정상부를 중심으로 촬영했다. 별도봉은 거의 풀밭을 이루고 있다. 별도봉 앞쪽은 현재 우당도서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이 들어섰다.



별도봉 주변 풍경 ㉓ 1970년대

별도봉 주변 풍경 ㉑의 세 번째 사진이다. 별도봉 정상부와 주변 일대 멀리 원당봉 일부 능선이 보인다.(사진 위) 아래 사진은 별도봉 주변 풍경 ㉑의 마지막 사진이다. 원당봉 능선이 온전하게 보이고 현재의 제주교육대학 주변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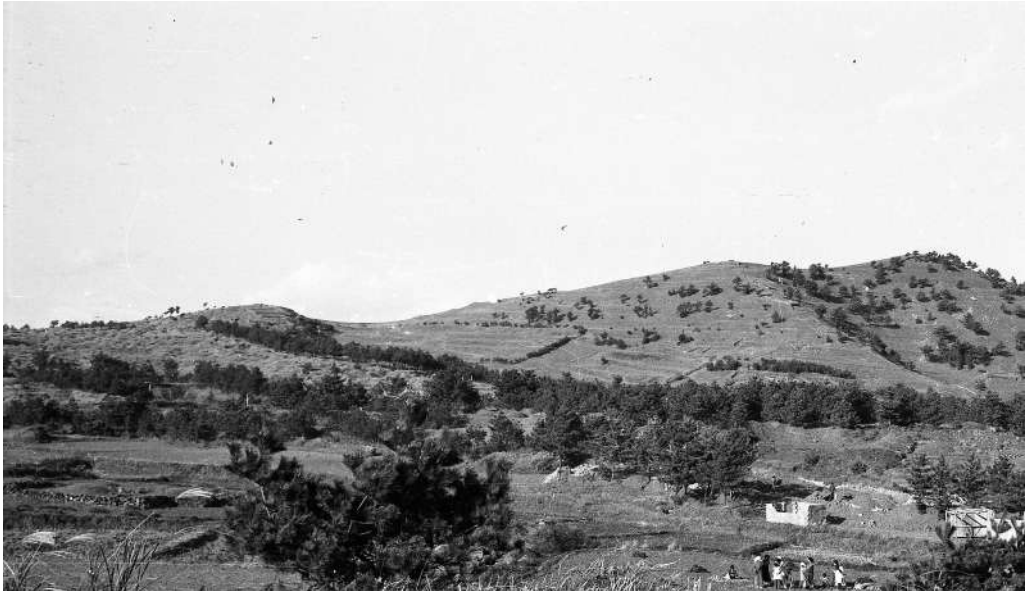


별도봉 주변 풍경 ④ 1970년대

현재 별도봉은 나무가 빽빽한 나무의 산이지만 과거 사진 속의 별도봉은 풀의 산이었다. 위의 사진은 누리이 지경에서 촬영한 별도봉 풍경이다.

알누리의 논농사 웃누리의 밭농사

논농사 지대는 제주 전 경지면적의 2%로 제주의 논농사 지대는 매우 귀하다. 논농사가 가능하려면 물을 머금은 진흙이 많아야 하는데, 제주는 화산지대여서 진흙에 비해 투수성透水性이 높은 토양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제주성 내외에 논농사가 가능한 지대가 조금은 있다. 제주성 안에는 관음사논, 동문로터리논, 구명논 세 군데가 있고, 제주성 밖에는 거센새미논, 누러벵디논 두 군데 있다. 제주성 밖의 논은 모두 별도봉 인근에 있다. 누러벵디논은 ‘알누리이’에 있는 논을 말한다. 누리이 지경을 알누리이와 웃누리이로 나눈다. 알누리이는 논농사 지대인 반면 웃누리이는 밭농사 지대이다. 왜 그럴까?



별도봉 주변 풍경 ㉟ 1970년대

별도봉 주변 풍경 ㉟의 왼쪽 사진이다(사진 위). 현재 오름 중간 지점에는 정수장이 조성돼 있다. 아래 사진은 별도봉 주변 풍경 ㉟의 오른쪽 사진이다.



제주교육대학교 앞 일주도로 ① 1970년대

사진에서 보이는 일주도로의 동쪽 지경을 '누러이'라 부른다. 중앙에 일주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보인다.

제주교육대학교 앞 일주도로 일대 누러이의 지형에 주목해 보자. 제주교육대학교 앞 동서로 뻗은 일주도로는 이 일대를 남과 북으로 가르고 있다. 일주도로의 북쪽에는 사라봉과 별도봉이 있고, 남쪽에는 화북공업단지가 있다. 남과 북 모두 높은 지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일주도로 동과 서의 지형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누러이는 마치 둥글고 완만한 솔단지의 바닥처럼 내려앉아 있는 지형인 것이다. 비가 내리면 동서남북의 경사로부터 진흙이 쓸려 내려온다. 쓸려 내려온 진흙이 오래도록 다져져서 마치 솔바닥의 누룽지처럼 단단해진다. 오랜 기간 진흙이 다져지면 흙은 투수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마련이다. 누러이 일대에서 논농사가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오래도록 다져진 진흙 때문이 아닐까?



제주교육대학교 앞 일주도로 ②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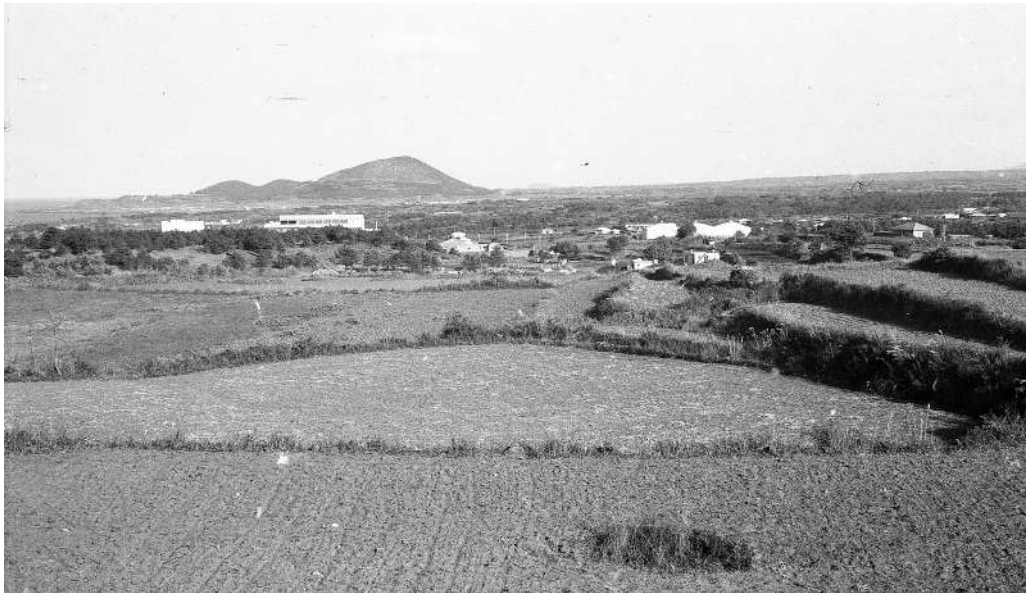
이런 추론은 알누러이와 옷누러이를 비교해 볼 때 정합성이 높아질 것이다. 옷누러이는 알누러이와 같은 토양인데도 논농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옷누러이는 일주도로 남쪽부터 시작되는 경사지대의 경작지이다. 말 그대로 알누러이는 아래, 옷누러이는 위에 있는 누러이라는 말이다. 옷누러이는 알누러이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비올 때 쓸려 내려오는 진흙이 옷누러이를 지나치고 알누러이에 집중되는 것이다. 진흙의 함량이 높아야 논에 물을 대고 묘를 심어 벼를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진행된 퇴적화로 인해 누러이라는 동일한 토양이 형질변환을 일으켜 알누러이와 옷누러이의 차이를 만든 것은 아닐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토양의 투수성透水性이라는 특성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베리오름 ‘출왓’

사라봉 동쪽에 별도봉이 있다. 이 산을 두고 베릿내오름이라 한다. 베릿내오름은 이웃한 사라봉과 철저히 대조를 이룬다. 사라봉이 소나무가 우거진 산이라면, 베릿내오름은 민둥산이다. 베릿내오름은 오랫동안 마소의 사료인 꼴을 가꾸는 밭인 출왓이 여기저기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출왓들은 개인소유가 인정되어 왔는데, 인근 화북마을과 건입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니 사라봉이 국유림의 소나무 밭이라면, 베릿내오름은 개인 소유의 출왓으로 채워진 산이었다.

바닷가에 있는 산에 있는 출왓이라서 파도가 심한 날은 바닷물 기운이 날려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곳의 출들은 염분을 먹으며 자란다. 염분을 머금은 출들이기 때문에 더욱 영양가가 높다. 그런데, 베릿내오름의 북쪽, 속칭 ‘애기엷은돌’ 또는 ‘상웨핀돌’이라는 서쪽 능선은 상당히 가파르다. 그래서 이 일대를 두고 ‘벧자락’이라고 한다. ‘벧’은 별의 제주어다. 마치 ‘벧’을 쟁기에 매어놓은 것처럼 가파르다는 데서 말미암은 땅이름이다. 것처럼 가파르고 비탈진 출왓에서 출(꼴)을 베고 거두는 일은 어렵고 위험하다. 그래서 높은 곳에 말뚝을 단단하게 박는다. 말뚝에 줄을 묶고 다시 허리에 감아 묶는다. 그렇게 하고서 출을 베고, 말리고 나서 다시 그렇게 출을 묶기도 한다. 그런 곳에서 출베기도 험한 일이지만, 특히 마른 출을 묶을 때는 더욱 그렇다. 말린 출에 발을 잘못 디터 미끄러져 내려 바닷가로 떨어지는 날은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험한 곳이기 때문이다.



웃누러이 지경 1970년대

사진 오른쪽 지경을 '웃누러이'라 부른다. '웃누러이'에는 논이 없고, 밭들뿐이다.

산방산

산방산(山房山)은 사계리에 있는 산(山)의 이름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주봉으로 하여 360여개의 기생화산을 거느리고 있다. 수많은 기생화산의 이름을 오름이라고 한다. 오름은 '오르다'의 명사형 어미로 이루어진 말이다. 대부분의 오름이 흙으로 덮인 토산(土山)인 반면 산방산은 조면암 질로 이루어진 석산(石山)이다. 그래서일까 산방산은 오름이 아니고 산(山)이다. 산방산의 남측 면에 길이 10m, 너비와 높이가 각각 5m의 해식동굴이 있다. 현재 이 동굴은 해수면에서 약 150m 상당 높이에 위치한다. 이 동굴은 산방산의 방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 산(山)의 이름을 산방산(山房山)이라고 하였다.

산방산은 무엇이었을까?

제주도는 타원형으로 생긴 섬이다. 한라산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북 지역은 경사가 가파르고, 동·서 지역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 전역에는 경작지(耕作地)가 두루 분포하고 있지만 한라산 남·북 지역에 비해 경사가 완만한 동·서 지역이 좀 더 넓은 경작지를 갖고 있다. 특히 해안으로 갈수록 경작지는 더 넓고 평평하여 농사에 유리한 지역이 많다. 산방산 아래 마을 사계리는 제주도 남서부 지역에 자리한 해안마을이다. 사계리는 지형상 경작에 유리할 뿐 아니라, 1년 2작 지대의 '된땅'이 많아 보리와 조 농사에 적합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제주도의 지형은 산업적 특성에 따라 3등분 할 수 있다. 해안 지대, 중산간 지대, 산간 지대. 해안 지대는 어업과 농업, 중산간 지대는 화목(火木)(떨감)과 목축업, 그리고 산간 지대는 임업에 적합한 지대이다. 산간 지대는 제주마을 전체의 공유지(公有地)이기에 이를 제외한다면, 해안 지대와 중산간 지대를 점유(占有)하고 있는 마을은 자급자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해안에서 시작하는 사계리의 경계는 한라산 방향으로 3km에 미치지 못한다. 사계리는 농사에 유리한 경작지는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중산간 지대가 전혀 없다. 화목(火木)(떨감)과 방목지 확보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다. 산방산에 대한 사계리 사람들의 집착은 중산간 지대가 없음으로 인해 생긴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덕 월라봉에서 바라본 산방산 1970년대

사진 하단에 보이는 내천은 감산리와 화순리의 경계인 '황개창'이다. 길다란 방파제가 있는 곳은 화순항이다. 그 뒤로 화순해변을 지나면 '썩은다리'가 있다. '썩은다리'부터 산방산의 행정리行政理인 사계리沙溪里 마을이 시작된다.

산방산의 화목火木 이야기

제주도 화목火木(땔감) 진상의 역사는 예부터 이루어져 왔다. 조선왕조 헌종 때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원조(1792~1871)가 쓴 『탐라지초본』의 「요역徭役」에는 “男丁에게서 每年 草는 一法, 柴는 一團을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초草는 우마牛馬들의 겨울 식량인 목초牧草이다. 시柴는 화목火木, 즉 땔감이다. 화목 한 단團은 열 속束이다. 한 속束은 한 발 길이의 줄로 묶을 수 있는 양量이다. 제주도의 남자라면 무조건 1년에 화목火木 한 단團을 지방관아에 진상해야만 했다.

사계리는 화목을 마련하기 어려운 곳이다. 겨울에는 ‘조’의 뿌리를 캐거나 해조류를 말려 땔감으로 이용해야 했으며, 마을의 허락 없는 화목 채벌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화목 진상에 열외는 있을 수 없었다. 사계리 사람들은 화목 진상을 구하기 위해 화목의 유일한 공급처인 산방산을 수없이 오르내려야만 했다.

시대가 바뀌어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제주도에 태평양전쟁의 최후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온갖 공출을 강요하였다. 공출 내용 중에 화목은 빠질 수가 없었다. 할당된 화목을 구하기 위해 사계리 사람들은 산방산으로 출역하였다. 출역하지 못한 자는 벌금 5환圓을 내야 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왕조의 자리를 빼앗더니, 진상 대신 공출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식민지시대가 끝났다 하여 이 마을의 공출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 ‘4·3사건’이 일어났다. 군경부대가 제주 해안마을 주변에 배치되었다. 사계리 사람들은 마을 인근 군경부대가 강요하는 화목 공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그해 7月, 대정지역에 신병훈련소가 들어섰다. 신병훈련소 주변 마을이었던 사계리는 화목 공출에 동원되었다. 사계리 사람들은 화목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산방산을 올랐다. 베어낸 나무를 가파른 절벽 아래로 밀어 내었다. 마을 주민인 정씨 여인도 공출할 화목을 베고 있었다. 미끄러져 내리는 나무토막이 밑에서 작업하던 그 여인의 무릎을 강타하였다. 그 후 정씨 여인은 한평생 절름발이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관청에, 식민지시대에는 일본에, 4·3사건 때는 군경부대에, 한국전쟁 때는 훈련소에 화목 조달을 위해 사계리 사람들은 쉽 없이 산방산을 오르내려야만 했다.



거문동산에서 바라본 산방산 1970년대

멀리 산방산과 용머리가 보인다.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대정리 '땡퐁덕' 인근인 것 같다. 사진 중앙에 바다로 흐르는 내수가 '땡퐁덕' 앞에 있기 때문이다. 내수를 지나 바다쪽으로 뻗은 갯가는 '굽은덕', '외툰덕', '용다리창'으로 이어진다. '굽은덕'에서 '외툰덕'까지의 갯가는 현재 사람발자국화석이 있는 '발자국화석공원'으로 보존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을 지나서 산방산 방향으로 좀 더 가면 '거문동산'이라 부르는 나지막한 동산이 보인다. '거문동산'은 사계리와 대정리의 경계선이다.



형제섬 ① 1970년대

형제섬

수평선이 보이는 곳에 ‘형제섬’이 보이고 그 오른쪽에 송악산이 보인다. 형제섬은 사계리 관내의 섬으로 두 개의 섬이 형제 같다 하여 형제섬, ‘쌍둥이’ 같다 하여 ‘굴애기섬’, 여러 섬을 꿰어 놓은 것 같다 하여 ‘관섬貫島’이라고 불린다.

사진에서 보이는 형제섬의 왼쪽 섬을 ‘문섬’, 오른쪽 섬을 ‘섬섬’이라 부른다.

형제섬 주변에는 3개의 큰 바위가 있으며, 썰물 때에는 5개의 암초가 드러난다.

섬섬에는 천연 동굴이 있다. 형제섬에서 물질하던 해녀들은 풍랑이 심할 때 이곳을 대피소로 사용하였다. 사계리에서는 오래 전부터 형제섬을 어업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였기에, 이 굴 안에 빗물을 이용한 우물과 대피용 초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해녀들의 형제섬 물질도 오래된 관행이다. 형제섬 부근에는 ‘안여’, ‘밭여’, ‘홍합여’, ‘숨은여’, ‘작지끗’ 등 20여 개에 달하는 해녀들의 바다밭이 전승되고 있다.



형제섬 ② 1970년대

안덕면 사계리와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 사이의 해안 풍경이다. 사진 중간 왼쪽에 형제섬이 보이고 그 옆으로 송악산이 있다.

사계해변

관광객들이 사계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다. 사계해변은 현재 올레 10코스 중 가장 유명한 곳이다. 모래사장이 길게 형성되어 있어서 올레꾼만이 아니라 바다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이다. 하지만 사계리 해녀들은 이곳을 찾지 않는다. 사계해변은 바다 속도 모래밭이어서 해조류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 해조류가 없으면 그것을 먹고 사는 해산물도 찾지 않는다. 사계 바다의 해조류는 ‘구녀코지’와 ‘선짓여’의 돌틈에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해조류를 찾아 해산물이 그곳에 깃든다. 그래서 해녀들은 사계해변 양 끝 구녀코지와 선짓여로 간다. 여가의 자리와 생업의 자리는 다르다. 그러기에 관광객과 해녀는 사계해변을 사이 좋게 나누어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사진 중앙에 용머리가 보인다. 용머리에는 해녀들과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바다밭이 많다. 물길이 순하다 하여 ‘안정개’, 누룩돌이 넓다 하여 ‘눈빌레’, 뱀자리가 많이 잡히는 ‘뱀자리통’과 ‘셋 뱀자리통’, ‘잉이’가 잘 잡혀서 ‘잉이덕’ 등 등...



사계해변 1970년대

산방산과 초집

산방산 아래 잘 단장된 초가지붕이 보인다. 산방산 위치로 보아 화순리 소재인 것 같다. 제주도 초집에서 지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다. 한국 본토에서는 거의 벗짚으로 지붕을 이었지만, 제주도에서는 ‘새’(띠)로 이었다. 논이 귀했던 섬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지붕을 덮고, 또 줄을 꼬아 ‘井’ 자 모양으로 엮어 묶었다. ‘새’로 덮고, ‘각단’으로 줄을 만들었다. 길이 110cm 안팎의 것을 ‘새’, 40~60cm 안팎의 것을 ‘각단’이라고 하였다.

김정金淨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 “사람들이 거처하는 데는 띠를 엮어서 덮지 않고, 지붕 위에 띠 깔고 긴 나무를 가로 엮어놓고 매어 누른다.”(人居茅茨不編鋪積屋上以長木橫結壓之)라고 하였다. 한국 본토의 지붕처럼 짚을 엮어 덮지 않고 그 대신 나무로 누르고 줄로 엮었다는 말이다. 그런 줄을 ‘집줄’이라고 했다.



산방산과 초집 1970년대

제주시

부종휴 선생의 제주시 사진은 197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시 사진은 특정한 계획 하에 촬영된 것이라기보다는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촬영된 사진으로 보인다. 부종휴 선생의 제주시 사진을 분류함에 있어, 70년대 사진이 보여주는 당대적 사실이 아니라 70년대 사진을 붙잡고 있는 과거와 70년대 사진이 붙잡으려는 미래를 기준 삼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조선시대 - ‘남수각’, ‘용연’,
일제강점기 - ‘제주국제공항’
해방 - ‘관덕정’
50년대 - ‘사라봉 충혼각’
60~70년대 - ‘건입동’과 ‘일도2동’, ‘제주시내 풍경’
80년대 - ‘탑동매립’ ‘등대알 썩은빌레’
2000년대 - ‘산지항 개항’

남수각

제주성 내에는 식수원이 없었다. 식수원 확보와 산지천 치수治水를 위해 제주성 동쪽을 확장, 증축하여 산지천을 제주성 안에 품게 되었다.

그리고 산지천 중류와 하류에 홍예교를 설치하여 ‘제일각第一閣’, ‘제이각第二閣’이라 칭하였다. 하지만 홍예교는 산지천의 범람을 견디지 못하고 해마다 손실, 파괴되었다. 홍예교의 재건은 몇 번 반복되다가 언젠가부터 재건을 포기하게 된다. 산지천 중류를 잇는 제이각은 산지천의 남쪽에 있다고 하여 흔히 ‘남수각南水閣’이라고 불렸다. 남수각 아래에는 ‘가라쿠틀’이 있다. 산지천 중류의 주요 식수원으로, 물을 길어가기 위해 제주성 내에 사는 ‘성안’ 사람들이 늘 봄비는 곳이였다. 가라쿠틀은 수량이 풍부하여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으나 1974년 개장한 대한항공의 칼호텔이 가라쿠틀을 지하수로 끌어다가 쓴 이후부터 가라쿠틀은 고갈⁵⁾되어 버렸다고 한다. 남수각이라는 지명은 지금까지 남아 남수각 안쪽 마을을 남수각이라 부른다.

5)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제주시 옛지명』, p218



남수각 일대 1970년대

현재 제주 동문시장 남쪽 지경이 남수각이다. 산지천 양안으로 초가집들이 늘어서 있다.

용연龍淵

‘용연’은 용이 살았다는 전설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조선 관료들이 기암병풍과 맑은 물에 비친 달을 보며 뱃놀이를 즐겼다 하여 ‘용연야범龍淵夜帆’, 영주십이경 중 하나로 꼽는다.

임제(1549~1587)는 『남명소승』에서 용연 좌우에 암석들이 백옥처럼 꽃혀있고, 주변 수목이 석벽과 함께 물에 비치면 마치 푸른 유리와 같다⁶⁾하여 용연을 ‘취병담翠屏潭’이라 불렀다. 이를 따라 용연의 암벽에는 취병담翠屏潭, 선유담仙遊潭 등의 마애명磨崖名이 새겨져 있다.

제주 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순력巡歷한 내용을 담은 『탐라순력도』는 41점의 그림을 전하고 있다. 그림의 하단에는 순력의 내용이 적혀있다. 하지만 하단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그림 한 장이 있는데 그림의 내용은 ‘병담범주屏潭泛舟’이다. ‘병담屏潭’, 즉 용연龍淵에서 조선 관료들이 뱃놀이를 즐기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병담범주屏潭泛舟’는 제주 해녀가 기록된 최초의 그림으로 유명하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용두암’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것을 ‘병담범주屏潭泛舟’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관광객이 즐겨 찾는 용두암이 있는 곳을 마을 사람들은 ‘용머리코지’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림 속에 그려진 또 다른 용두암이 있었던 곳을 ‘영코지’라고 불렀다. 그림 속의 제주 해녀들은 ‘용머리코지’와 ‘영코지’ 사이, ‘영개낭’에서 물질을 하고 있다. 해녀들은 뱃놀이 하고 있는 조선 관료들의 술안주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개낭에서 전복을 따고 있는 것이다.

6) 한국콘텐츠진흥원, ‘취병담’



용연 ① 1970년대

‘용연龍淵’은 제주시 ‘용두암龍頭岩’에서 동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있는 ‘한천漢川’의 하류지역이다. 용연의 맑은 물 사이로 드러난 암석과 좌우에 서 있는 기암계곡으로 제주 해안의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용연 ② 1970년대

용연의 끝, 한천의 하류를 마을 사람들은 '용수'라 불렀다. 용수가 바다와 만나는 곳은 사리 썰물 때 사람들이 걸어서 지날 정도로 물이 줄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내의 끝이라 하여 '넛각'이라 부르고, 이 일대의 포구를 '한대기'라고 불렀다.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다리 아래 배가 매어져 있는 곳이 '한대기'이다.



용연 ③ 1970년대

용연 안쪽에는 ‘용수개맛’이라는 포구가 있다. 태풍으로 배가 위험할 때 배를 안으로 들어서 매어두는 포구이다. ‘한대기’와 ‘용수개맛’ 사이에는 배의 드나듦을 방해하는 암초가 있는데, 이를 ‘고래등’이라 불렀다. 사진 중앙을 잘 살펴보면 수영하는 아이들이 서있고, 앉아 있는 돌이 보인다. 이 돌이 ‘고래등’인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뱃놀이를 하던 조선의 선비가 시를 새겼음직한 ‘취병담(翠屏潭)’의 암석이 마을 어부에게는 피해야 할 암초였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제주국제공항

1970~80년대 신희여행지 1순위는 제주였다. 제주 신희여행이 붐을 이루면서 제주국제공항은 제주도의 관광 시대를 주도하였다.

제주국제비행장은 1968년 한·일 항공협정 체결 후 제주-오사카 항로가 신설되면서 제주비행장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다. 1973년 교차활주로가 신설되고, 1979년부터는 대규모 확장 사업이 시작된다. 이 사업은 80년대 초에 끝나는데, 이때 완성된 3000m의 활주로는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메인 활주로이다. 1983년 여객터미널을 신축하였다. 제주국제공항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이 대략 이 시점부터다.⁷⁾

현 제주국제공항은 일제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그 당시 ‘정뜨르 비행장’이라 불렀다. 정뜨르 비행장은 1942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1944년 5월 준공되었다. 그에 앞선 시기에는 대정 ‘알뜨르 비행장’이 건설되었고, 그 이후 신촌 ‘진뜨르 비행장’은 건설 도중 일본의 항복 선언과 함께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비행기 활주로 건설에 평지가 필요했으니, 넓은 들판을 이르는 제주 말 ‘뜨르’, ‘뜨르’가 붙는 곳에 비행장을 건설한 것이다.

7) 두산백과,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1970년대

사람들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활주로 위를 걸어가고 있다.

관덕정觀德政

‘관덕정觀德政’은 지어진 지 560년이 넘는 건물로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1963년 1월 보물 제322호로 지정됐다. 관덕정은 ‘활을 쏘는 것은 훌륭한 덕德을 보觀는 것이다’라는 예기禮記 사의편射義篇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관덕정은 이름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 30년(1448) 제주 목사 신숙청辛淑晴이 군사훈련청으로 건립하였다. 관덕정 광장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미군정시기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공간’이었다. 제주는 한국 근대사의 아픔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도록 겪으면서 ‘권력의 공간’ 관덕정은 ‘시민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관덕정 앞 풍경 1970년대

도심이 번창하기 전으로 거리 풍경이 비교적 한산하다.

사라봉 충혼각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라봉 주변은 무연고묘 7000여 기가 있던 공동묘지였다.

1953년 ‘충혼묘지’, 사라봉 남쪽에 설립

1956년 전몰군경 위패와 유골의 봉안을 위한 ‘충혼각’, 사라봉 서쪽에 설립

1976년 ‘사라봉 무연고묘’, 한라산 중턱 ‘아흔아홉골’ 인근으로 이전

1985년 ‘충혼묘지’, 한라산 중턱 ‘아흔아홉골’ 인근으로 이전

1990년 ‘충혼각’, 한라산 중턱 ‘아흔아홉골’ 인근으로 이전

1980년 전후로 사라봉 주변에 있던 묘역의 이전을 마쳤다.

1984년 우당도서관을 시작으로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제주시국민체육센터, 사라봉축구장 그리고 2001년 국립제주박물관까지 설립되면서, 제주시민을 위한 사라봉의 공원화는 마무리 되었다.

1970년대까지 제주시의 외곽 지역이었던 사라봉은 1980년대 이후 제주시내 권역으로 편입되었다.



사라봉충혼각 1970년대

이 일대는 현재 항일의병항쟁기념탑 등이 세워져 있다.



사라봉 팔각정 1970년대

사진을 촬영한 위치는 '사라봉'이다. 전면의 건물은 사라봉 정상에 있는 팔각정이다. 사진 중앙, 지평선 부근에 살짝 솟아 오른 '도두봉'이 보인다. '도두봉' 바로 앞쪽 넓고 평평한 지대가 '제주국제공항'이다. '사라봉'과 '제주국제공항'의 거리는 약 5km이다.

김석범의 소설 『화산도』에는 '사라봉'과 '비행장'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사라봉 잔디를 실은 달구지 행렬은 선발대가 성내에 도달했는데도 사라봉 으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길었는데, 이번에는 성내를 빠져나가 비행장을 만들던 연병장으로 향하는 거다.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일본군이 있었지. 그놈들은 비행장을 확장하려고 불평할 틈도 주지 않고 때려 부순 집과 밭 자리를 고른 뒤, 그곳에 잔디를 촘촘히 깔고 싶었던 거야.”

소설 속 '사라봉 잔디'의 행렬이 향한 곳은 '정뜨르 비행장'이다. 사라봉만이 아니라 잔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정뜨르 비행장' 잔디공출을 피할 수 없었다.

건입동과 일도2동

1966년 제주시 『통계연보』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1위가 일도2동이고, 2위가 건입동이다. 사진에 보이는 장소는 건입동이다. 건입동과 인접한 일도2동은 사진에서 오른쪽 방향에 있다.

건입동과 일도2동의 인구증가 요인은 다음과 같다.

- ① 해방 전후 산지향 개발로 상업인구와 노동인구 유입
- ② 해방 직후 재일在日 제주인 귀환
- ③ 4·3 당시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피난
- ④ 한국 전쟁으로 육지 피난민 유입

위의 4가지 요인이 건입동과 일도2동에 집중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건입동은 시내권이면서 제주의 관문인 제주항에 인접한 마을이다.

일도2동은 건입동 인접 마을이면서 주택 설립을 위한 유희지가 많았다.

건입동은 이미 포화상태였다. 그러므로 급증하는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택지개발은 일도2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도2동이 1966년 인구증가율 1위였던 이유이다.



제주시가지와 사라봉 1970년대

가운데 솟은 오름이 사라봉이다. 건물로 이루어진 바다에 사라봉이 떠있는 듯하다.

제주시내 풍경

제주시민회관 주변 풍경이다. 사진 가운데 보이는 건물이 제주시민회관이다. 시민회관은 제주도내에서 처음 시행된 철골조 건축물로 1964년 7월 3일 개관했다. 당시 1646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민회관은 서울시 공무원이던 한국의 대표 건축가 김태식이 설계를 맡았다. 제주에선 보기 드문 모더니즘 양식이자 공공건축의 혁신을 주도한 건축물로 제주에서 벌어진 굵직한 문화, 실내 행사 등의 대표 장소로 이용됐다. 2016년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했으나 재산권 행사 우려 등으로 무산됐으며, 제주시는 기존 건물 보존 후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제주시내 풍경 ① 1970년대
제주시민회관 주변 풍경을 담았다.



제주시내 풍경 ② 1970년대
남문로터리 주변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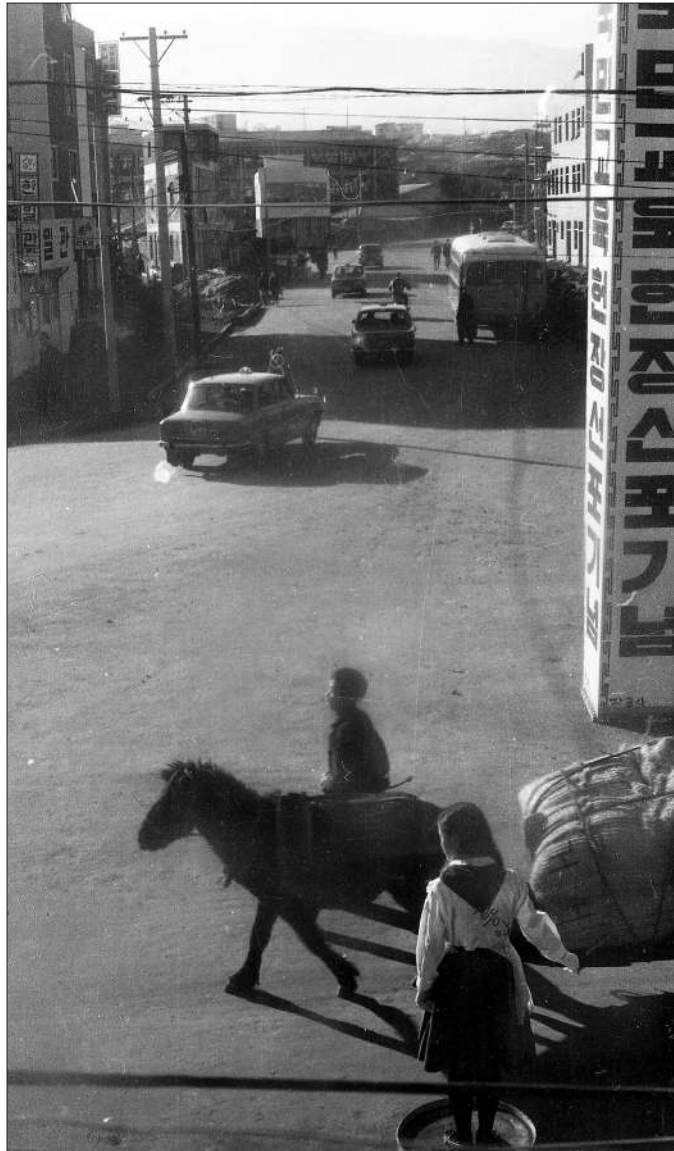
제주시내 풍경 ③ 1970년대

중앙로 일대의 풍경이다. 사진 오른쪽으로 오현고등학교가 보인다.



제주시내 풍경 ④ 1970년대

중앙로 일대의 풍경이다. 조랑말이 끄는 목재를 가득 실은 구루마가 중앙로 아스팔트 차도를 지나는 모습이 이채롭다.



제주시내 풍경 ⑤ 1970년대

국민교육현장선포기념 선전탑이 도로변에 세워져 있고 그 앞을 조랑말이 끄는 구루마가 지나고 있다. 중앙로터리 부근의 풍경이다.



제주동초등학교 인근에서 바라본 풍경 ① 1970년대
가까이에 보이는 교회가 제일교회이다.



제주동초등학교 인근에서 바라본 풍경 ② 1970년대
동문성당 뒤로 신산머루가 보인다.

탐동 매립

‘탐동’은 무근성의 북쪽 바닷가 마을을 말한다. 방사탑 아래쪽 마을이란 뜻에서 ‘탐알’이라고도 부른다. 탐알의 해안은 먹돌로 유명하다. 먹돌 해안에는 ‘바룻질’(물에 들어가지 않고 ‘갯가’에서 ‘고동’이나 ‘깅이’ 등 해산물을 잡는 일)을 하러 나온 제주성안 사람들로 성시를 이루었다. 바룻질이 유명하기에 탐알을 ‘탐바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서풍이 부는 겨울날 먹돌 해안에 파도가 칠 때, 파도소리와 자갈 쓸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웅장한 화음을 이루었다. 이 소리에 대한 이야기는 제주에 온 유배인들과 제주 목사의 문집文集에 자주 등장한다.

탐동 매립은 탐동의 해일 피해 방지, 해안도로 설비, 관광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주시는 1976년 탐동매립계획을 수립하고 1980년 제1차 탐동 매립을 완공하였다. 그 당시 탐동 매립예정지의 먹돌들은 제주시내 학생들이 총 동원되어 사라봉으로 옮겨져 모충사의 건설 자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82년 제주시는 제2차 탐동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제2차 탐동매립 사업은 1985년부터 탐동 해안 공유수면 일대 약 5만평을 매립하면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해녀의 보상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나 매립공사는 계속됐다. 제주 도민들 사이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탐동 매립에 따른 이익금 도내환수를 주장하게 된다. 탐동 제2차 매립은 1991년에 완공된다.



매립중인 탐동 앞바다 1970년대

탐동은 매립하기 전까지만 해도 먹돌 해안으로 유명했다.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해안으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먹돌을 들추며 보말, 고둥을 비롯한 바닷물을 잡는 것은 흔한 풍경이었다. 사진은 탐동 방파제를 축조하고 매립하면서 도로를 내던 당시 모습이다. 돌무더기 사이에서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 천진난만하다.

등대알 썩은빌레

사라봉 등대가 보인다. 사라봉의 행정지는 건입동이다. 사라봉 넘어 ‘알봉’부터는 화북동이다. 사진 왼쪽에 바다와 맞닿은 절벽 끝을 ‘등대알 썩은빌레’라 부른다. 등대알 썩은빌레 바로 뒤에는 ‘가매팡’이라는 갯가가 있다. 가매팡은 현재 건입동과 그 이웃마을인 화북동의 경계이다. 과거 건입동의 바다는 화북동의 ‘곤흘’(‘곤을’이라고도 부른다) 앞 바다까지였다. 하지만 곤흘 앞 바다에는 해양사고에 의한 송장이 많이 떠올랐고, 건입동은 자신의 바다에 밀려온 송장의 처리를 화북동에 떠넘겨 버렸다. 결국 화북동은 그 송장들을 처리했고, 제주 해안마을의 관습법에 따라 곤흘 앞바다는 송장을 처리한 화북동의 차지가 되었다. 건입과 화북의 경계가 곤흘에서 가매팡으로 옮겨간 이유이다. 그 당시 건입동 사람들은 산지향의 눈부신 발전에 취해 곤흘 썩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일까?



등대알 썩은빌레 ① 1970년대

등대 주변 사라봉 기슭은 당시까지만 해도 나무가 거의 없는 산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속의 등대알 썩은빌레는 건입동 서쪽 바다의 시작 지점이다. 그 바다 속 절벽 틈새에는 전복과 구쟁기가 많았고, 절벽과 모래밭의 경계인 '모살꿈'에는 해삼이 많았다. 등대알 썩은빌레는 낚시터로도 이름난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주항만 확장 공사로 건입동 서쪽 바다 전체가 매립되고 말았다. 건입동의 동쪽 바다, 곤흘은 오래 전 화북 사람들에게 넘기고 말았으니, 이제 건입동은 '바다밭'도 '해녀'도 없는 마을이 되고 말았다. 아니 '항구도시가 되었다'라는 말이 중립적이겠다.



등대알 썩은빌레 ㉔ 1970년대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항 배후에 위치한 사라봉 절벽 위로 산지^{山地}등대가 의미하게 솟아있다. 산지등대는 1916년 10월 무인등대로 처음 점등돼 1917년 3월에 제주도 최초의 유인등대로 변경된 100년이 넘는 등대다. 1999년 새롭게 등탑을 설치하고 기존 등대는 존치하고 있다. 산지등대는 제주항 입출항 선박과 제주 북부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사진에서 보이는 바다는 매립이 진행돼 크루즈 선박 부두로 이용되고 있다.

산지항 개항

건입동 앞의 제주항의 옛 이름은 산지항이다. 건입동의 항만 개발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1920년 조선총독부령에 의거 서귀포항, 성산포항과 함께 지정항이 되었다. 산지항은 1927년 5월에 개항하였고, 3년 여 간 공사를 거쳐 방파제를 준공하였다. 방파제 축조 공사 도중 주호시대(州胡時代)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동검(銅劍), 석부(石斧) 등과 함께 총 18매의 중국 화폐가 출토되었다.⁸⁾

이를 통해 『삼국지』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이 전하는 “馬韓의 서쪽 바다 큰 섬 위에 州胡가 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중국과 삼한을 왕래하면서 장사를 한다.”는 기록이 실증되었다. 이는 제주가 해상교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8) 산지항출토화폐 [山地港出土貨幣] (두산백과)



제주항 풍경 ① 1970년대

육지부로 떠나는 가족이나 친지 혹은 친구들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제주는 1105년 고려의 속현이 되었지만 제주의 해상무역은 고려를 거쳐 원나라의 지배시기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당시 말馬사업은 제주 경제의 중추를 이루었으며, 제주 해상 교역의 주요 사업이었다.

하지만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조선은 제주의 말馬를 국유화國有化해버리고 만다. 말馬 교역이 금지되면서 제주의 경제는 급격히 무너지고, 이에 따라 제주를 떠나는 인구가 대량 발생하게 된다. 말馬 국유화 정책 이후 제주의 인구 감소는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제주를 떠난 유민의 수를 2~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5~6만이었던 제주인구의 반이 제주를 떠났다는 말이다.⁹⁾ 이에 놀란 조선은 ‘출륙금지령’(1629)을 내렸다. 제주의 바다가 닫히는 순간이다. 조선의 출륙금지령은 순조(1825)때까지 200년을 이어간다.

산지항 개항은 제주 자원 수탈을 위한 일제의 기획이었지만, 제주인에게는 오랜 기간 닫혀 있던 바다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기도 하다. 산지항 개항 이후, 일제 치하의 제주인들은 돈벌이를 위해 일본 등지로 떠나야 했지만 산지항을 통한 자유로운 물자의 왕래 속에서 제주는 새로운 경제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9) 이영권, 2013, 『조선시대 해양유민의 사회사』, p170



제주항 풍경 ② 1970년대

출항하는 선박의 갑판 위 모습이다. 뒤에 보이는 오름은 사라봉이다.



산지향의 풍선風船 1970년대

풍선은 선체 위에 세운 돛에 바람을 받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무동력 배를 이른다. 이 배는 옹기 운반선으로 돛을 세 개 올린 채 항구를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항을 떠나는 제주호 1970년대

1963년 제주-목포 간 '덕남호', 1969년 제주-목포 간 '삼화호', 1959년 제주-부산 간 '제주호', 1968년 제주-부산 간 '도라지호'가 제주항에 취항한다. 사진은 제주항에서 출항을 기다리는 '제주호'이다. 1968년 항만법이 제정되고, 산지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산지항의 명칭이 제주항으로 바뀌었다. 1977년 4월 현대식 여객터미널 신축공사가 마무리되고 쾌속 대형 카페리가 취항하게 되었다.

서귀포

제주 14현縣 중 하나인 '홍로현'에 대한 기록은 700여 년 전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홍로'는 '동홍', '서홍', '서귀' 일대를 아우르는 현촌縣村으로 그 형성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몇 번의 분리 통합을 거치면서 일제강점기 때 '동홍리', '서홍리', '서귀리'로 분리하게 되었다. 서귀리는 1981년 서귀포시로 승격하기 이전까지 현재의 중앙동과 정방동, 천지동, 송산동을 통칭하던 이름이었다. 홍로가 동홍리, 서홍리, 서귀리로 분할된 내용은 서귀본향당 본풀이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

“설매국 영웅 ‘보름웃또’는 홍토나라를 유람하다 천하의 미인을 발견한다. 미모에 반한 ‘보름웃또’는 그 집에 찾아가 청혼을 하고 장가를 들었다. 하지만 첫날 밤 방에 들어온 부인은 첫 눈에 반한 미인이 아니라 그의 언니 ‘고산국’이었다. ‘보름웃또’는 ‘고산국’의 눈을 피해 처제와 함께 제주 한라산으로 도망갔다. 하지만 ‘고산국’은 그들을 찾아 한라산으로 쫓아왔다. 두 자매는 한라산에서 도술을 부리며 다투었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산국’은 동생에게 자매의 인연을 끊고, ‘고’씨 성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그 이후로 동생을 ‘지산국’이라 부르게 되었다. 화해가 불가능했던 셋은 헤어지기로 하고, ‘고산국’은 서홍에 좌정하고, ‘지산국’과 ‘보름웃또’는 웃알서귀(동홍, 서귀)에 가서 좌정하였다. 이때부터 동홍과 서홍은 땅과 물을 갈라 따로 살게 되었다.”¹⁰⁾

토평-①-동홍-②-서귀-③-서홍-④-호근. 서귀포 인근 5개의 해안마을의 경계 지점은 다음과 같다. ① 소정방, ② 정방폭포, ③ 천지연폭포, ④ 외돌개이다. 우연하게도 경계지점은 모두 서귀포에서 빼어난 경승지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부종휴 선생이 촬영한 서귀포 사진들 속에는 서귀포의 경승지이면서, 5개 마을의 경계지점 4곳의 옛 풍경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서귀본향당 본풀이'



서귀포 지경에서 바라본 한라산 1970년대

사진 중간 부분 한라산 백록담 아래에서 길게 이어진 선처럼 보이는 것은 산벌른내 계곡이다. 집 뒤로 미악산이 보인다.

소정방

‘소정방’은 여름철 물맛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던 곳이다. 소정방은 작은 정방폭포라는 뜻이다. 예전에는 정방폭포를 ‘큰무죽시’, 소정방을 ‘족은무죽시’라 불렀다. 동홍리의 해안 경계는 동쪽의 족은무죽시에서 서쪽의 큰무죽시까지이다. 소정방을 기점으로 토평과 동홍이 나뉘고, 정방폭포를 기점으로 동홍과 서귀가 나뉜다. 산짓물과 통물을 중심으로 설촌된 동홍리의 자연환경은 아래로는 바다, 위로는 한라산 정상까지 이른다. 자급자족에 필요한 생업자원으로 활용하던 자연환경은 이제 마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정방폭포 1970년대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흘러 내리면서 물막이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오른쪽 하단에 어른과 어린이의 모습이 보인다.

정방폭포

정방폭포는 동홍리와 서귀리의 해안 경계 지점이다. 옛 이름은 '큰무죽시'이다. 상류의 '정무숫내'가 절벽을 타고 바다로 흘러 정방폭포를 이루었다. 정무숫내는 그 하류에 정모소라는 못을 거느리고 있다. 정모소의 이름을 따서 이 내[川]를 두고 정무숫내라고 이른 것이다. 현 지도는 정무숫내를 동홍천東洪川으로 표기하고 있다.

수직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수가 장관인 정방폭포는 영주십경瀛洲十景 중 하나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이다. 불로초를 구하라는 진시황의 명을 받은 서복이 제주에 도착하여 정방폭포 암석에 적어놓았다는 '서불과지徐市過之'(서복이 이곳을 지나갔다)의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이 전설 때문인지 특히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불과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방폭포 1970년대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압권인 정방폭포의 예전 진입로 주변 풍경이다.

천지연天池淵

서귀리의 해안경계 끝이다. 천지연을 기점으로 서흥리가 시작된다. 서귀포에서 지관을 지냈다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전한다. “정방폭포는 하르방 폭포, 천지연은 할망 폭포다.” 정방폭포는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다로 떨어지고, 천지연폭포는 서늘한 계곡 속으로 떨어지니 그럴듯한 말이다. 지관 어르신은 음양의 해석으로 자신의 말을 갈무리 했다. “정방폭포의 물과 천지연폭포의 물이 서귀포 앞바다에서 만나 수많은 바다생명을 탄생시킨다.”

천지연은 제주도 무태장어 서식지로 유명하다. 그리고 아열대성 상록수인 담팔수도 유명하다. 서귀포는 연평균 기온 16도이고, 겨울에는 한라산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기에 동절기 기온이 북부지역에 비해 평균 2도 정도 높다. 천지연이 북한계지인 무태장어와 담팔수는 이러한 서귀포의 기후 조건을 보여주는 지표종指標種들인 것이다.

천지연폭포 상류에는 서흥리와 서귀리를 가르는 연외천이 흐른다. 홍로의 옛 이름을 따서 홍로천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솜반내, 솟밭내라 부른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른다. 하천을 따라 생긴 물웅덩이는 모양도 다르고, 이름이 다르다. 종남소, 고냉이소, 도고리소, 나꿈소, 괴야소, 막은소 등등. 수영도 하고 개구리도 잡고, 지난 시절 동네 개구쟁이들의 물놀이 터였다.



천지연폭포 ① 1970년대

시원스레 떨어지는 천지연폭포 물줄기 앞쪽으로 관광객들이 몰려 있다. 서귀포의 경관을 대표하는 천지연폭포는 신혼부부나 수학여행단 등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로서 인기가 높았다.



천지연폭포 ② 1970년대

깎아지른 단애를 보여주고 있다. 천지연폭포 물줄기가 이 곳을 따라 흘러간다.



천지연폭포 ③ 1970년대

천지연폭포 하류의 모습이다. 양 옆으로 깎아지른 단애가 형성됐다.

외돌개

관광지로 유명한 외돌개를 두고 이 곳 사람들은 ‘쉐머리’라고 하였다. 쉐머리의 오른쪽 절벽은 ‘쉐머리코지’이다. 서호리와 이웃 호근리의 바다밭을 가르는 경계지점이다.

서흥동의 옛 지명은 홍로烘爐이다. 지형의 생김새가 화로와 같다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홍로의 서쪽 중심마을인 서흥리는 논농사가 가능한 곳이다. 이곳에서 논농사가 가능한 것은 토질의 문제도 있지만, 풍부한 식수원 지장샘이 있기 때문이다. 서흥의 식수와 논이 용수를 공급하는 마을의 용천수, 지장샘은 호종단 단맥斷脈전설에 등장한다.

진시황의 명을 받아 제주에 상륙한 호종단은 먼저 산방산 용머리에서 왕후지地王后之地의 혈맥을 끊고, 지장샘의 수맥水脈을 끊기 위해 홍로마을을 찾아간다. 지장샘에 사는 신神은 뱀으로 변해 ‘쉐질매동산’에 숨어버린다. 호종단은 단맥斷脈에 실패하고 장님이 되어 돌아간다. 그때 호종단의 화를 피한 지장샘은 지금까지 수맥을 보존하고 있다. 지장샘의 수맥은 서쪽으로 흘러 홍로마을 서쪽 언덕면 지역은 산물이 많고, 동쪽 남원읍 지역은 산물이 드물다고 한다.



외돌개 ① 1970년대

삼매봉 바로 아래 바다 위로 우뚝 솟은 외돌개가 위풍당당한 모습이다. 멀리 보이는 섬은 서귀포 앞바다의 범섬이다. 높이가 약 20m에 이르는 외돌개는 육지와 떨어져 바다 위에 홀로 외롭게 서 있어서 불리게 됐다는 말이 전한다. 혹은 장군석으로, 혹은 할망바위로도 불린다. '장군석' 이름은 고려말 목호(牧湖)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에 온 최영장군이 범섬으로 도망간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외돌개를 장군의 형상으로 치장시켜 놓고 최후의 격전을 벌였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할망바위'는 바다에 나간 할아버지가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못하자 할머니가 바다를 향해 하르방을 외치며 통곡하다가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에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외돌개 꼭대기에는 해풍을 견디며 몇 그루의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2011년 6월 30일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제79호)으로 지정했다.



외돌개 ㉔ 1970년대

외돌개는 보는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보인다. 사진 왼쪽에 문섬이 보인다.



외돌개 ㉓ 1970년대

부종휴 선생은 외돌개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담아냈다.

황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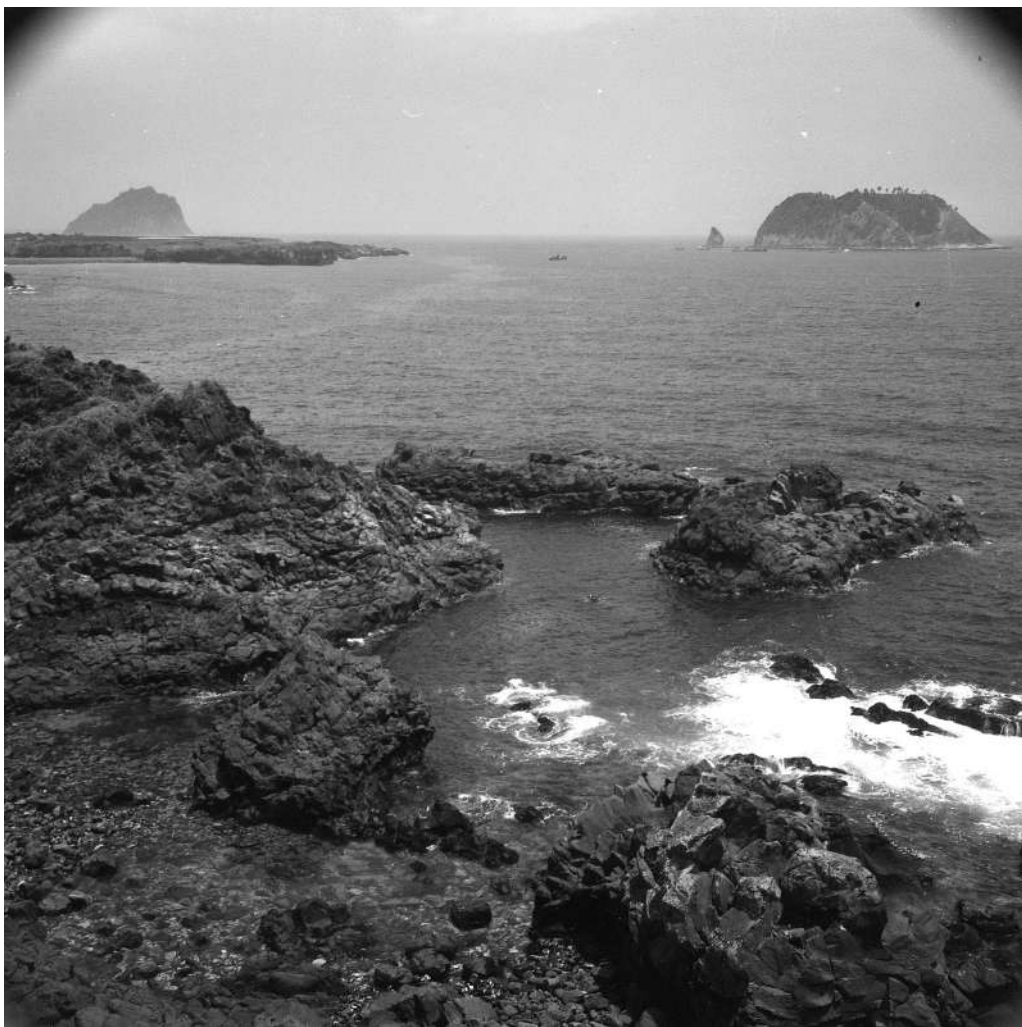
외돌개에서 서귀포 방향에 있는 ‘황오지’ 절벽 위의 풍경이다. 황오지는 제주말로 무지개이다. 맑은 날 바람이 세차게 불면, 황오지 절벽에 부딪힌 거친 파도는 많은 물보라를 일으키게 마련이다. 훑날리는 물보라는 태양 빛에 난반사되어 해변에 무지개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바다에 피어오른 무지개를 서귀포 사람들은 황오지, ‘황고지’라 부른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사람이 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다. 이 사람은 어느 동네 사람일까? 황오지는 서홍동에 있는 해안절벽이다. 그렇다면 서홍동 사람일까? 서홍동은 해안의 폭은 좁지만 산으로의 경계는 한라산 정상까지이다. 중산간에 너른 방목지가 있다. 서홍동 사람들은 소의 방목을 위험한 절벽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옆 마을 호근동 사람일까? 호근동의 산쪽 경계 또한 8km로 중산간의 방목지가 충분하다. 호근동 옆동네 법환동은 어떤가? 법환동의 산쪽 경계는 해안에서 겨우 3km이다. 방목지가 귀한 마을이다. 법환동 사람들에게는 위험을 감수하고 옆동네 황오지 절벽까지 소를 끌고 올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것이다. 소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가야만 하는 것이 방목지가 없는 마을 사람의 숙명인 것이다.



황오지 1970년대

황오지는 서흥동에 있는 해안절벽을 이르는 말이다. 한 사람이 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고, 황오지 절벽 뒤로 섬섬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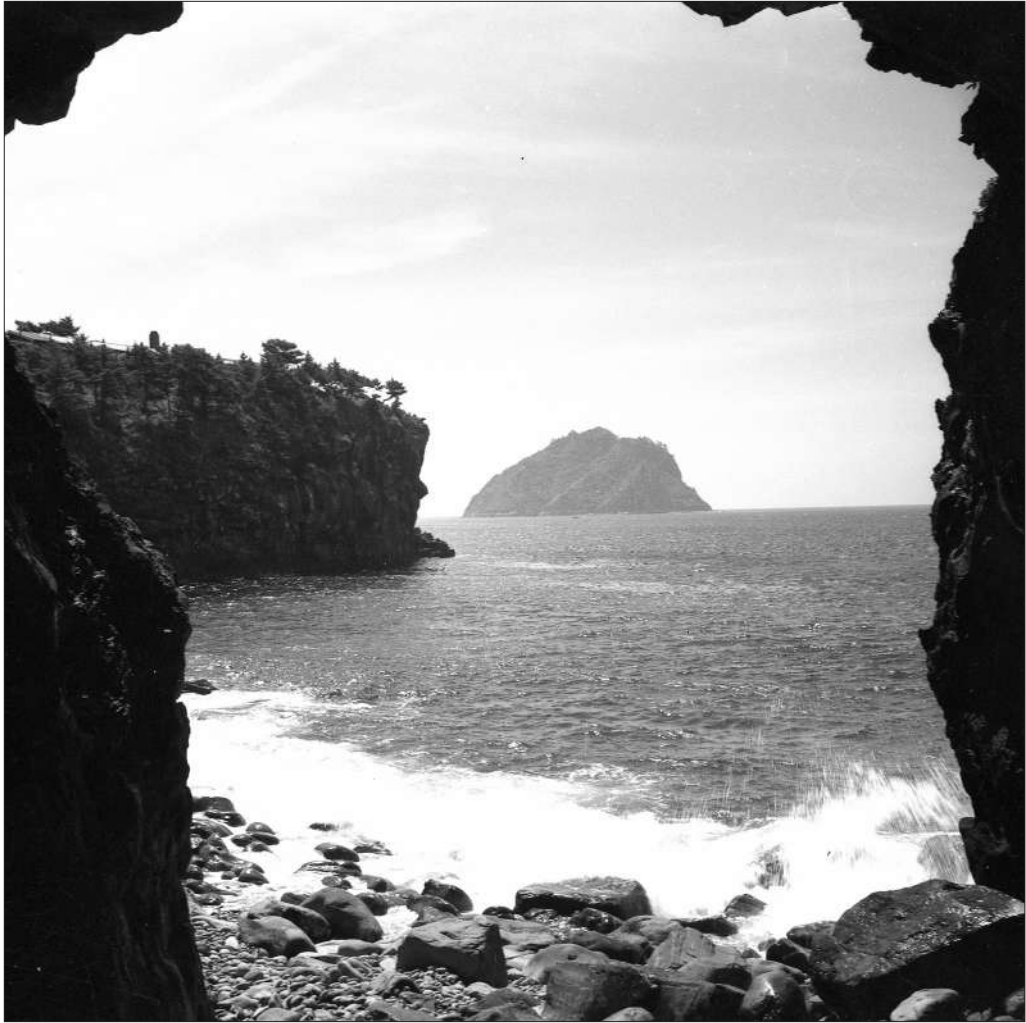
황오지와 외돌개 사이의 해변 ① 1970년대

사진의 왼쪽에는 현재 여름철 수영객들이 찾는 선녀탕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곳이다.



황오지와 외돌개 사이의 해변 © 1970년대

사진 오른쪽에 외돌개가 보인다. 물웅덩이 아래로는 작은 폭포가 떨어지는 곳이다. 멀리 보이는 것은 문섬이다.



황오지와 외돌개 사이의 해변 ③ 1970년대

일본군이 태평양전쟁 당시 파놓은 동굴진지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파도가 치는 곳이 황오지 해변이다. 주변에 '높은여', '동자릿여', '섯자릿여', '준작지' 등 해녀들의 '바다밭'이 있다. 멀리 보이는 섬은 섯섬이다. 보목동 앞 바다에 있는 섬으로 보목 마을 사람들은 '섯피섬'이라 불렀다. 나무들이 열기설기 자라 있다고 하여 그리 부른다.



문섬과 새끼섬 1970년대

사진 왼쪽이 문섬이고 가운데가 새끼섬이다. 그 너머로 삼매봉과 고근산이 보인다.

천제연폭포

중문관광단지 부근 천제교天帝橋 아래쪽에 3단 폭포로 이뤄진 서귀포의 대표적 명소다. 제1폭포는 길이 22m, 수심 21m의 물웅덩이를 이루며 하단의 제2, 제3의 폭포수를 형성하면서 장관을 연출한다. 천제연으로 흘러드는 중문천(성천·베릿내)은 평소에는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건천이다.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릴 때라야 천제연 3단 폭포의 위용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천제연 명칭에 대해서는 문헌상 천제담天帝潭, 천지연天池淵, 천지연天地淵이 혼용돼서 나타난다. 즉 『탐라순력도』 「현폭사후」에는 ‘천지연天池淵’ 상폭上瀑 하폭下瀑이라 표기되어 있지만 『탐라순력도』 「한라장축」에는 ‘천제담天帝潭’이라 하고 있다. 『대정군읍지』의 「대정군지도」에는 ‘천지연天地淵’으로 표기하고 있다. 『탐라순력도』(1702년 제작)는 조선시대 제주에 부임한 이형상 목사가 재임 당시 1702년 음력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 간 제주도를 순력巡歷한 후 남긴 기록화첩이다. 보물 제652-6호로 지정돼 있다. 「현폭사후懸瀑射巖」는 천제연폭포에서 활을 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깎아지른 단애를 이룬 폭포의 좌우에 줄을 동여매고 그 줄을 이용해 추인蜀人(짚이나 풀로 만든 인형)이 좌우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천제연 계곡 양 옆으로는 송엽란松葉蘭·담팔수膽八樹를 비롯한 각종 난대성 식물이 자라면서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난대림지대로 지정돼 있다.

현재 천제연 제2폭포, 제3폭포 사이에는 아치형의 다리인 선임교가 가설돼 계곡 양단을 이어주고 있다. 다리 양쪽에는 칠선녀 조각상을 세웠으며, '천제루'라는 누각을 지어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천제연폭포 1970년대

교각 아래로 쉼 없이 달려온 물이 수직으로 떨어지며 시원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천제연은 3단으로 이뤄진 폭포다. 한라산에서 시작된 중문천(성천·베릿내) 물이 흘러든다. 이 물이 흘러 제2폭포, 제3폭포로 이어진다. 천제연 이름은 옥황상제를 모시는 칠선녀가 폭포 아래 맑은 물에 목욕을 하고 노닐다 가던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서귀포항

서귀포는 1981년 시·市 승격 이후 점차 발전하여 산남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서귀포는 작은 해안 마을에 불과했다. 중산간 마을인 홍로가 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었다. 제주의 해안마을은 중산간 마을에 비해 경지면적은 적고, 200년 간 지속된 출륙금지령으로 인해 해상활동이라고는 소규모 어업이 전부이기에 사회 구조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서귀西歸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홍로의 서귀진西歸鎭이 1959년 '서귀西歸'로 내려오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서귀포의 본격적인 발전은 일제 때 이루어진다. 1914년부터 181km의 일주도로가 착공되고, 1924년 면소재지 서귀포로 이전되고, 1927년 서귀항이 개항되면서 서귀포는 산남의 행정, 교통, 상업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천지연 하류 서귀포항 일대 1970년대

천지연 하류의 모습이다. 서귀포 앞 바다에는 문섬이 보인다. 지금은 이 일대가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지만 예전에는 농사를 짓고 억새밭이 펼쳐져 있었다.

고래공장

사선으로 뺀 방파제 바로 아래 고래공장 터가 보인다. “일제는 1900년 초부터 한반도 근해에서 포경을 독점했다. 그 주 사업장은 동해였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속된 동해에서의 고래 남획은 동해 포경의 쇠퇴로 이어졌고, 그 활로는 포경 영역을 남해와 서해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흑산도와 대청도, 그리고 서귀포에 대규모 고래공장이 세워진 배경이다.”¹¹⁾ 사진 속의 방파제는 1924년 축조되었고, 고래공장은 1930년 후반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래공장의 설립은 작은 포구였던 ‘서귀포西歸浦’가 1927년 개항한 이래 포경선, 교역선, 여객선들이 드나드는 대규모 항구로 확장하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1) 흑산도에 '포경근거지' 설치한 까닭-이주빈 기자의 '고래의 섬, 흑산도' 오마이뉴스 인용



새섬과 고래공장 1970년대

가운데 길게 뻗은 섬이 새섬이다. 그 뒤로 문섬과 새끼섬이 보인다. 새섬을 연결하는 방파제 바로 아래의 건물터가 고래공장이다.

새섬

사진 오른쪽으로 '새섬'의 일부가 보인다. 새鳥가 많아 '새섬'이 아니라 초가지붕을 이는 풀인 '새'가 자라는 섬이어서 '새섬'이라 부른다.

'새섬'은 천연적인 방파제 구실을 하였다. 그 동쪽을 '갯도'라고 이른다. 포구의 길목이라는 말이다. 그 안쪽 칸살을 '맞개外浦'라고 하고, 연외천 하구의 동쪽 어귀에 있는 비상시 포구를 '안개內浦'라고 이른다. 이곳에는 태풍이 불 때 배를 들여 매었다. 1927년 5월 조선총독부령 제 41호에 따라 제주항·성산항과 함께 지정항指定港이 되면서 개항을 하고 맞아 오늘에 이른다. '서귀포西歸浦'는 그 당시 '서귀西歸'라는 마을 이름을 취한 포구의 이름이다.



새섬과 서귀포항 주변 1970년대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섬이 새섬의 일부이다. 수평선에 떠 있는 섬은 섯섬이다.

선일포도당공장

서귀포 걸매생태공원이 있는 천지연 상류 연외천 인근에 세워진 선일포도당공장이 사진 중앙에 보인다. 서귀포는 봄에는 보리, 가을에는 고구마를 주로 키웠다. 보리는 주식으로 이용하고, 고구마를 잘게 썰어 햇볕에 말린 후 감저공장에 내다 팔았다.¹²⁾ 감저공장은 가공할 때 많은 물이 필요하기에 용천수가 많은 곳에 지어졌다. 정방폭포 절벽 위에도 감저공장이 있었다.¹³⁾ 1968년에 준공된 선일포도당공장은 감저공장에서 생산된 전분을 원료로 하여 포도당을 만든 후 설탕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도내에 수십 개의 감저공장이 생겨나고 고구마 농사가 성행하였지만, 1970년대 중반 제주도의 1차 산업이 밀감재배로 바뀌게 되면서 감저공장이 문을 닫고 이에 따라 선일포도당공장도 문을 닫게 되었다. 그 많던 고구마 밭이 밀감 밭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12) '감저'는 제주말로 '고구마'이다.

13) 정방폭포 사진 중 여성의 뒷모습이 보이는 사진에서 정방폭포 위의 있는 '감저공장'을 확인할 수 있다.



선일포도당공장 1970년대

사진 중앙에 선일포도당공장이 보인다. 하단에는 감귤나무가 심어져 있다.

서귀본향당

서귀포시 정방동 옛 삼일빌딩 남쪽 현 아카데미 극장 동쪽에 있다. 지번상으로는 서귀동 530번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조립식 당집이 있다. 당집 주위에 장방형으로 담을 둘렀다. 제일祭日은 정월 초하루 과세문안대제, 2월 13일 영등손맞이, 7월 13일 마불림제, 12월 13일 동짓제冬至祭를 올린다. 이 당은 옛 서귀리와 동홍리의 본향당으로 그 본풀이로 인하여 널리 알려졌다. 이 당에서는 ‘부르뭇도 지산국’을 모신다. 이 신神은 두 마을 사람들의 생산生産, 물고物故, 호적戶籍을 관장한다.

당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간판이 세워져 있다.

“이 곳은 서귀포시 서귀동 내 서귀본향당이다. 본향당 신화의 유래는 아방국 홍토나라 홍토천리와 어머국 비우나라 비우천리 사이에 낳은 부름웃님(風上神)과 지산국 부인이 영주, 봉래, 방장, 삼신산을 두루 돌아보고 우알서귀(上下西歸) 신낭(神木) 아래로 와서 좌정하므로 신당(神堂)이 생겼다. 이때부터 서귀에는 오씨, 이씨, 강씨, 현씨, 김씨, 박씨들이 별초당(別草堂)을 지어 살게 하고 만민 단궐로 삼았다. 서소남머리(西松木頭) 명득대십왕전(明得大十王殿) 어선, 어부, 쯤녀 등 바다를 다스리는 神)과 진안(西歸鎭內) 송씨부군(宋氏府君) 관청할망(官廳神) 산신의 여들애(山神8日堂神)님이 부름웃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한 공(功)으로 상(賞)을 받았다. 부름웃님에게 드리는 인사일(人事日)은 정월초하룻날 과세문안제(過歲問安祭), 이월 열사흘 영등손맞이, 칠월 열사흘 마불림대제일(馬增殖大祭日), 동짓돌 열나흘 한집생신일(堂神生神日)을 통하여 만민단궐의 서천민원(西天民願 : 生과 死, 幸과 不를 관장하는 玉皇帝의 都姓冊풀이)을 받아 안녕을 베풀었다. 본향당 세습무의 당면심방 차례를 보면 고씨, 박씨, 김씨, 강씨, 이씨, 송씨로서 3대째로 계승되어 왔다.”



천지연폭포 앞에서 연행되고 있는 곳 ① 1970년대

천지연폭포 앞에서 굿이 행해지고 있는 장면을 연속으로 담았다. 폭포의 물줄기가 시원스레 떨어진다.



천지연폭포 앞에서 연행되고 있는 곳 ㉔ 1970년대



천지연폭포 앞에서 연행되고 있는 곳 ③ 1970년대

바당당

서귀항에 인접한 神堂의 이름이다. 서귀항에서 천지연 쪽으로 난 도로 옆에 있다. 서귀포수협 앞쪽이다. 지번 상 서귀동 651-1번지에 해당한다. 절벽 아래 수령 300년이 넘는 팽나무가 있다. 그 아래 자연석을 에워둘러 담을 쌓고 시멘트로 제단祭壇을 마련하였다. 자연석을 상자 형태로 쌓은 뒤에 시멘트로 발라 마무리한 ‘궤’가 있다. 그 안에는 황제명덕대신皇帝明德大神이라고 음각陰刻한 비석을 세워 두었다. 물색은 없으나 나뭇가지에 실이 걸려 있다. 어선漁船을 부리는 사람들이 주로 다닌다. 영등제를 올린다. 이 당은 ‘돈짓당’으로 ‘명덕대시왕 돈지하르방 돈지할망’을 모신다. 이 신은 어선漁船과 해녀를 관장한다. 매월 매 3, 7일에 다닌다. 최근에 석축石築으로 벽을 올리고 지붕을 덮어 그 내부를 함부로 들여다 볼 수 없게 열쇠를 채웠다.



천지연폭포 앞에서 연행되고 있는 곳 ④ 1970년대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훤 사진집

漢山

그리고

濟州

제 5 장

식 물

식물

부종휴 선생, 식물사진의 특징과 의미

부종휴 선생은 제주도의 경관, 사회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진기록을 남겨왔는데, 식물관련 사진도 식생이나 식물의 종류를 기록하는 다양한 촬영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수집된 식물사진들의 전체적인 특징은 조경용 원예식물이나 정원이나 증식포지에서 기록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비록, 제주도의 자생식물에 대한 기록도 일부 포함되었지만 이들 식물들도 약용이나 식용 등의 자원식물을 중심으로 기록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부종휴 선생의 식물자원에 대한 관심은 1962년에 발표한 「본도 약초자원 개발의 현재와 장래의 문제」에서 익힐 수 있다. 이 글에서 ‘본도는 예부터 약초가 많다고 말하지만 다소를 막론하고 채약되어 활용되는 것이 재배종을 합쳐도 불과 50~60종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느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약초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박력있게 추진하려면 천연자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을 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에 기후 및 토질 등의 식물환경에 대한 조사연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부종휴 선생이 식물자원이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와 관련 있는 사진이 다른 식물분야보다 많이 촬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부종휴 선생의 약력 중 부산대 약학대학 조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 활동 등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남겨진 사진들 중에는 부종휴 선생이 1964년에 논문을 통해 보고한 제주도 미기록종 중에서 창질경이, 토끼풀과 같은 외래식물 뿐만 아니라 편백나무, 보리수나무, 솔비나무, 나비나무, 산수국, 비비추, 하늘타리, 등갈퀴나무, 논쟁이, 합다리나무, 골고사리, 주걱일엽, 정금나무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부종휴 선생이 남겨 놓은 사진들은 현재 누구나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높은 해상도의 사진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면, 남겨진 식물사진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식물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 것은 촬영장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사진을 통해 식물에 대한 열정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제주도의 미기록 식물을 알리고 전체 식물종류를 정립하였던 부종휴 선생이 식물사진기록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왜일까?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식물종의 연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진기록이 아닌 식물을 채집하고 표본을 만들어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에는 다양한 사진촬영장비와 기술이 보편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진기록을 연구와 소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부종휴 선생의 식물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표본채집이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부종휴 선생이 채집하고 제작된 표본은 서울대학교, 제주대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본들을 확인하고, 성과를 재조명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이다.



한라산 아고산대 관목림 및 고산식물

한라산의 아고산대는 산철쭉, 털진달래를 중심으로 하는 키 작은 떨기나무(관목)와 다양한 고산식물이 자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물 종다양성의 보고인데, 최근에는 제주조릿대의 번성으로 인해 과거 고산식물의 분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한라산 아고산대 금방망이 군락

우리나라에서 한라산과 북부지방의 고산지대 숲 가장자리 등지에 자라는 금방망이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며, 지금도 한라산에 산발적으로 분포하지만 과거처럼 군락을 찾아볼 수 없다.



느티나무[느릅나무과]

우리나라 북부지방의 함경남도, 평안남도 이남지방의 해발 1200m 이하의 마을부근 및 산기슭에 주로 자라는 느티나무는 잎이지는 큰 키나무이며, 한라산에서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인데, 가로수 등 관상용으로 이용된다.



마가목[장미과]

제주도 한라산과 중부이남지방의 산지에 자라는 마가목은 잎이지는 작은 키 나무이며, 유독성 나무지만 한방과 민간에서 가지와 열매를 약재로 쓴다.



한라산 만세동산일대 구상나무 숲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한라산과 지리산, 무등산, 덕유산 등지에 자라는 구상나무는 전나무과의 늘 푸른 바늘잎 큰키 나무인데, 한라산은 해발 1400m에서 정상까지 대규모 군락을 이루며 분포한다. 최근에 만세동산일대는 구상나무의 숲에 소나무 또는 낙엽활엽수 등이 이입하여 성장하면서 구상나무의 개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로 숲이 변화되었다.



창질경이[질경이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 제주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 창질경이는 유럽 원산의 외래식물이며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빈터, 특히 제주도와 내륙지방의 바닷가 모래땅에 많이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질경이와 같이 한방약재로도 쓰인다.



병굴(운향과)

병굴은 제주도에 자라는 감귤 중 하나의 종으로 과실의 모양이 병 모양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한성과 병충해에 강하고 가지는 밀생하고 가늘고 길며 가시가 있다.



맥문아재비【백합과】

우리나라 남부 섬지방의 낮은 지대 산지에 주로 자라는 맥문아재비는 관상용으로 흔히 심고 있다.



무화과나무【뽕나무과】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남부지방 등지에서 재배하는 무화과나무는 아시아에서 지중해에 걸쳐 자생하는 외래종으로 열매는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된다.



미나리아재비[미나리아재비과]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기슭, 산골짜기 또는 들녘의 습기가 있는 곳에 잘 자라는 미나리아재비는 여러해살이풀이며, 민간에서는 약용으로 이용된다.



백작약[미나리아재비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지 숲속의 반그늘에 드물게 자라는 백작약은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며 유독성 식물이지만 민간에서는 뿌리를 약용으로 이용한다.



박새【백합과】

우리나라 전국 산지의 약간 습기가 있는 산기슭이나 고산지대의 초원에 자라는 박새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유독성 식물이지만 한방에서는 뿌리와 줄기를 약용으로 이용한다.



협죽도[협죽도과]와 벽오동[벽오동과]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지방 일부에 관상용을 심는 협죽도는 인도 원산의 외래종으로 유독성 식물이다. 우리나라 각지에 관상용으로 심는 벽오동은 중국 원산의 외래종으로 잎이지는 큰키나무로 목재를 기구재, 악기재, 건축재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녹나무[녹나무과]와 유동[대극과]

제주도에서 한라산 해발 700m 이하의 산기슭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는 녹나무는 늘 푸른 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하고 한방에서 나무껍질을 약재로 쓰기도 한다. 중국 원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는 유동은 잎이지는 큰키나무이며, 민간에서 열매를 약재로 쓰기도 한다.



오동나무[현삼과]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 주로 자라고 관상용으로 심는 오동나무는 잎이지는 큰키나무로, 목재가 가볍고 무늬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잘 썩지 않아 가구재와 약재로 쓰인다.



머귀나무【운향과】

한라산 해발 1100m 이하에서 해안근처까지 양지바른 산지에 자라는 머귀나무는 잎이지는 작은 키 나무로 우리나라 울릉도와 남쪽의 여러 섬 지방에 분포하고, 한방이나 민간에서 약재로도 쓰인다.



감나무[감나무과]와 머귀나무[운향과]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야생으로 자라기도 하며 과수로도 심는 감나무는 잎이지는 큰키나무로,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인다. 한라산 해발 1100m 이하에서 해안근처까지 양지바른 산지에 자라는 머귀나무는 잎이지는 작은 키 나무로 우리나라 울릉도와 남쪽의 여러 섬 지방에 분포하고, 한방이나 민간에서 약재로도 쓰인다.



으름난초[난초과]

제주도와 충남, 전남북에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으름난초는 여러해살이 부생식물로 그늘진 숲 속의 식물체에 기생하며 자라는데, 자생지에 개체수가 적어 멸종위기야생식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개족도리【쥐방울덩굴과】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숲 속 산지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고, 유독성 식물이지만 한방에서 약재로도 쓰이며,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특산식물이다.



부추[백합과]

농가에서 흔히 재배하는 부추는 채소작물로 여러해살이풀이며, 식용뿐만 아니라 한방과 민간에서 비늘줄기를 약재로도 쓰인다.



제주상사화[수선화과]

제주도 방목지대 및 오름 주변에 계곡이나 물이 고여 있는 초지, 꽃자왈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는 제주상사화는 잎이 사라진 후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풀로, 제주에만 분포하는 특산식물이다.



수련[수련과]

우리나라 중부 이남지방에서 연못이나 늪지 등에 관상용으로 심는 수련은 여러해살이풀이다. 최근에는 많은 원예종 수련이 수입되어 전국의 각지에서 연못에 심고 있으며 꽃의 색깔과 모양도 여러 가지이다.



용설란[용설란과]

멕시코 원산의 원예종 식물인 용설란은 우리나라 각지에서 관광용으로 재배하는 늘 푸른 여러해살이풀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약재로 쓴다.



버즘나무[버즘나무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가로수 및 공원 등지에 흔히 심는 버즘나무는 유럽과 아시아 서부 원산의 잎이지는 큰키나무이며, 섬유원료나 종이원료 등으로 쓰인다.



차풀[콩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기슭이나 들녘 길가 풀숲이나 개울가 등지에서 흔히 자라는 차풀은 한해살이풀이며, 한방에서는 풀 전체를 약재로 쓴다.



조[벼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농가에서 밭에 재배작물로 심는 조는 한해살이 식물이며, 열매를 식용으로 하며 주조용 재료로도 쓰인다.



해당화[장미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바닷가 모래땅이나 산기슭에 자라는 해당화는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향료나 약재로 이용되기도 한다.



종가시나무【참나무과】

한라산 해발 600m 이하의 골짜기 등지에 주로 자라며 남부지방에 찾아 볼 수 있는 종가시나무는 늘 푸른 큰키나무로 목재는 다양한 산업용으로 이용되고, 한방이나 민간에서 써는 약재로도 쓰인다.



이나무[이나무과]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숲속이나 바닷가 산기슭에 자라는 이나무는 잎이지는 큰키나무이며, 목재는 가구재로 쓰이고 황색으로 물드는 단풍과 붉은 열매의 어울림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심는다.



감국[국화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의 양지바르고 메마른 곳에 주로 자라는 감국은 여러해살이풀이며, 관상용이나 약재로도 쓰인다.



산꽃고사리삼【고사리삼과】

우리나라 제주도 및 남부지방에 약간 햇볕이 드는 숲속에 자라는 산꽃고사리삼은 늘 푸른 여러해살이 양치식물이며, 관상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워싱턴야자[야자나무과]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가 원산지인 야자나무의 한 종류인 워싱턴야자는 늘 푸른 잎이 넓은 큰키나무이고, 제주도에서는 가로수로도 심기도하고, 우리나라 따뜻한 지방에서는 정원수로 가꾸기도 한다.



감탕나무[감탕나무과]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해안지대 산허리 숲속에 자라는 감탕나무는 늘 푸른 작은 키 나무이며, 염료재 등의 산업적인 이용과 함께 관상용으로 심는다.



돈나무{돈나무과}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바닷가 산기슭이나 산지에 자라는 돈나무는 늘푸른떨기나무이며,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데 나무껍질을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기도 한다.



사상자【산형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지 숲속 그늘이나 골짜기 개울가 주변의 풀숲 등지에서 흔히 자라는 사상자는 두해살이풀이며, 한방에서 열매를 약재로 쓴다.



뚝사초[사초과]

우리나라 전국의 논이나 강가에 나는 뚝사초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사위질뿔[미나리아재비과]과 쌍살벌[말벌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 등지에 흔히 자라는 사위질뿔은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덩굴식물로 한방에서 전체를 약재로 쓰지만 유독성 식물이다.



바랭이[벼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들녘, 길가, 언덕이나 농가의 경작지 등에 흔히 나는 바랭이는 밭 잡초인데 한해살이풀이며, 가축의 사료로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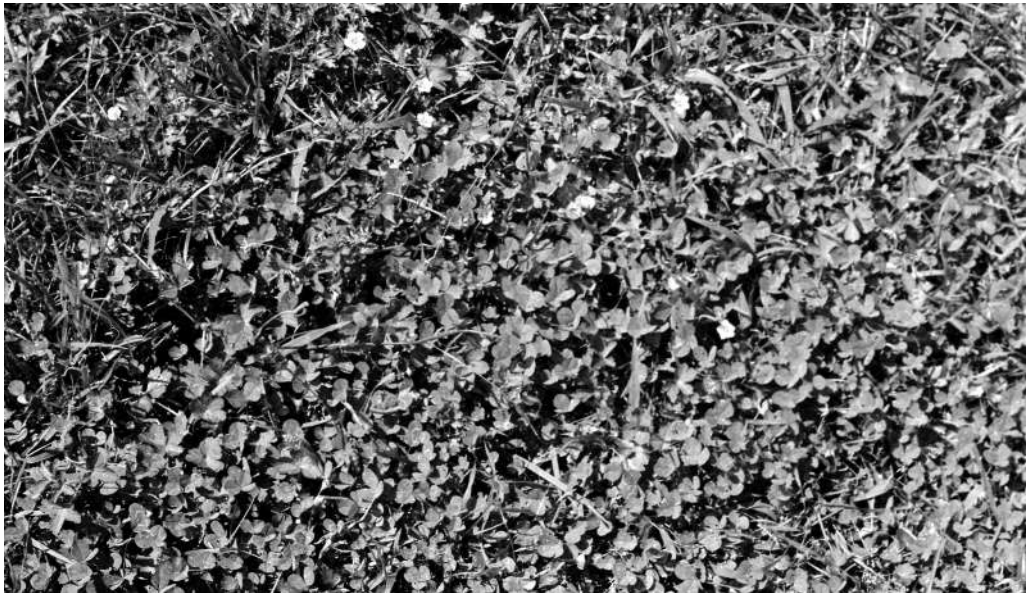
방동사니[사초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인가 부근의 밭이나 물가의 논둑 등에서 흔히 자라는 방동사니는 한해살이풀이며, 논밭의 대표적인 잡초이다.



수크령【벼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 대개는 낮은 산이나 들녘 길가의 밭둑 등에 흔히 자라는 수크령은 여러해살이풀이며, 가축의 사료용이나 가내세공재로 쓴다.



토끼풀【콩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 제주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 토끼풀은 유럽 원산의 외래식물이고 여러해살이풀이며, 목초 자원으로 들여와 재배하던 것이 지금은 전국 각지의 산과 들에 퍼져 나가 야생상태로 자란다.



매듭풀(콩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 들녘의 길가나 길바닥 등에서 흔히 자라는 매듭풀은 한해살이풀이다.



고사리[고사리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 산과 들의 햇볕이 잘 드는 숲 가장자리 및 양지에 무리지어 자라는 고사리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어린 잎자루와 잎은 나물로 먹고 뿌리는 한방과 민간에서 약재로 쓴다.



보리수나무[보리수나무과]와 곶솔(해송)[소나무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 제주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 보리수나무는 제주도와 중부 이남지방에 이르는 낮은 지대 산지에 자라는 잎이지는 떨기나무로 관상수로 심기도 하고 민간약재로도 쓴다. 우리나라에서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소나무와 같이 자라기도 하지만 대개는 바닷가에서 무리를 이루어 자라는 곶솔은 늘 푸른 바늘잎 큰키나무로, 관상수로 심기도하고 한방에서 꽃, 잎, 열매, 송진을 다양한 약재로 채취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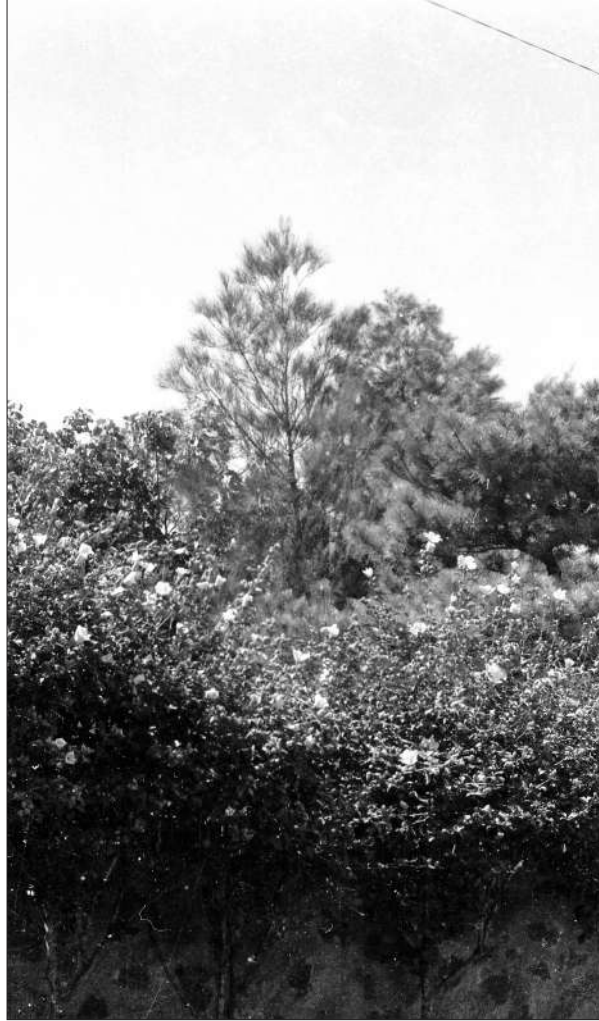
솔비나무[콩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 제주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 솔비나무는 한라산 해발 1100~1800m의 고원지대에 자라는 특산식물이며, 잎이지는 작은 키 나무로 관상용 또는 줄기와 껍질을 염료제로 쓰기도 한다.



나비나물[콩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 제주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 나비나물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지 떨기나무 숲이나 산기슭, 산허리 및 높은 산에까지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양봉농가의 밀원자원이 되기도 한다.



무궁화[아욱과]와 소나무류

인도, 중국, 시리아 원산인 무궁화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심는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다.



먼나무[감탕나무과]

제주도 및 남부지방 해안지의 산지에 자라는 먼나무는 늘 푸른 큰키나무이며, 10월에 붉은색으로 열매가 익는데, 관상용으로 심는다.



순비기나무[마편초과]

우리나라 중부 이남지방의 바닷가 모래땅에 자라는 순비기나무는 잎이지는 떨기나무로, 줄기는 땅 위를 기면서 번지 비스듬히 위로 자라며, 관상용으로도 심고, 한방에서 열매와 뿌리, 줄기를 약재로 쓴다.



등수국[범의귀과]

우리나라 남부지방 섬의 산지 나무 숲 속에 자라는 등수국은 잎이 지는 덩굴식물이며, 관상용으로 심는다.



소귀나무[소귀나무과]

제주도에서 한라산 해발 250m 이하의 산기슭에 자라는 소귀나무는 늘 푸른 큰키나무로, 한방과 민간에서 다양한 약재로 쓴다.



초령목{목련과}증식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전남 홍도에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초령목은 잎이지는 큰키나무이지만 개체수가 희귀하며, 불전에 이 식물의 가지를 꽂는다고 해서 초령목招靈木이라고 한다.



산수국[범의귀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에 제주도 미기록종 보고한 산수국은 우리나라 중부 이남지방의 산지, 산골짜기나 냇가 등지에 자라지만 대개는 해발 1000m 이하의 골짜기 나무 숲 등에 자라는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한다.



자귀나무[콩과]

우리나라 중부지방 이남의 산기슭이나 산허리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라는 자귀나무는 잎이지는 작은 키 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 한방에서 뿌리껍질을 약재로 쓴다.



부채마[마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지에 자라는 부채마는 여러해살이 덩굴식물이다.



수국【범의귀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관상용으로 흔히 심고 있는 수국은 일본 원산의 원예 교배종으로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열매는 맺지 않아 뿌리나누기로 번식한다.



닭의장풀【닭의장풀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 낮은 지대 골짜기의 냇가나 마을근처의 길가와 언덕, 집주변 밭 등지에서 흔히 자라는 닭의장풀은 한해살이풀이며, 식물체를 민간에서 약재로도 쓴다.



봉선화【봉선화과】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원산이며 관상용으로 들여와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뜰 안에 흔히 심는 봉선화는 한해살이 풀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씨를 약재로도 쓰이고 꽃, 잎과 줄기를 염료재로도 쓴다.



구상나무【전나무과】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한라산과 지리산, 무등산, 덕유산 등지에 자라는 구상나무는 늘 푸른 바늘잎 큰키나무이며, 목재는 건축재, 기구재로 쓰고 공원이나 식물원, 정원 등지에 관상용으로 심는다.



주목[주목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높은 산 고산지대에 자라는 주목은 늘 푸른 바늘잎 큰키나무이며, 정원의 관상수로 심기도 하며, 한방과 민간에서 약재로도 쓴다.



맥문동[백합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지 숲속 그늘진 곳이나 산기슭 언덕에 자라는 맥문동은 여러해살이풀이며,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데 덩이줄기나 뿌리를 약재로 쓴다.



편백나무[측백나무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 제주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하기도 한 중국 남부지방과 일본이 원산인 편백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관상용으로 흔히 심는 늘 푸른 비늘잎큰키나무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잎을 약재로도 쓴다.



수국[범의귀과]과 향나무류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관상용으로 흔히 심고 있는 수국은 일본 원산의 원예 교배종으로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열매는 맺지 않아 뿌리나누기로 번식한다.



측백나무【측백나무과】

우리나라 중부지방 산지에서 떨기나무 상태로 자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측백나무는 늘 푸른 비늘잎큰키나무이며, 전국적으로 울타리용으로 흔히 심는데, 한방과 민간에서는 비늘잎과 가지 그리고 익은 씨를 약재로도 쓴다.



문주란[수선화과]

제주도의 동쪽 바닷가에 위치한 토끼섬에 무리지어 자라는 문주란은 여러해살이풀이며, 관상용으로 심고, 유독성 식물이지만 한방에서 약재로도 쓴다.



금테사철나무【노박덩굴과】

제주도와 중부, 남부지방의 바닷가에 자라는 금테사철나무는 늘푸른떨기나무인데 잎 가장자리가 황색인 것이 특징이다. 관상용으로 많이 심고 나무껍질과 열매를 한방에서 약재로도 쓴다.



수국[범의귀과]과 촉백나무[촉백나무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관상용으로 흔히 심고 있는 일본 원산인 수국은 원예 교배종으로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열매는 맺지 않아 뿌리나누기로 번식한다. 우리나라 중부지방 산지에서 떨기나무 상태로 자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촉백나무는 늘 푸른 비늘잎큰키나무이며, 전국적으로 울타리용으로 흔히 심는데, 한방과 민간에서는 비늘잎과 가지 그리고 익은 씨를 약재로도 쓴다.



눈향나무【측백나무과】

우리나라 높은 산 바위틈 등에 자라는 눈향나무는 늘 푸른 바늘잎떨기나무인데, 줄기는 구불구불하게 덩굴지며 옆으로 비스듬히 위로 번는데 관상용으로 심고 있다.



나한송【나한송과】

중국 원산인 나한송은 늘 푸른 바늘잎 작은 키 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식물원이나 정원 또는 온실에 심는다.



꽃치자【꼭두서니과】

중국 원산의 약용작물, 염료작물로 우리나라에 들어 남부지방에 재배하는 꽃치자는 늘 푸른 떨기나무이며, 관상용뿐만 아니라 약재, 식품 및 옷감의 물감원료로도 쓴다.



독일가문비나무【소나무과】

독일 원산인 독일가문비나무는 늘 푸른 바늘잎 큰키나무이며,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 관상용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목재는 건축재, 펄프재 등으로 쓰인다.



거문딸기[장미과]와 무궁화[아욱과]

우리나라 남부지방 섬에 자라나는 거문딸기는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다. 인도, 중국, 시리아 원산인 무궁화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심는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다.



송악[두릅나무과]

우리나라의 중부 이남지방에 분포하며 산이나 골짜기, 개울가 또는 집 근처의 돌담 등에 자라는 송악은 늘 푸른 떨기 나무이고 유독성 덩굴식물이며 관상용 및 민간과 한방에서 약재로 쓰인다.



수국【범의귀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관상용으로 흔히 심고 있는 일본 원산의 원예 교배종으로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열매는 맺지 않아 뿌리나누기로 번식한다.



왕벚나무[장미과]와 편백나무[측백나무과]

제주도가 자생지인 왕벚나무는 특산식물로 한라산 450~900m에 자라는 잎이지는 큰키나무이며, 전국 각지의 가로변 등지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어져있는데, 한방과 민간에서 나무껍질과 잎을 약재로도 쓴다. 부종휴 선생이 1964년 제주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하기도 한 중국 남부지방과 일본이 원산인 편백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관상용으로 흔히 심는 늘 푸른 비늘잎큰키나무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잎을 약재로도 쓴다.



붓순나무[붓순나무과]

우리나라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숲속에 자라는 붓순나무는 늘 푸른 작은 키 나무이며, 유독성 식물이지만 민간에서는 잎의 즙을 내어 살충제로, 한방에서는 나무껍질, 뿌리껍질을 약재로 쓴다.



황칠나무【두릅나무과】

제주도와 남부 섬지방의 산기슭에 자라는 황칠나무는 늘 푸른 큰키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는데 나무껍질에 상처를 내면 황색의 유액이 나오며 이것을 황색염료제로 쓰이기 때문에 황칠나무이다.



통탈목[두릅나무과]

대만 및 중국 원산인 통탈목은 늘 푸른 떨기나무 또는 작은 키 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는데 한방과 민간에서는 뿌리를 약재로도 쓴다.



꽃치자[꼭두서니과]

중국 원산의 약용작물, 염료작물로 우리나라에 들어 남부지방에 재배하는 꽃치자는 늘 푸른 떨기나무이며, 관상용뿐만 아니라 약재, 식품 및 옷감의 물감원료로도 쓴다.



육계나무[녹나무과]

제주도에서 자라는 육계나무는 늘 푸른 큰키나무로 뿌리는 과자의 향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서만 찾아볼 수 있다.



녹나무[녹나무과]

제주도에서 한라산 해발 700m 이하의 산기슭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는 녹나무는 늘 푸른 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 한방에서는 나무껍질을 약재로 쓰기도 한다.



왕대[벼과]

중국 원산의 재배종으로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들여온 왕대는 늘 푸른 큰키나무이며 죽순은 식용으로, 잎은 한방과 민간에서 약재로 쓴다.



파초[파초과]와 통탈목[두릅나무과]

중국 원산의 관엽식물로 우리나라 관상용으로 들여와 남부지방에 주로 심는다. 파초는 열매의 모양이 바나나와 비슷하고 먹을 수 있다. 대만 및 중국 원산인 통탈목은 늘 푸른 떨기나무 또는 작은 키 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는데 한방과 민간에서는 뿌리를 약재로도 쓴다.



차나무[차나무과]

중국 원산이며 우리나라에 들여와 남부지방에 재배하고 있는 차나무는 늘 푸른 떨기나무이며, 잎은 차의 원료로 쓰이며, 씨는 기름 원료로 쓴다.



참가시나무【참나무과】

제주도와 전라남도, 울릉도의 해발 1000m 이하의 산허리 및 바닷가 산기슭에 자라는 참가시나무는 늘 푸른 큰키 나무이다.



협죽도[협죽도과]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지방 일부에 관상용으로 심는 협죽도는 인도 원산의 외래종으로 유독성 식물이다.



개나리【물푸레나무과】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전국 각지의 마을근처에 자라는 개나리는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관상용뿐만 아니라 한방에서 약재로도 쓰인다.



메타세콰이어(수삼나무)【낙우송과】

중국 원산으로 우리나라 각지에서 관상수로 널리 심고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잎이지는 바늘잎 큰키나무이며, 목재는 산업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모새나무【진달래과】

제주도 및 남부지방의 섬에 자라는 모새나무는 늘 푸른 떨기나무로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 열매는 식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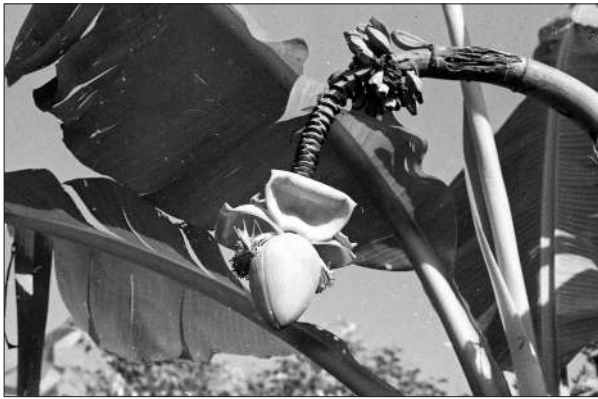
깨꽃(셀비어)[꿀풀과]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원산이며 관상용과 약용으로 들여와 전국 각지에서 흔히 심는 셀비어라고도 불리는 깨꽃은 여러해살이풀이며 떨기나무 모양으로 자란다.



제라늄【쥐손이풀과】

남아프리카 원산의 원예품종으로 전국 각지에서 관상용을 흔히 심는 제라늄은 여러 해살이풀이다.



파초[파초과]

중국 원산의 관엽식물로 관상용으로 들여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주로 심는 파초는 열매의 모양이 바나나와 비슷하고 먹을 수 있다.



애기범부채(몬트부레치아)【붓꽃과】

남아프리카 원산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 바닷가에 군락으로 나타나는 애기범부채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외래식물이다.



털머위[국화과]

우리나라 남부지방 바닷가의 숲속에 자라는 털머위는 늘 푸른 잎을 지닌 여러해살이풀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약재로도 쓰이고 관상용으로도 심는다.



왜철쭉[진달래과]

우리나라 각지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 왜철쭉은 잎이지는 키 작은 나무로 철쭉나무를 개량한 원예종의 한 품종이다.



눈향나무[족백나무과]

우리나라 높은 산 바위틈 등에 자라는 눈향나무는 늘 푸른 바늘잎떨기나무인데, 줄기는 구불구불하게 덩굴지며 옆으로 비스듬히 위로 받는데 관상용을 심고 있다.



엽란[백합과]

제주도와 전남 거문도에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엽란은 늘 푸른 여러해살이풀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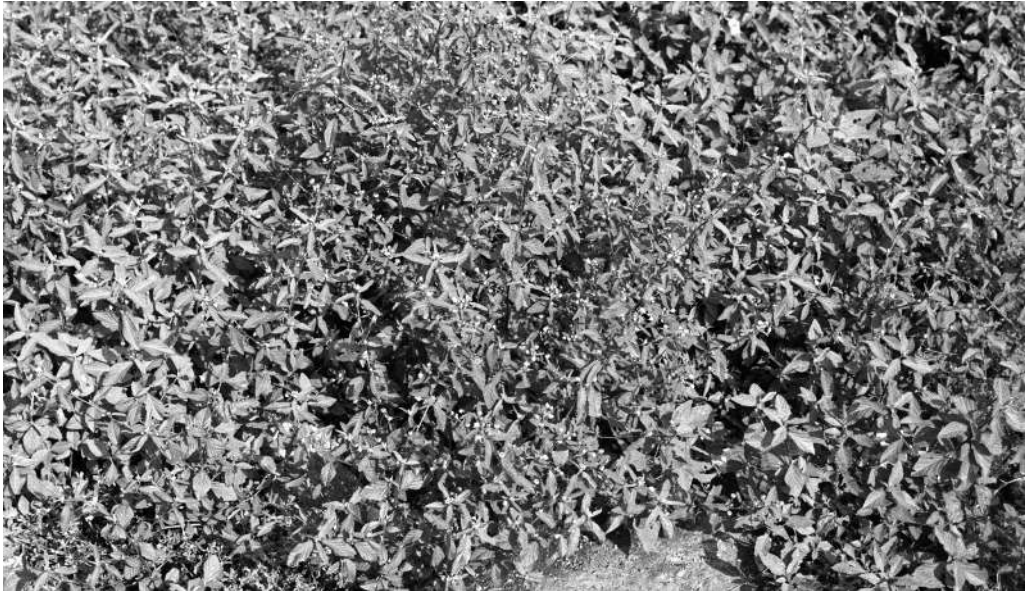
굴거리나무【대극과】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산기슭 나무 숲속에서 자라는 굴거리나무는 늘 푸른 작은 키 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으며, 한방과 민간에서 잎과 나무껍질을 약재로 쓴다.



붉나무[웃나무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낮은 지대 산과 들에 있는 떨기나무 숲 또는 비교적 메마른 절개지 등에 흔히 자라는 붉나무는 잎이지는 작은 키 나무이며, 한방에서 약재로도 쓴다.



나도공단풀[아욱과]

열대지방 원산의 외래식물인 나도공단풀은 제주도의 해안가나 길가, 경작지 주변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며, 한 방에서는 뿌리를 약재로 쓰이기도 한다.



채송화[쇠비름과]

남아메리카 원산으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관상용으로 흔히 심는 채송화는 한해살이풀이며, 세계 각 지역에서 관상용으로 심는 대표적인 꽃이다.



고삼(콩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양지바른 산기슭 풀숲이나 들녘, 길가의 언덕 등에 자라는 고삼은 여러해살이풀이며, 뿌리를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기도 한다.



부용[아욱과]

중국 원산의 관상식물이며 우리나라 각지의 가로변이나 공원 등지에 흔히 심는 부용은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잎과 뿌리를 약재로 쓴다.



비비추[백합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 제주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 비비추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산지 냇가 등지의 바위틈이나 초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어린잎은 나물로 먹기도 한다.



하늘타리【박과】

우리나라 중부 이남지방의 낮은 지대 산과 들녘의 밭둑이나 인가 주변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하늘타리는 여러해살이 덩굴풀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약재로 쓴다.



수세미오이【박과】

인도 및 열대아시아, 아프리카 원산인 수세미오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용 및 약용으로 각지에서 재배하는 한해살이 덩굴작물이다.



민백미꽃【박주가리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지에 나무 숲 속, 특히 참나무가 많은 숲 속에서 흔히 자라는 민백미꽃은 여러해살이풀이며, 한방에서 뿌리를 약재로 쓰기도 한다.



방울새란[난초과]

제주도 및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지역 산지의 습한 곳에 자라는 방울새란 여러해살이풀이며, 관상용으로 이용된다.



등갈퀴나물[공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에 제주도 미기록종 보고한 등갈퀴나물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 초원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양봉농가의 밀원자원이 되며 대개 목초로 쓴다.



사철나무[노박덩굴과]

제주도와 중부, 남부지방의 바닷가에 자라는 사철나무는 늘 푸른 떨기나무이며,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데 나무껍질과 열매를 한방에서 약재로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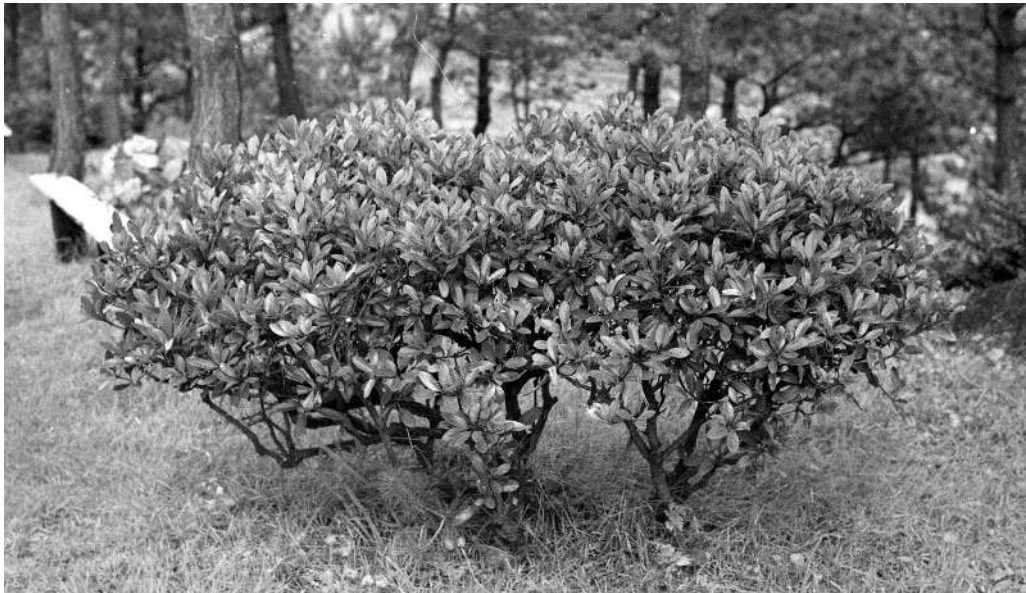
칸나[홍초과]

열대 아메리카 및 열대 아시아, 아프리카의 원산인 칸나는 대개가 원예품종이며 관상용으로 들여와 재배하고, 공원이나 길가에 많이 심는다.



까마귀쪽나무[계수나무과]

제주도 및 울릉도, 남부지방과 남해의 섬지방 바닷가 산기슭에 자라는 까마귀쪽나무는 늘 푸른 작은 키 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며, 열매는 먹기도 하고 잎은 향료재로 쓴다.



다정큼나무[장미과]

제주도와 남해 해안지방과 각 섬 지방의 해발 700m 이하의 바닷가 양지바른 산기슭에 자라는 다정큼나무는 늘 푸른 떨기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는다.



능소화{능소화과}

중국 원산의 능소화는 잎이지는 덩굴나무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관상용으로 심고 꽃을 약재로도 쓴다.



선인장[선인장과]

제주도 및 남부도서에 자라는 선인장은 여러해살이풀인데,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에서 아열대에 걸쳐진 메마른 사막지대에 자라며 멕시코를 분포지의 중심지로 하는 다육질 식물이며 관상용으로 심거나 열매는 식용, 민간에서 줄기를 약재로 쓴다.



왕모람[뽕나무과]

제주도 및 남쪽 섬 지방 해발 300m 이하의 바닷가 산기슭에 따뜻한 곳에 자라는 왕모람은 늘 푸른 떨기나무이며, 열매를 먹으며 잎, 나무껍질, 뿌리껍질을 약재로 쓴다.



침[콩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에서 흔히 자라는 침은 여러해살이풀이며 덩굴식물로 한방이나 민간에서 뿌리를 약재로 쓰이거나 즙을 내어 먹는다.



우목사스레피나무[차나무과]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해안가와 각 섬 지방에 자라는 우목사스레피나무는 늘 푸른 떨기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는다.



골등골나물[국화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지 산기슭이나 들에 자라는 골등골나물은 여러해살이풀이며, 어린잎을 식용으로 쓰기도 한다.



갯대추나무[갈매나무과]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의 해발 50m 이하의 바닷가 언덕에서 주로 자라는 갯대추나무는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는다.



황근[아욱과]

제주도의 바닷가와 진도, 완도에서 드물게 자라는 황근은 잎이지는 떨기나무로 관상용으로 심고, 민간에서 나무껍질을 약으로도 쓴다.



호랑가시나무[감탕나무과]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산기슭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는 호랑가시나무는 늘 푸른 떨기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는다.



패랭이꽃[석죽과]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의 산과 들, 산기슭이나 길가 언덕 등의 메마른 모래땅 풀숲에 흔히 자라는 패랭이꽃은 여러 해살이풀이며, 관상용 및 한방에서 약재로 널리 쓰인다.



노랑하늘타리【박과】

제주도 및 남해의 섬지역 산과 들, 인가부근 돌담장 등에 자라는 노랑하늘타리는 여러해살이 덩굴풀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약재로 쓴다.



오이【박과】

인도 원산이며,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농가에서 채소작물로 재배하는 오이는 한해살이 덩굴채소작물이며, 오이즙은 화장품의 원료나 민간에서 약으로도 쓴다.



광대수염【꿀풀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지 골짜기 약간 그늘진 개울가 둑이나 밭둑 등에 자라는 광대수염은 여러해살이풀이며, 어린잎은 나물로 먹으며, 풀 전체를 한방에서 약재로 쓴다.



절굿대【국화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낮은 산지부터 높은 산에 있는 양지바른 초원이나 떨기나무 숲에 자라는 절굿대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어린잎은 식용으로 쓰고 한방과 민간에서는 열매, 꽃, 뿌리를 약재로 쓴다.



으아리[미나리아재비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기슭이나 들녘 양지바른 언덕에 자라는 으아리는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유독성 식물이지만 한방에서 약재로 쓴다.



개승마【미나리아재비과】

제주도 및 남부지방의 산지의 골짜기에 자라는 개승마는 여러해살이풀이며, 뿌리를 약용으로도 쓴다.



왕모시풀[썩기풀과]

제주도 및 남부지방 해안 등 바닷가에 많이 자라는 왕모시풀은 여러해살이풀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약재로도 쓴다.



애기나리【백합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지 나무 숲속에 자라는 애기나리는 여러해살이풀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식물체를 약재로 쓴다.



나사미역고사리【고란초과】

제주도내 숲 속이나 계곡의 바위 곁, 고목 밑에 자라는 나사미역고사리는 여러해살이 양치식물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다.



바늘엉겅퀴【국화과】

제주도의 한라산 초원지에 자라는 특산식물인 바늘엉겅퀴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엉겅퀴와 같이 한방과 민간에서 약재로 쓴다.



개면마[면마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나무숲 밑에 자라는 개면마는 여러해살이 양치식물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한다.



한라돌쩌귀[미나리아재비과]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에만 찾아볼 수 있는 한라돌쩌귀는 덩굴성 여러해살이풀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하고 뿌리는 약용으로 쓴다.



논냉이【십자화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에 제주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 논냉이는 우리나라 각지의 들녘, 논둑, 논바닥 물이 있는 곳이나 근처의 도랑가 등의 습지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까실쑥부쟁이【국화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지 초원이나 산기슭에서 자라는 까실쑥부쟁이는 여러해살이풀이며, 한방에서 식물체를 약재로 쓴다.



물봉선【봉선화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 산골짜기 냇가 및 낮은 지대의 도랑가 등지의 습기 있는 곳에 자라는 물봉선은 한해 살이풀이며, 유독성 식물로 한방과 민간에서 씨를 약재로 쓴다.



변행초[석류과]

제주도와 남부, 중부이남지방 및 남쪽 각 섬지방의 바닷가 모래땅에 자라는 변행초는 여러해살이풀이며, 꽃이 필 때 채집하여 말린 것을 변행초삼이라 하고 민간에서 약으로 쓴다.



고추나물(물레나물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낮은 지대 산기슭이나 습기 있는 언덕 등에서 자라는 고추나물은 여러해살이풀이며, 어린잎과 줄기는 나물로 먹고 한방과 민간에서 풀 전체를 약재로 쓴다.



왕고들빼기【국화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낮은 산과 들, 산골짜기, 밭둑이나 들녘의 강변 또는 개울가, 마을 근처의 빈터 등지에 자라는 왕고들빼기는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이며, 어린잎은 먹기도 하고 한방과 민간에서 식물체를 약재로 쓴다.



멀구슬나무[멀구슬나무과]

제주도 및 전남과 경남지방의 마을 근처에서 관상용으로 흔히 심고 있는 멀구슬나무는 잎이지는 큰키나무이며, 한방에서 열매, 나무, 뿌리껍질을 약재로 쓴다.



산딸기【장미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지 해발 1100m 이하의 양지바른 길가 언덕이나 밭둑 등에 흔히 자라는 산딸기는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예부터 맛이 좋아 생으로 많이 먹는다.



갯완두(콩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바닷가 모래땅에 자라는 갯완두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줄기와 잎을 한방약재로 쓴다.



송장풀【꿀풀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지 산기슭 길가의 초원에 자라는 송장풀은 여러해살이풀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풀 전체를 약재로 쓴다.



음나무[두릅나무과]

전국 각지의 숲속에 자라는 음나무는 잎이지는 큰키나무이며, 어린잎은 식용으로 쓰이고 나무껍질은 약재로 쓴다.



개곽향[꿀풀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낮은 산기슭이나 골짜기의 약간 습기가 있는 곳에 자라는 개곽향은 여러해살이풀이며, 한방에서는 풀 전체를 약재로 쓴다.



노랑꽃창포【붓꽃과】

유럽 원산의 원예종으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연못과 습지에 관상용으로 심는 노랑꽃창포는 여러해살이풀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뿌리를 약재로 쓴다.



왕원추리【백합과】

중국 원산이며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관상용으로 심는 왕원추리는 여러해살이풀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뿌리를 약재로 쓴다.



카나리아야자[야자나무과]

카나리아 제도가 원산지인 카나리아야자는 야자나무의 한 종류로 늘 푸른 큰키나무이며, 정원수와 가로수로 많이 심는다.



카나리아야자와 워싱턴야자[야자나무과]

카나리아 제도가 원산지인 카나리아야자는 야자나무의 한 종류로 늘 푸른 큰키나무이며, 정원수와 가로수로 많이 심는다.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가 원산지인 워싱턴야자는 야자나무의 한 종류로 늘 푸른 잎이 넓은 큰키나무이고, 제주도에서는 가로수로도 심기도하고, 우리나라 따뜻한 지방에서는 정원수로 가꾸기도 한다.



담배풀(국화과)과 달팽이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 숲 가장자리나 개울가 또는 골짜기의 그늘지고 습기 있는 곳에 자라는 담배풀은 여러해살이풀이며, 식물체를 약재로 쓴다.



갯쑥부쟁이【국화과】

우리나라의 남부, 중부, 북부지방의 바닷가 메마른 초원에 자라는 갯쑥부쟁이는 두해살이풀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 한방에서 식물체를 약재로 쓴다.



큰뺨무{장미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의 숲 가장자리 또는 길가 빈터나 개울가 약간 습기 있는 곳에 주로 자라는 큰뺨무는 여러해살이풀이며, 풀 전체가 한방과 민간에서 약재로 쓴다.



애기더덕[초롱꽃과]

한라산 해발 1000~1400m 지역에 부분적으로 분포한 산철쭉, 아그배나무 등으로 구성된 키 작은 나무숲에 산발적으로 자라는 애기더덕은 덩굴성 여러해살이풀이며 제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로 알려져 있다.



무화과나무(뽕나무과)증식모습

아시아 서부에서 지중해에 걸쳐 자생하는 외래종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 제주도 등지에서 재배하는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열매는 식용으로 쓰이고 민간에서 나무껍질과 뿌리껍질을 약으로 쓴다.



함박이【방기과】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섬 바닷가의 산기슭에 자라는 함박이는 잎이지는 덩굴성 식물로, 뿌리를 약용으로 쓰인다.



쇠서나물(국화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 대개는 산지의 양지바르고 메마른 곳에 자라는 쇠서나물은 두해살이풀이며, 어린잎을 나물로 먹기도 하며, 식물체를 한방에서 약재로 쓴다.



피막이【산형과】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산지 습기 있는 곳에 자라는 피막이는 여러해살이풀이며, 한방과 민간에서 풀 전체를 약재로 쓰는데 지혈(피멧이) 작용을 잘 하기 때문에 피막이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질경이[질경이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우마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 바닥 가운데 단단한 땅이나 빈터 등지 흔히 자라는 질경이는 여러해살이풀이며, 한방에서 식물체와 씨를 약재로 쓴다.



합다리나무【나도밤나무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에 제주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 합다리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이남지역의 해발 1300m 이하의 양지바른 산기슭이나 바닷가 부근에 자라는 잎이지는 큰키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 목재는 건축재, 기구재 등으로 쓰인다.



송이고랭이【방동사니과】

우리나라 전국의 들녘 물가 또는 습지에 자라는 송이고랭이는 여러해살이풀이며, 관상용으로 연못에 심기도 하고 한방과 민간에서 뿌리와 줄기를 약재로 쓴다.



민들레【국화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 들녘 길가 독이나 밭둑 등지의 양지에서 흔히 자라는 민들레는 여러해살이풀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 어린잎은 먹기도 하며, 뿌리는 한방에서 약재로 쓴다.



골고사리【꼬리고사리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에 제주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 골고사리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나무 숲속에 자라는 늘 푸른 여러해살이 양치식물이며, 관상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주걱일엽[고란초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에 제주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 주걱일엽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의 늘 푸른 나무숲에 바위 곁에 자라는 작은 늘 푸른 여러해살이 양치식물이며, 관상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더덕[초롱꽃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깊은 산지 산기슭 나무 밑 그늘진 숲속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더덕은 여러해살이풀이며, 전국의 농가에서 약용, 식용식물로 많은 재배가 이루어진다.



양지꽃[장미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 길가 언덕이나 빈터 등지의 양지에 흔히 자라는 양지꽃은 여러해살이풀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 어린 순은 나물로 먹기도 한다.



찔레나무【장미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과 들에 양지바른 곳이나 마을 부근의 언덕 등에 흔히 자라는 찔레나무는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덩굴지거나 비스듬히 자라는데, 한방에서 열매를 약재로도 쓴다.



겨우살이[겨우살이과]

우리나라 각처 산지의 참나무, 팽나무, 밤나무, 자작나무 등의 나무줄기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겨우살이는 늘 푸른 떨기나무인 기생식물로 한방과 민간에서 식물체를 약재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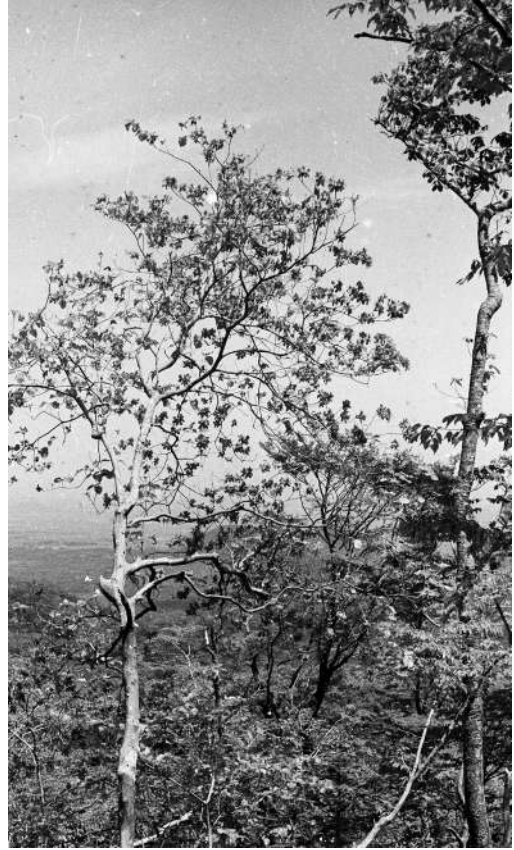
떡버들[버드나무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해발 300~1700m 사이의 산골짜기 및 산 중턱에서 흔히 자라는 한국특산식물인 떡버들은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정원이나 공원 등지에 심기도 하고, 민간에서 잎을 약으로도 쓴다.



구상나무【전나무과】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한라산과 지리산, 무등산, 덕유산 등지에 자라는 구상나무는 늘 푸른 바늘잎 큰키나무이며, 목재는 건축재, 기구재로 쓰고 공원이나 식물원, 정원 등지에 관상용으로 심는다.



참꽃나무【진달래과】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 산지의 숲속에서만 자라는 참꽃나무는 잎이지는 떨기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는다.



곰솔[소나무과]

우리나라에서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소나무와 같이 자라기도 하지만 대개는 바닷가에서 무리를 이루어 자라는 곰솔은 늘 푸른 바늘잎 큰키나무로, 관상수로 심기도 하고 한방에서 꽃, 잎, 열매, 송진을 다양한 약재로 채취하여 사용한다.



정금나무[진달래과]

부종휴 선생이 1964년 제주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 정금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이남지방의 산중턱, 산등성이에 자라는 잎이지는 작은 키 나무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 열매는 먹기도 한다.



제주조릿대【벼과】

제주도의 한라산 전역에 자라는 제주조릿대는 늘 푸른 작은 대나무이며, 관광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민간에서 순과 잎을 약재로도 쓴다.



선인장[선인장과]

제주도 및 남부도서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인데,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에서 아열대에 걸쳐 메마른 사막지대에 자라며 멕시코를 분포지의 중심지로 하는 다육질 식물이며 관상용으로 심거나 열매는 식용, 민간에서 줄기를 약재로 쓴다.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제주도 성주풀이』
- 제주도, 1997, 『제주의 오름』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문화상징』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7,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 선생 업적 발굴 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5, 『제주성 총서 사진·지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2019, 『제주 70년 발전실록』(1946~2016)
-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제주시 옛 지명』
- 강정효, 2016, 『한라산 이야기』
- 고광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 고광민, 2016, 『제주생활사』
- 김종철, 1995, 『오름나그네』 1·2·3
- 오창명, 2007,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 이영권, 2013, 『조선시대 해양유민의 사회사』

연구진

- 단 장 강만생(제주역사문화진흥원장)
- 자 문 위 원 고광민(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철(전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부명제·이현숙(유족)
- 책임연구원 김찬수(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 연 구 원 강순석(제주지질연구소장)
강시영(언론인)
강경민(사진작가)
고정균(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오문필(전 한라산등산학교장)
이윤형(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
- 연구보조원 진소정(제주역사문화진흥원)
- 보 조 원 김보연(제주역사문화진흥원)
- 사 진 스 캔 오승목(다큐제주)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사진집

漢山 그리고 濟州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Tel. 064-710-8997 Fax. 064-710-6959
<http://wnhcenter.jeu.go.kr>
수행처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편집인쇄 디자인리더제주

ISBN 979-11-9529-013-0

※ 이 사진집에 실린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제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791195 290130
ISBN 979-11-9529-013-0